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인류학석사학위논문

모두의 성찬:

성소수자 지지 교회의 사례로 본 퀴어 기독교인 시민권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임 유 경

모두의 성찬:

성소수자 지지 교회의 사례로 본 퀴어 기독교인 시민권

지도교수 강 윤 희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임 유 경

임유경의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운	월 장	권	숙	인	
부위	원장	01	현	정	
위	- ° 원	 강		희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장학재단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0108350552J020040001)과 다음세대재단의 2013 문화다양성 석사논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초록〉

본 논문은 비이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퀴어성과 종교적 신앙을 조응시키고 통합적인 퀴어 기독교인 시민권 모델을 구축하는지를 서울의 성소수자 지지 교회 한 곳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지금까지 비규범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중적 논의에서는 "성소수자 VS. 기독교"라는 대립 구도가 만연했다. 성소수자로서의 성격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끌어안으려는 사람들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사회와 기성 교회에서 성원권을 부정 당하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겪는다. 이들 중 개인적으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의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는 성소수자로서 인정 받는 것이 더욱더 불가능한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비규범적 성 정체성을 종교적 신앙과 긴밀히 연결시키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게 된다. 신이 베푸는 절대적 사랑과 행위성안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퀴어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 배경에는 성적 위계체제에서 주변화된 성소수자로서의 경험 및 정체성과 기독교적 신앙 사이에 작동하는 순환적 기제가 있다.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담론자원은 퀴어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반대로 퀴어로서의 위치는 기독교를 극도로 포용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러티브는 자신과 비슷한 동료들, 즉 다른 성소수자 교인들을 만나면서 재/생산된다. 연구자가 8개월 남짓 현장연구를 실시한 무지개교회는 퀴어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소규모의 교회로, 이러한 공동체의 집합적 실천은 성소수자 기독교인 성원들이 퀴어성과 신앙을 교차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회중 구성 차원에서의 다양성과 반차별을 중시하는 교회 내 담론을 통해 무지개교회는 그곳의 성원들이 기독교적 세계와 사회에서 정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을 현저히 낮춘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사용 언어, 종교적 지향 차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인데다가 교회 차원에서는 특정한 모델이 '모범적 퀴어 기독교인'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물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회 운영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지개교회가 보이는 다양성을 거의 절대적으로 긍정하는데, 이는 정당한 모습의인생 모델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 받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특정한 '성 정체성' 특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입장을 확립해가는 정체성 정치와도 구별된다.

존재 자체에 대한 강조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보다 포괄적인 성적 시민권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전술을 선택하는지로 이어진다. 배타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시민권 모델에서 타자화되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적 시민권과 성적 시민권을 교차시키며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사례는 배제 당하는 경험이 오히려 보다 열린 대안적 시민권을 상상하게 한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무지개교회 교인들은 "일반 사회"나 "보수 기독교인"과 자신들 사이에 대립적인 의미구조를 확립한 뒤, 자신들이 추구하는 에토스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강조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과 갈등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전술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그들의 기독교적 성격에도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혹은 논리적 대립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위험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적 주체성과 운동성이 반드시 확장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지금 당장 성적 시민권이 가시적으로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에 오는 것은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 생존하는 것 그 자체이다. 생존에 방점을 찍는 운동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성적 시민권 운동의 선결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때 문턱 없는 천국 시민권 인식과 실천을 제시한 무지개교회의 기독교 신앙은 앞에서 말한 '생존'에 종교적 자원을 제공한다.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천국 혹은 하나님 세계에서 성원권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세계 안에서만의 시민권 획득으로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 차원에서의 성적시민권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신앙 내러티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괜찮은 공간'을 추구하던 것은 종교적 프로젝트인동시에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이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인정' 모델은 기독교적 담론 자원에서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이 대중적 인식에서처럼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본질적으로부조응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진적인 성적 시민권을 상상하는 데 자원을 공급해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성소수자, 비규범적 젠더/섹슈얼리티, 퀴어, 기독교, 교회, 퀴어신학, 문화적 시민권, 성적 시민권, 인정, 다양성

학번: 2012-22936

〈목차〉

I. 서론	······ 1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5
1) 인류학에서의 시민권 연구: 시민권 개념의 확장적 사용을 중심으	으로 6
2) 성소수자 기독교인에 대한 선행연구	8
3. 연구 배경 및 연구대상 소개~~~~~~~~~~~~~~~~~~~~~~~~~~~~~~~~~~~~	12
4. 연구 방법	
Ⅱ. 연구대상의 민족지적 배경: 무지개교회의 일상적 풍경	21
1. 무지개교회의 조직구조와 교인 구성····································	
2. 종교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양상	
3. 친교활동에서 나타나는 양상	
III. 퀴어 기독교인 자기 내러티브의 형성	33
1. 갈등의 일상화	34
1) 퀴어함과 신앙 사이의 내적 갈등	35
2) 과거 교회 공동체에서의 부정	
3) 퀴어 커뮤니티 내 반기독교 정서	
2. 갈등의 극복을 위한 시도	
1)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신성의 분리	46
2) 지적 탐구	
3) 커뮤니티를 찾아서	53
3. 현재를 긍정할 수 있게 하는 신학	55
1) 행위성의 의탁	
2) 심판 및 정죄에 대한 경계와 성경에 대한 태도	
3) 절대적 사랑으로서의 신성에 대한 인식	65

IV.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 무지개교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실천	71
1. 다양성의 공동체	71
1) 성적 다양성의 반영	.71
2) 지지집단으로서의 기능	-78
3) 다양성의 양면	.81
2. 무지개교회에서 구현되는 기독교적 이상	.86
1) "차별이 없는 곳"	. 87
2) 다른 성소수자 커뮤니티 공간과 다른 점	.90
3) 사회적인 것에 대한 경험	93
V. "교회다운" 투쟁방식: 성적 시민권의 획득을 위한 전술들·······	98
1. 타자에 대한 정의	.98
1) 혐오와 사랑의 대비	.99
2) 무지와 이해의 대비	100
2. "교회다운" 투쟁의 방식	104
1) 갈등회피적 성격	105
2) "삶으로써 보여주기"	108
3. 현실적 한계와 지속되는 가치	114
VI. 결론1	19
참고문헌1	24
Abstract 1	29
감사의 글	-
유미리 ㅋ	

일러두기

-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기독교'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을 포함한 다양한 기독교 종파를 모두 포함함을 밝힌다. 다만 연구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경우에 따라 인용문 안의 '기독교'는 개신교만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했다. 그리고 연구대상 교회 공동체 구성원 중 다수가 개신교 배경에서 온 점을 고려할 때, 연구참여자들 대다수의 '기독교' 경험은 개신교 전통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연구참여자들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원 자료가 영어인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영어 원문을 병기했을 때 화자가 의도한 뉘앙스가 더 잘 전달되는 경우에는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을 모두 제시했다. 인용문 내 표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발화자가 말끝을 흐리거나 늘임
 - "[…]": 연구자가 인용문을 생략함
 - "()": 연구자가 관찰한 발화자의 특성(예컨대 목소리 크기나 음색의 변화) 혹은 연구자의 부연 설명
- •본 논문에서 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새번역성경(대한성서공회 2001)을 이용하였다.

I. 서론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 아직 차려진 부스는 아무것도 없고 바로 옆 공연 무대 뒤편에 걸려있는 '동성애자 회복모임'의 현수막 앞으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 다수였고 일부 젊은 사람들이 보였다. 퀴어퍼레이드 반대집회가 준비되는 동안에는 그곳에 모인 중년 여성들이 중얼중얼 기도를 했고,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끊어져야 할 죄악입니다"와 같은 피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릿빛으로 태닝한 호리호리한 몸매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은 그들의 기도회가 진행되는 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지랄-!"*이라고 크게 소리치며 비웃고는 신촌역 입구로 들어갔다.

무대공연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한 중년 여성은 헤드셋형 마이크를 끼고 종횡무진하며 쉬지 않고 말했다. "동성애는 더러운 거예요.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 지옥은 한 번 들어오면 나올 수 없는 유황불이 있고. …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 너희는 음란하고 패악한 세력을 본받지 말라.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불구덩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흉측한 거예요. 더러운 거! 그거는 악당 사탄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지옥에 데려가려고. …" 이를 보던 한 남성은 진절머리 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 앞으로 가서 그녀 얼굴 바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대고는 소리 쳤다. "아.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2014.6.7. '퀴어퍼레이드' 필드노트 중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위의 사례에서 속 시원히 "아, 지옥 간다고!"라고 외칠 수 없었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LGBTI¹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3,108명의 성소수자 중 무교의 비율이 66.3%로 한국인 전체보다 높기는 했지만 개신교인이 12.4%, 천주교인이 10.1%로 기독교인이 20% 이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비이성에 및 비규범적 젠더는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며, 기독교계와 성소수자 커뮤니티 및 운동 진영은 최근 10년간 대체로 갈등과 반목관계를 유지해왔다.

교회가 "세상"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향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는 비교적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거나 혹은 이것을 기독교가 맞닥뜨린 도전 혹은 위기로 보며 부정적으로 반응해왔다. 지난한 역사를 거치며 성소수자 사회운동 및 커뮤니티 진영에서는 기독교를 갈등과 대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독교신앙생활과 비이성애적 성정체성이 아무런 문제없이 부드럽게 양립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설명하거나 예배 등의종교생활에 참여하는 성소수자들이 실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기독인 단체나 교회도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유표적인(marked)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기독교적 세계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게 하는 데에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커졌다.

양자 사이에 '끼어있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부조응적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술을 이용하는가? 다시 말해 이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려 하며, 이러한 자기 설명은 어떤 기제를 통해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확장되고 적용되는가? 모든 사람들의 자아와 주체성이 타 존재와의 관계 즉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되는 것은 곧 자신이 설 자리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인식에서 포함과 배제의 역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런 점에서 위 질문들은

.

¹ Lesbian(여성 동성애자), Gay(남성 동성애자),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트랜스젠더), Intersex(간성)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소수자 전반을 아울러 일컬을 때 자주 쓰인다. 때때로 여기에 Asexual(무성애자), Questioning(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태), Queer(비규범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가졌음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시민권'의 문제를 상기시킨다. 본 연구는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국가 차원에서의 법제도적 성원권으로 보는 1차적 정의를 넘어서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갖는 지위와 권리의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성소수자들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 이론은 성이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에 대한 규범적인 개념 안에 성적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많은 국가가 정책 및 법제도가 적법한 시민(citizen)이라면 "좋은" 혼내(婚內) 성(sex)만을 실천한다고 전제하며(Tan 2009: 144) 시민권 담론이 작동하는 방식 중 상당부분은 시민들을 특정한 성적 주체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Bell&Binnie 2000: 10).

호네트(2011[1992])에 따르면, 주변화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수치감"이라는 정서를 공유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집단적 저항이 발생하고 이때 개인은 미래의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자신이 인정받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기존의 조건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사회적 존중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인정 경험은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연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 연대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한다(호네트 2011[1992]: 302-303). 호네트는 개별자의 정체성의 형성과 실현을 위해서는 타자와의 연관이 필요하고 차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차이를 공존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동일성이 필요하며 대칭적 인정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정이론(이현재 2007: 43-54)을 기반으로 하되 '인정'을 정치사회적 '투쟁'의 영역으로 불러온다. 그에 따르면 타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연대를 통해 드러난다(이현재 2007: 177-178). 부정적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성소수자의 경우 커뮤니티 씬(scene)의 성장 및 LGBT 인권운동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자아 내에서의 인정투쟁과 전체 사회 차원에서 성적 시민권의 경계를 넓히는 인정투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지형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 기독교인의 사례는 서로 조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시민권을 확보하는가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 인정 투쟁을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소재이다.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사례에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자신 같은 존재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중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집단이 '기독교인' 집단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어떤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로커스(locus) 역시 —관념적 및 물리적 차원에서— 기독교적 세계라는 것이다. 이들의 성적 시민권 투쟁에서 종교적 신앙은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기독교적 세계—의 시민권'과 정치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성적 시민권'은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친(親)성소수자 교회공동체들이 부조응해 보이는 것을 조응시키며 성소수자들의 인정투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경험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성적 시민권 모델과 기독교적세계관의 조응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들은 성소수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받아들이는가? 그들은 기독교적인 관념 세계 안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위치시키기 위해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가? 2) 퀴어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소수자를 환영하고지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실천은 무엇인가? 이러한 공동체 내상호작용은 행위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방식의 기독교 및 성정체성 이해를 담지하게만드는가? 3) 앞에서 다룬 개인적 및 공동체적 종교적 실천을 통해 이들은 어떻게자신의 성적 시민권을 개념화하고 쟁취하는가? 그리고 그것에는 어떤 학문적 사회운동적 시사점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연구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자가 주목한 층위는 본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와 공동체적 실천이다. Ochs와 Capps(1996)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경험으로부터 나온 동시에 경험에 형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내러티브를 통해 자아는 '세상 속에 있음'에 대한 성찰적 의식을 드러낸다. 세계에서 개인이 자신을 어떤 개체(entity)로 느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주관적인 관계맺음의 결과인데 내러티브가이 관계맺음을 매개하는 것이다(Ochs&Capps 1996: 20-21). 그렇기에 내러티브의 분석은 일면 부조응적으로 보이는 정체성 요소들을 동시에 안고 가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통합하며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자신의위치를 확보하고 싶어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러한내러티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재/생산되고 그 외부에서의 정치적인식과 행위로 확장되는 양상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성적 시민권 인식을 중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한국의 퀴어이론가 서동진(2005)을 비롯하여 성적 시민권을 다루는 이들은 성적 시민권 개념이 이성애규범적(heteronormative)인 기존의 시민권 담론 자체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성소수자들이 기존 시민권 개념 하에 '편입'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시민권 담론 자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시민권의 퀴어화(queering)2"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서려면 퀴어 시민권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적 사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민권의 퀴어화" 과정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Ortner(2006)는 종교가 서벌턴(subaltern)의 문화적 우주관으로 기능하며 이로부터 저항의 행위들이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그 동안 사회와 교회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억압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성적·종교적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기독 신앙 인식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적시민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운동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독교와 퀴어적인 정체성 및실천을 갈등적인 관계로 보는 대중적 인식을 넘어서 그 둘이 오히려 상호형성적인 혹은 공진화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성정체성과 종교적 신앙 사이의 교차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퀴어 기독교인

^{2 &}quot;퀴어(Queer)"는 원래 '괴상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로, 과거에는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기위해 쓰이던 말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재점유하면서 비규범적인 성 정체성 및 표현을 보이는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우산 개념이자 이성애중심주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퀴어이론가들은 '퀴어'라는 용어의 급진적인 포괄성(inclusivity)을 강조해왔으며, 이는 이 용어에 고정된 한가지의 정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와도 연관되어 있다(de Lauretis 1991; Jagose 1996; Warner 1993; Wilcox 2006: 7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욕망/실천'이 갖는 의미 중 핵심은 그것이 사회 전반이나 한국의 주류 기독교 담론과의 관계에서 부여 받는 비규범성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완벽히 동일한 섹슈얼리티(경험)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일정 정도의 동질감이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성전환 수술 여부나 섹스 취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조금씩은 '모범적이지 않은', 다시 말해 규범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자기 인식 및 정체성이라고할 수 있다. 사회의 성적 위계에서 권력적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조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 "퀴어"라는 말이 유효하다가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 기독교인'과 '퀴어 기독교인'을 혼용하려고 한다.

시민권에 대한 연구로서, 성소수자 기독교인 당사자들이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생애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떠한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성적 시민권을 획득하려 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먼저 이 연구가 천착하고 있는 분석적 개념인 '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 그 동안 성소수자 기독교인에 대해 국내외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있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1) 인류학에서의 시민권 연구: 시민권 개념의 확장적 사용을 중심으로

본래 시민권 개념은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다할 책임을 갖는 '시민'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정치학적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 시민권 개념의 외연은, 시민권의 경계와 동학이 사실은 구체적인 역사적 순간들에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주장(Rosaldo 1994; Young 1996, O'Neill 2009에서 재인용)과 함께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인류학에서 '문화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가장 초기에 활발히 이끌어낸 Rosaldo(1994)는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이란 다를 권리(즉 인종, 종교, 계급, 성별, 성적 지향 등 여러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어도 모두 평등할 권리),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 속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Rosaldo 1994: 402). 한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라는 말로 쉽게 대표될 때, 그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는 물음은 Rosaldo의 문화적 시민권 개념에서 필수적인 질문이다. 한편 Ong(1996)은 시민권을 "(푸코적인 의미에서 감시, 훈육, 통제, 행정 제도를 통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권력관계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주체화의 문화적 과정"으로 정의한다(Ong 1996: 737). 이처럼 시민권을 정태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시민권 개념의 탈자연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상의 탈자연화가 실제적으로 시민권의 동적이고 과정적인 성격을 실천 차원에서 바로 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애쓰는 행위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시민권이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소속과 상태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 시민권 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은 문화가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화'의 자리에는 인종,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등등 다양한 개념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시민권이 계급, 인종, 성별, 섹슈얼리티, 종교, 국민국가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수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성적 시민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대 인구학과 성과학의

발전과 함께 섹슈얼리티³가 개인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기기 시작되고 그중에서도 젠더 표현이나 원하는 성적 파트너의 성별이 여러 섹슈얼리티 요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표(mark)로 간주됨과 동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지향과 젠더를 가진 이들은 마치 완전히 다른 별도의 종(race)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푸코 2010[1976]). 이러한 '별종'들이 국민국가 혹은 사회의 온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지난 5~60년 간 정치적 경합이 전개되어 왔다.

그렇다면 시민권 앞 수식어 자리에 '종교'가 들어가면 어떠한가? 전후 과테말라의 대형 오순절교회를 연구한 미국의 인류학자 O'Neill(2009)은 내전 후 과테말라 사회에서 기독교와 시민권 사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과테말라시티에서 기독교가 단순히 하나의 신앙체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실천이 시민권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기독교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O'Neill은

³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애적 욕망, 행위, 정체성을 두루 일컫는 개념(Jackson&Scott 1996; 박이은실 2011에서 재인용)으로 상당히 유동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확장적인 정의로는 '성 행위에 국한되지 않은 성적 실천, 정체성, 에로틱한 욕망을 포함한성적 감정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성적이라고 규정하는 방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적 욕망을 창조하고 구성하고 표현하며, 추구하는 사회적 과정'인 동시에 '성 역할, 성행위, 성적 감수성, 성적 지향, 성적 환상과 정체성을 정의하고 생산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박이은실 2011). 성적 욕망과 실천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섹슈얼리티 개념이 처음부터 별개의 이론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8~90년대 이전까지 인류학에서 이 분야는 따로 독립된 분야이기 보다는젠더 연구에 포함되어 다뤄지곤 했다. 그러나 이후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별개의 이론적 개념으로보는 경향이 더욱 힘을 얻었고 이러한 경향은 학계에서는 물론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섹스(sex)', 사회적인 성별로서의 '젠더(gender)', 그리고 성애적 욕망.행위.정체성을 일컫는 개념으로서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사이의 구분은 그리 확고한 것이 아니다. Butler(1990) 같은 후기구조주의 입장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섹스 역시 젠더 개념에 의해만들어진, 다시 말해 젠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어떤 모습이 "여자"이고 어떤 모습이 "남자"라는 문화적 상(image), 즉 젠더가 먼저 존재하고 그에 맞추어 섹스(생물학적 성차)가 개념화된다는 것이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역시 많은 경우, 관념과 실천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통 여성"과 "보통 남성"이라고 의미화된 특정 젠더들에는 '이성애자'라는 섹슈얼리티상의 조건이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를 젠더와는 다른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적 욕망 혹은 성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 한 사회에서 그것이 개인과 문화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 정의되고 역동해나가는지를 보다 집중적이고 섬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섹슈얼리티를 온전한 하나의 이론적 개념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을 젠더와 완전히 분리시켜서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이 복잡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해당하는 의미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과테말라 교인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렇게 기독교적 신앙실천(예컨대 기도, 찬양, 셀그룹 모임 등)을 통해 수행(perform)된 '기독교인(으로서의)시민권'은 교회 외 전체 사회에서의 정치적, 도덕적 시민권과 동떨어져있지 않고 밀접한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해당사회에서 "불법적"인 위치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종교적세계에서의 시민권 획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예컨대 미국 사회에서미등록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앙과 종교적 담론은 이들이 주류 사회에 의해 '타자화'되고 '불법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대안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자원이 된다(강윤희 2012).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시민권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전형적인 신앙 내러티브에서 선/악, 하나님/사탄, 그리스도/적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속세, 천국/지옥, 구원/타락, 영생/죽음 같이 이분법적 구조가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기독교에서 한 사람(혹은 어떤 행위)이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속감을 중심으로 한 시민권에 해당하는 개념은 기독교 내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왔으며, 이는 성소수자 기독교인의 신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유표적인(marked)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 및 표현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2등 시민취급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들은 성적 위계(Rubin 1984)에 따라 사회의시민권이 배타적으로 구성됨을 더 절실히 느낄 가능성이 높다. 역설적이게도 배제의상태는 어떤 집단의 성원권(membership)이 구축되는 방식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기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권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기독교적 신앙은 성소수자기독교인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맥락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기독교적 시민권과 성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종교와정치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2) 성소수자 기독교인에 대한 선행연구

성소수자 기독교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퀴어신학의 등장 및 발전과 성소수자 연구의 증가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최근 많이 늘어났다. 이 절에서는 먼저 더 많은 연구가 된 바 있는 서구 학계에서의 조류를 개관한 후 성소수자 기독교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한국 연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리뷰한 뒤 본 연구가 그 계보에서 어떤 빈칸을 채우려고 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종교사회학자 Wilcox(2006: 78)에 따르면 LGBT 연구, 퀴어 이론, 종교연구가 교차하는 학문적 생산물은 크게 i)경전 연구 및 신학, ii)역사적 연구, iii)비교학적 접근, iv)사회과학적 연구로 나뉜다. 1번의 예로는 여성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확립된 최근의 퀴어 신학이 있고, 2번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고대의 전통 종교에서 동성애나 젠더 크로싱(gender crossing)4의 증거를 발굴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번에는 동성애나 젠더 크로싱에 대한 각 종교의 관점들을 비교하는 비교종교학적 연구가 해당된다. 마지막 카테고리인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인류학은 가장 초기부터 동성 간 성애나 젠더의 정의가 전지구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온 분과이다. 그러나 (특히 근대 이후에, 마치 별다른 인종인 것처럼 개념화된 정체성인) 성소수자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미국 LGBT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미간행 학위논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Wilcox 2006: 83). 보다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저작물이 쏟아져 나온 분과는 심리학과 종교사회학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협상이나 내면화된 억압 등에 주목한 논문이 많은 편이고(Wilcox 2006: 84; 예컨대, Roseborough 2006; Rodriguez&Ouellette 2000) 이를 상담심리학에 응용하는 조류 역시 주요하게 나타난다(Bozard&Sanders 2011; Glassgold 2008).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자기 내러티브 자체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내러티브 분석을 했던 연구들에서는 종교와 소수자적 성정체성 사이의 모순적 교차가 이들의 내적 자아를 구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O'Brien(2004)은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자기-내러티브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 그가 발견한 담론적 패턴에서 가장 주요하게 등장했던 테마는 '모순(contradiction)'이었다. 저자는 모순적 상황 및 조건에서 통합적인 자아를 구성하기위해 그들이 겪는 투쟁이 이들 삶에서 '존재의 이유(raison d'etre)'를 구성한다고주장했다. 종교와 성정체성 사이의 충돌이 그들에게 '존재론적 위기'를 가져왔고 그것을 극복해낸 이들은 퀴어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시련과 고난의과거에서 (예수를 만나)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기독교의

⁴ 반대 성별에 해당하는 특징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지배적인 이야기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White와 White, Jr.가 자서전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2004)에서도 성소수자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공적인 통합적 정체성 확립을 기준으로 하여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의 극명한 대비가 등장한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점은 통합적인 퀴어 기독교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웬만해서는 평화롭게 획득되거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당연하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쓰는(즉, 자신의 비규범적 성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주류 종교적 해석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담론적 도구 및 자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드러난다(Yip 1997; 2005; Wilcox 2002; Kubicek et al. 2009). 이 연구들은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종교라는 두 축 사이의 조화 혹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주목한다. 이 중에서도 Wilcox(2002)와 Kubicek et al(2009)의 경우에는 이들이 자신의 성정체성과 종교적·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는지를 분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모인 교회인 MCC(Metropolitan Community Church)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연구한 Wilcox(2002)의 논문에서 특히 돋보이는 점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원활용방식이나 전술(예를 들어, 종교적 개인주의)이 단순히 선택의 문제만은 아님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MCC 같이 구성원 대다수가 성소수자인 교회공동체는 이들에게 다른 공간이할 수 없었던 지지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Wilcox 2003).

한편 기독교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동성애를 비롯한 비규범적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해 금지적인 교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사례에 대한 연구들도 살펴볼 만하다. Schnoor(2006)는 유대인 게이 남성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들이 종족성 및 종교와 섹슈얼리티 사이에 교차하는 정체성들을 어떻게 '협상'하는지 분석했다. 그는 정체성 구성에 대해 보다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인류학자 Boelstorff(2005)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게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의 주체성이 어떻게 종교와 욕망 간의 부조응성(incommensurability) 안에서 형성되는지를 탐구했다. 이 두 사례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종교적 정체성이 그들의 종족성(ethnicity)과도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하며, 교차적 정체성 및 주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경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말 이후부터 천천히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성애자-특히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이는 다양한 이름표를 가진 성소수자들 중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가장 가시화된 집단이 바로 남성 동성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실시된연구들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초기에는 기독교 윤리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같은 교리적인 해석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최성복 2001; 이병구 2002) 이는 본 절을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소개한 Wilcox(2006)의 분류 중 1번과 3번 범주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동성애를 보다 "포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상담학적인 접근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논의가 나왔고,실제 동성애자 기독교인의 사례가 연구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논문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결국 '죄'로 보는 특정한 성서적 해석을 거부하지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백은정(2004)은 면담을 통해 획득한 남성 동성애자기독교인들의 내러티브를 논문 본론에서 비중 있게 드러내고 이들이 '낙인'으로 인해고통 받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로서의 기독교나 기독교인 일반이 이들을 다른 시선으로 봐야할 필요성을 암시하지만 결론에서는 치료적 접근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기독교인에 대해 신학이 아니라 보다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한 소수의 경험적 연구로는 박근진(2003)과 정원희(2013)의 논문이 있다. 박근진(2003)은 약 10개월 동안 동성애자에게 포용적인 개신교 교회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며 심층면담을 포함하여 상당히 심도 높은 현장연구를 수행한 선례이며 본연구와도 주제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 다만 그의 연구는 게이 중심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동성애자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정원희(2013)는 한국 개신교 내에서 진행되어 온 "동성애 논쟁"의 참여자들을 '감정의사회학'과 의례분석의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개신교인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선택적 연구대상 집단으로서 등장했고 저자는 이들이 교회에서 경험한 바,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했는지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교회 내 타인에게 커밍아웃 5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및 경험 등의 관계를 감정 동학 중심으로 분석했다.

요컨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성소수자이면서 (주류 교리가 성소수자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종교의 신자'인 주체에

⁵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of closet)' 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소수자가 숨기고 있 던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슬람이나 기독교 주류세계에서 LGBT 정체성 및 욕망이 조응되지 않는(incommensurable) 혹은 낙인찍힌(stigmatized) 존재로 간주된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비이성애 및 젠더크로싱 vs. 기독교'의 구도를 무조건 당연한 사회적 사실로 전제하기 않으려 했다. 또 지금까지 (특히 영어권학계에서 활발하게) 나온 대부분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성소수자 신자 개인을 가장주요한 분석 단위로 두고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본연구는 포괄적인 민족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소수자 중심 교회의 사례를 총체적으로연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자는 교회라는 하나의 장에서 교회의제도적(기관적)인 특징과 개별 행위자들의 생애사 사이에, 그리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어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도 주목했다.

그리고 한국 학계에서 아직까지는 주로 신학을 기반으로 한 교리적 해석, 혹은 심리학적 분석이나 상담심리학적 제언으로서의 지향을 가졌던 연구가 더 많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기독교인 비이성애자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제도(institution) 및 행위성(agency)의 작동을 탐구하고 성적・종교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이를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 성소수자 기독교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혹은 기독교의 "동성애 인식"에 대한 연구들과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게이', '레즈비언' 혹은 'MTF/FTM 트랜스젠더⁶' 처럼 특정 정체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니라, 이들이 성적 위계 체제(Rubin 1984)에서 주변화되고 '불법화'된 존재라는 성격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시민권의 정치역학을 조명하려 했다는 의의가 있다.

3. 연구 배경 및 연구대상 소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기독교 내에서 비규범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 지향, 특히 동성에에 대한 담론이 급격히 팽창했다. 이전까지는 비이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하던 교회가 이제는 그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세계

⁶ MTF(Male-to-Female)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남성의 성별을 받았으나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FTM(Female-to-Male)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여성의 성별을 받았으나 남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러 국가에서 교회(기독교)는 성소수자들의 사회권과 문화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주요한 행위자였다. 20세기 초부터 서구에서 비이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차별, 구조화된 폭력에서 핵심적인 담론적 자원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바로 비규범적인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지향하는 것이 '신의 창조질서에 어긋난다'는 종교적 논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에서 '조직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었고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었다. 동시에 20세기 중•후반부터 서구사회를 시작으로 성소수자들의 정치세력화가 진행되었고, 그들은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점차 제도화된 사회 속에 '성소수자 주체'의 자리를 마련해갔다. 법제도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이들의 주장은 국제적 인권기준들과 함께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물론 최근 우간다⁷나 러시아⁸ 등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이후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과 같은 다자간 대화기구들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에서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점점 더 규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회 밖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는 비교적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켰다. 로마가톨릭에서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발언을 하지않고 있다. 지금까지 로마가톨릭의 공식적인 신학적 입장은 타고난 비이성애적 성적지향 자체는 죄가 아니나 동성애 행위는 죄로 보는 것이었다. 한국 가톨릭에서 역시기본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중앙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며 방법론적으로는 침묵을지켜온 경향이 강하다. 반면 천주교에 비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행위주체조직의 수가 더 많은 개신교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또 종종 공격적으로 비규범적인성적 지향과 젠더 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리의 인정"이라는 기치를 들고 수면 위로 떠오른 성소수자 운동은 그 영향력을 키워나갔고, 서구를 시작으로 했으나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

7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법이 이미 있었던 우간다에서는, 여기에 더해 반동성애법이 2013년 12월 의회를 통과하고 2014년 2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면서 동성애행위에 대해 첫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14년 징역, '가중죄'를 적용할경우 최고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8월 우간다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미달로 이 법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대법원에 이에 대한 항소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BBC News 2013-12-20; 2014-02-24; 2014-08-01).

⁸ 러시아에서는 소위 '동성애선전법'이라고 불리는 유해정보관련아동보호법 개정안이 2013년 발효 되었는데, 여기서는 "비전통적인 성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다발적으로 성과 가족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담론들이 세력을 키워나갔다. 그 결과 계속해서 비이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반종교적이고 반자연적으로 보는 교리를 고수했던 교회조직들은 이들과 더 이상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점점 교세가 줄어들고 기독교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같은 환경에서 위협감을 느낀 보수적 개신교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성윤리 영역을 주된 전투지로 선택하여 성소수자들을 악의 세력으로 지목했다(Wilcox 2002; 한채윤 2013-10-11). 탈동성애운동(ex-gay movement) 같은 개인적 성윤리 "회복" 운동과 사회 전체의 성윤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사회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미국의 보수 개신교회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시작되고 발전해온 한국 개신교도 비슷한 경로를 택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정치 운동과 '동성애자 사회단체'라고 불릴만한 것이 처음 시작된 90년대 후반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교회가 이에 대해처음으로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2003년에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한 후, 보수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성명 등을 통해 "지옥에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인권위의해당 결정과 동성애자들을 매우 공격적으로 비난했다. 얼마 후 가톨릭 신자였던 한 게이청소년이 교회조직의 이러한 태도에 상심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사과를 요구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이나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이하 한기연) 같은 진보적 기독교 단체들의 항의에도 한기총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한채윤 2010: 6).

2007년에는 참여정부 임기 막바지에 법무부가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바른 성을 위한 국민연합'이나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과 같이 기독교 색채를 띈 보수단체들의 압박으로 정부는 끝내 해당 조항을 수정한 안을 입법예고했다. ⁹ 2011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주민발의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과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보수기독교 세력의 압박이 시의원들에게 가해졌고 미디어 상에서의 논쟁도 상당했다(나영정 2012). 그리고 2013년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려고 시도하자 이번에도 보수 기독교계 및 그와 연합한 단체들이 엄청난

.

[🤊] 해당 안은 인권단체들의 보이콧과 17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인해 결국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정치적 반발을 보인 끝에 법안 발의가 무산되었다. 10 2014년 말 현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제정되려는 과정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되고 시장에게도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다.11

법제를 둘러싼 갈등 외에도 공적인 장에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계와 성소수자 운동은 약하게는 불편한 관계, 강하게는 극렬한 대치관계를 지속했다. 2012년에는 가톨릭청년회관이 한 성소수자 단체가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의 워크숍에 대관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고, 2013년에는 서울 내 일부 지역에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현수막 게시나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구청이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 당시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은 '보수 개신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구청에 전화와 메일 등으로 압박을 가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최초로 대중공개 방식으로 진행된 동성간 결혼식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결혼식 때도 보수 개신교인들이 준비 현장에 와서 반대기도회를 하고 행사 준비를 방해한 것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실제 식이 진행 중일 때 한 교회의 장로라고 밝힌 남성이 인분이 섞인 오물을 무대에 뿌린 사건은 여러 뉴스매체에도 보도되었다.12 2013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다양성의 사례로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이 담기자 이를 계기로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보수개신교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개신교 우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본론에서 사례로도 등장할 2014년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둘러싸고도 성소수자 커뮤니티 및 인권운동 진영과 보수 개신교 세력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정면충돌했다. 이렇게 지난한 역사를 거치며 성소수자 사회운동 및 커뮤니티 진영에서는 기독교를 갈등과 대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기독교 '주류'세력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는

¹⁰ 신유리, "'차별금지법' 좌초 위기… 보수종교단체 강경 반대: 민주당 철회 '이성적 토론 어려운 상황'", 2013-04-22[2014-12-09 접속], 여성신문.

¹¹ 김태우,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 ··· 시민위 '선포·이행을'", 2014-12-01[2014-12-09 접속], 한겨 레.

¹² 유기림,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서 오물 투척 사건 발생: 기독교 신자 이모씨 '성경에 동성애는 금지돼 있다.'", 2013-09-07[2014-10-01 접속], 뉴스1.

기독교가 주로 분노나 조롱의 대상으로 회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소수자 교인들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환경에 처해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방하는 기독교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2003년 엑스존 사건 이후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태도를 지향해온 한기연과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둘러싼 논쟁을 계기로 출범하게 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천주교 신자 퀴어 모임인 안개마을, 1997년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교회로 설립된 로뎀나무그늘 교회, 진보진영 시민운동에 활발히 참여해온 향린교회에서 2013년에 분가한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사제가 2013년 시작한 길찾는교회, 2011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 목사가 10명이 채 안 되는 교인들과 처음 시작한 무지개교회(가명) 등, 성소수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소규모의) 기독교 단체나조직들이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났다.

아직 소수지만 오늘날 한국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신앙공동체의 생성 및 발전의 배경에는 담론의 전지구화가 있다. 전지구화와 함께 퀴어신학(queer theology)이 초국적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신앙과 성정체성을 급진적인 방식으로 조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담론적 자원이 생긴 것이다. 미국의 탈식민주의 퀴어신학자 Patrick S. Cheng(2011)은 퀴어신학을 LGBT들이 하는 신학이자 LGBT들을 위한 신학이라고 간단히 정의하는 동시에, 섹슈얼리티와 성에 대한 이분법 같은 기존의 사회적 관념에 도전을 던지고 비판적으로 행동하는 신학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기독교 신학이 근본적으로 퀴어적인 활동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신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육신과 삶, 죽음,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삶과 죽음, 신과 인간, 중심과 주변, 무한과 유한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정된 것처럼 보이던 두 분류를 뒤흔들고 무너뜨린 존재였기 때문이다(Cheng 2011: x). 퀴어신학자들은 성경을 기존과 다른 대안적인 방식으로 독해하여 반퀴어적인 전통적 독해를 부정하는 동시에 퀴어를 지지하는 자원으로도 쓴다. 그리고 초기 및 중세 기독교 전통에 대한 역사를 새로 연구하여 그 안에 존재했던 LGBT의 경험을 재발견하기도 한다. 성에 대한 구성주의적이고 후기구조주의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한 퀴어 이론을 기독교 신학 내 이분법을 지우는 데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퀴어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경험들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일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여 LGBT의 경험을 적극적을 포섭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가장 초창기의 게이 신학 단행본이 나오고(Robert W. Wood 1960)

게이라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Troy Perry 목사가 MCC를 설립하면서 퀴어신학은 문헌과 실천의 두 차원 모두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기독교 신학이 근본적으로(필연적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퀴어들의 해방이 복음과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있다는 입장, 상호관계 속에서 신을 이해하고 찾는 입장을 거쳐, 80년대 이후의 퀴어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탄생한 '퀴어신학'까지 진보했다고 Cheng은 정리한다(Cheng 2011). 전지구화와 함께 위와 같은 담론적 자원이 한국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일례로 2014년 11월에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hristian Council: 이하 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린 것을 계기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전 세계의 성소수자 및 지지자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에서 한국의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및 지지자들을 만난 바 있다.¹³

연구자가 연구대상지로 선택한 무지개교회는 위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 서 있는 하나의 사례로, 교회가 시작된 2011년부터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곳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평균적으로 30~40명 정도의 회중이 모이는 소규모교회로 구성원 중 다수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외 비규범적인 젠더표현이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스스로를 '성소수자 당사자'로 여기지는 않지만지자로서의 입장을 가지며 교회에 나오는 비성소수자들도 꽤 있다. 2011년 가을 이교회가 처음 생긴 것은 수년간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 목사 Paul ¹⁴ 이한국에서 자신과 같이 성소수자이면서 크리스천인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고결심하면서부터였다. 그를 주축으로 하여 10명이 채 되지 않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모여 무지개교회 모임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교인 중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이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국적별 구성의 경우 초기와 달리 한국인 교인 수가 점점 늘어서지금은 거의 50:50이거나 오히려 한국인 수가 조금 더 많을 정도이다. ¹⁵ 현재 이 교회

¹³ 김아람, 2013-11-04[2014-10-01 접속], "성소수자 • 기독교단체, '성소수자 차별 멈춰야'", 연합 뉴스.

¹⁴ 본 논문에 등장하는 무지개교회 구성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실제 자신의 (영어)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알파벳으로 이름을 표기(예: "Paul")했고, 한국인으로 한국어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영어로 된 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한글로 가명을 표기(예: "전영우", "데비")했다.

¹⁵ 이 집단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예컨대 종족적인 배경이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라난 한국계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인들은 대체로

공동체는 2~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10대와 4~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남성동성애자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내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수적 불균형이 완화되었다. 16 이 교회공동체의 또 다른 특이점 중 하나는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종교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교인 중 다수가 개신교인이지만, 무지개교회 차원에서는 이 공동체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종교를 따지지 않는 편이다. 젠더, 섹슈얼리티, 국적, 사용 언어, 종교적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지개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적・성적・종교적시민권 모델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해준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 인류학적 현지연구를 수행했다. 2013년 9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무지개교회 공동체로부터 연구허가를 받고 17 2014년 1월까지는 약 2주에 한 번씩, 그 이후부터는 2014년 6월 초까지 거의 매주 주일예배와 이후 친교에 참여하며 연구를 수행했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심층면담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초기의예비조사 기간과 본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총 8개월 남짓 현지연구를 수행했으며, 2014년 6월 말부터 11월까지는 필요에 따라 보충조사를 했다. 연구자는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통번역을 비롯하여 연구자가 무지개교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돕기도 하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다.

언어(한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국인/외국인 여부를 가리지만, 이는 당사자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과는 반드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¹⁶ 스스로를 여성으로도 남성으로도 정의하지 않는 '젠더 퀴어'도 소수 있다.

¹⁷ 본 연구는 최초 연구목적 설명 시 '교인 투표'라는 방식을 거침으로써,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고지된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를 최종 통과한 이후에는 서면으로도 동의서를 받았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올경우 연구자는 연구 사실에 대해 밝히고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개인이 본 연구 참여에 대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 참여관찰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한 참여관찰 대상이 되었던 세팅은 주일예배와 예배 후 친교시간으로, 매번 짧게는 3시간 길게는 10시간 동안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연구자는 보통 예배 시작 전에 그 공간에 모인 교인들의 상호작용(교류) 양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의 의례화된 형식과 그 안의 언어적 • 준언어적 • 비언어적 내용, 그리고 각 순서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양상을 관찰했다. 특히 설교 후 토론 시간은 목사 외에 일반 교인들이 그날 제시된 신앙적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연구자는 초기 동의를 받은 후 예배를 녹음했으며 예배 중에는 수기로 간단히 메모를 했다. 예배 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친교시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그 외 부차적인 참여관찰 현장으로는 성경공부와 비정기적인 교회 행사 및 대외 연대활동과 비공식적인 친교상황이 있다. 성경공부에는 총 10회 참여하였는데, 필요할 경우 종종 통역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 외에 연구자는 다른 교회와의 연합예배나 국제적인 기독교 컨퍼런스 같이 종교적 성격을 띤 행사는 물론이고 서울퀴어문화축제 같이 비종교적 성격의 행사에도 두루 참여하며 균형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교회 SNS그룹을 비롯한 온라인공간에 대한 관찰은 교회 소식을 신속하게 접하고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질 때 진행 상황을 따라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2) 설문조사

연구 전반에는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무지개교회라는 장을 파악하고 연구참여자들과라포(rapport)를 쌓는 데 주력한 후, 연구 중반부에는 간단한 서면 설문조사를 1회실시했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가 주어졌고 외국인에게는 같은 내용의영문 설문지가 주어졌으며, 응답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연구자는 설문조사를 통해나이, 직업, 출신 지역, 종교적 배경, 성별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회중 구성 정보를 얻고자 했다. 또, 성소수자인 교인들의 경우 지금까지 퀴어 커뮤니티바깥의 사람에게 커밍아웃한 횟수와 가족이나 친구, 학교 및 직장 동료들에게커밍아웃한 정도를 물음으로써 그들이 이 교회 외에 어느 정도의 동료 지지기반을 갖고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그 외에 신앙 관련 정보를 얻는 출처나 무지개교회 활동참여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이 교회가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역보고자 했다.

3) 심층면담

공식적인 심층면담은 무지개교회에 수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석한 경험이 있는 총 34명과 진행했다.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회 인터뷰를 실시했고, 한 명과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주 다른 교인 2명이 동참하여 마지막에 집단 인터뷰를 하게 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적으로 1:1로 면담을 진행했다. 모든 면담은 열린 구조로 1~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대부분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인터뷰의 경우 면담 참여자의 집에서 진행했다. 한 명을 제외하면 모든 참여자가 인터뷰 녹음에 동의하여 녹음을 실시했다. 면담 참여자 중 11명이 외국 국적자였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미 출신이었으며 이 중 3명이 한국계였다. 이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중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교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참여자와는 영어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면담 참여자의 연령대는 10대가 1명, 20대가 21명, 30대가 11명, 40대가 1명이었으며, 젠더 및 섹슈얼리티 분류에 따르면 시스젠더 레즈비언이 5명, 시스젠더 여성 양성애자가 2명, 젠더퀴어 양성애자가 2명, 이성애자 MTF 트랜스젠더가 2명, 양성애자 MTF 트랜스젠더가 1명, 시스젠더 남성 동성애자가 20명, 시스젠더 남성 양성애자가 2명이었다. 종교에 따라 분류하자면 이중 27명이 기독교였다. 나머지 7명 중 5명이 현재 자신은 무교라고 설명했고, 2명은 불교라고 설명했다.18 공식적인 심층면담 외에도 종종 친교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비공식적인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_

¹⁸ 무지개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작아서 면담참여자 전체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제시할 경우공 동체 내 성원의 경우 각 개별 면담참여자들의 신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심층 면담 참여자의 나이, 국적, 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 같은 신상정보를 한꺼번에 요약한 표는 제 시하지 않음을 밝힌다.

II. 연구대상의 민족지적 배경: 무지개교회의 일상적 풍경

1. 무지개교회의 조직구조와 교인 구성

무지개교회에는 교회와 성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예배공동체들과 달리 교인 등록부 혹은 교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처럼 교회 소속을 구분해주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비공개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SNS 그룹이 있긴 하지만 그곳에 가입하는 것이 곧 교회 활동 멤버로 '소속됨'을 말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총 270여명의 회원 중 가입은 되어있지만 실제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연대 차원에서 친구를 맺은 해외 교회 계정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교회에 잠시 방문했거나 활동을 했다가 지금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거나 해외로 이주하여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교회를 이끄는 목사는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맡고 대외협력활동에서도 대표성을 갖는다. 하지만 새로운 결정사항이나 변동이 있을 때 이는 항상교인들과 공유되며 교회 차원에서의 행사 기획과 준비 역시 온라인 SNS 그룹 페이지와주일예배 후 광고 시간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목사 외에 장로나 권사혹은 집사 같은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다만 교인 중에서 선출된 4~5명으로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이 운영위원회는 무지개교회에 비교적 활발히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출하여 구성되며 각 임원마다 임기가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기존 임원이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하지못할 경우 그 빈 자리를 채울 사람을 새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원 교체가 이루어진다. 운영위원회의 주된 역할로는 목사가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을 함께결정하는 것과 교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실제로작동되는 방식이 아주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이강하다.

그 외에 교회 내에 존재하는 소그룹으로는 성가대와 여성그룹이 있다. 성가대는 일부 교인들의 요청과 제안으로 생긴 단위로, 성가대원들의 사정에 따라 간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성가대원의 구성 역시 그때그때 달라져서 때로는 8명이 때로는 2명이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때로는 반주 녹음(MR; Music Recording)파일에 맞추어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보통 '성가대'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을만한 웅장함을 선사한 적은 거의 없었으나 이들의 노래가 얼마나 '완벽'한지는 교인들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퍼포먼스의 완성도에 상관 없이 사람들은 성가대원들의 노래를 흐뭇하게 듣고 박수를 치곤 했다. 교회에 여성 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한 당시 목사의 제안으로 2013년 8월에 만들어진 여성그룹은 교회에 여성을 더 끌어오고 교회 내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모임은 교회에 오래 출석해온 미국인 레즈비언 교인 Heather가 담당하여 함께 볼링을 치러 가거나 소풍을 가는 등 주로 친목 중심으로 활동했다.

교회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이미 언급되었듯이 구성원 중 성소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인터넷에서 성소수자에게 열린 태도를 보이는 교회를 찾아보다가 무지개교회를 알게 되어 스스로 찾아온 경우가 많았고, 또는 이미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오게 된 경우도 많았다. 때로는 연인이나 스마트폰의 데이팅(datin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서 무지개교회로의 초대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 외에는 잡지 같은 지면 매체에 실린 교회 관련 기사나 인터뷰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연구자가 2014년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9명 중 3명(약 10%)이 시스젠더 ¹⁹ 이성애자였다. 14명(48%)이 시스젠더 게이, 5명(17%)이 시스젠더 레즈비언, 2명(7%)이 시스젠더 여성 양성애/범성애자 ²⁰ , 1명(3%)이 MTF 여성 양성애/범성애자, 2명(7%)이 MTF 여성 이성애자, 2명(7%)이 젠더퀴어이면서 양성애/범성애자라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설명했다. 교회가 세워진 후 초기에는 남성동성애자가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내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수적 불균형이 완화되었다. 2월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16명(55%)이 남성²¹, 11명(38%)이 여성²², 2명(7%)이 젠더퀴어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설명했다. 연령대는 2~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10대(전체 교인의 5% 남짓)와 4~50대(전체 교인의

¹⁹ 시스젠더(cisgender)란 출생 시 받은 성별과 자신의 성별(젠더) 인식 및 경험이 일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라틴어 접두사 중 '~을 넘어서'의 의미를 가진 'trans-'의 반대 뜻을 가진 'cis-'를 젠더(gender) 앞에 붙여 만들어졌다.

²⁰ 범성애자(pansexual)란 상대의 성별에 상관없이 끌림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²¹ 모두 시스젠더 남성이었다.

²² 이들 중 일부는 MTF 트랜스젠더로 전체 응답자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5~10%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2월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교인 중 10대가 1명(3%), 20대가 20명(69%), 30대가 7명(24%), 50대가 1명(3%) 정도 되었다.

국적별 구성의 경우 초기에 거의 전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로 출발했던 것과 달리 한국인 교인 수가 점점 늘어서 연구자가 본조사를 마무리하던 시점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거의 50:50이거나 오히려 한국인이 더 많이 출석한 날도 많았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집단과 한국인 집단 사이에는 문화와 언어차이 외에 평균적인 학력과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외국인 집단의 경우거의 대부분이 현재 한국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나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학력이 학사 이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편이며, 소득수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한국인 집단은 직업 및 학력 배경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비율이 약 38%로 외국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학생이 아닌 한국인 교인들 역시 외국인 교인들에 비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이 교회공동체의 또 다른 특이점 중 하나는 모든 구성원이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조직 차원에서 무지개교회는 분명히 기독교 교회이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한다. 하지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회로서의 원칙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 대해 존중하고 하나님(신)에게로 다가가는 다양한 경로를 인정하려는 목회 철학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교인 중 다수가 기독교인이며 또 이들 중 다수는 개신교 배경을 갖고 있지만 구성원 중 어림잡아 10% 안팎은 비기독교인이었다. 여기에는 스스로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고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하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다. 참고로 2월 설문조사의 응답자 29명 중 1명이 불교. 2명이 무교였고 나머지는 모두 기독교였다. 물론 기존의 일반 교회에서도 출석하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여긴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 스스로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성원이 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무지개교회에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공동체 내에서 밝히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비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짧게는 1회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이 교회에 출석하며 성원으로서 참여해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2. 종교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양상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주일예배는 엄숙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지하 스튜디오 공간은 원래 어느 합창단의 연습실인데, 매주 주일 이른 오후 시간에만 소정의 대관료를 내고 무지개교회가 빌려 쓰고 있었다. 예배 공간이 있는 건물의 쪽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약 40개의 의자가 양편에 나누어서 5줄 정도로 정렬되어 있는 회중석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편 오른쪽에 놓인 바에는 선물포장상자로 쓰일만한 지름 25cm, 높이 20cm 정도의 둥근 줄무늬 지함이 헌금함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상자를 가져온 교인은 완벽히 무지개색은 아니지만 나름 알록달록한 줄무늬라서 무지개를 연상시키지 않느냐며 웃었다. 그 옆에는 음료수와 종이컵, 전기주전자와 인스턴트커피 및 티백, 교회 안내 팜플렛과 교회 활동 안내지, 에이즈예방단체에서 배포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물티슈와 콘돔²³, 볼펜 등이 놓여있다. 회중석 좌측에는 화장대로 쓰일 수 있을만한 거울과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 위에는 보통 교인들이 자유롭게 빌려갈 수 있는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한국어 책도 소수 있으나 대부분은 영어로 된 책으로 성소수자와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 주를 이루었다. 전면에는 강대상이라고 할 만한 구조물은 없으며 예배 인도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종이를 둘 수 있는 악보대, 피아노, 스크린이 있다. 예배 진행에서 기도문과 성경구절, 찬양 동영상 등은 모두 스크린을 통해 회중에게 전달된다.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이 스크린에는 영어로 "Welcome to Rainbow Church: A church living the radically inclusive love of Jesus Christ(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으로 포용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무지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예배는 원래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통 11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지개교회 예배의 형식성이

²³ 매우 성적인 성격이 다분한 물품이 교회 카운터에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매주 예배 초반에 Paul 목사가 예배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며 화장실 위치나 음료수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 등 교회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할 때, "그리고 물티슈와 콘돔도 뒤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날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놀람이 섞인 웃음을 보이곤 했다. 이는 '교회'라는 종교적 공간과 (성행위 시 필요한 물건으로서의) '콘돔과 물티슈'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에서 성적 농담이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있다니!" 하며 놀라워하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는 것과 일 백상통한다.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예배 진행은 보통 목사가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이를 두 언어에 모두 능통한 한국인 교인이 순차통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세부적인 진행 순서나 방식은 다소 유동적이나 기본적으로는 '목사의 인사 → 예배로의부름 → 찬양 → 성경 읽기 → 기도 → 평화인사 나누기 → 찬양 → 설교 → 소그룹토론 → 전체토론 → 교회 식구들을 위한 기도 → 축도 → 광고(교회 소식 공지)'의 순서로예배가 진행된다. 예배 시작 전까지 교인들은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임 목사가주의를 환기시키며 예배 시작을 알리면 앞을 바라본다. 기도문과 찬양을 비롯하여 예배진행에 쓰일 텍스트를 결정하고 그를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드는 것은 모두 그날의예배 인도자(대부분의 경우 목사)가 담당한다.

스크린에 '예배로의 부름'에 해당하는 기도문이 뜨면 예배 인도자가 본문을 읽고 반복되는 부분을 회중이 화답하는 방식으로 교독한다. 이 기도문에는 대체로 '예배로의부름'을 교독한 후 스크린에 그날 부를 찬양 동영상이 뜨면 자연스레 다음 순서인 찬양으로 넘어간다. 이때 예배 인도자는 옆쪽으로 더욱 비켜서서 회중의 시야에서 더욱 가장자리로 움직이게 되며, 대부분의 회중은 좌석에 그대로 앉은 채로 노래를 부른다.부르는 찬양의 종류는 전통적인 성가에서 CCM ²⁴까지 다양하며, 때로는 기독교적인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지만 그날 설교 내용과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대중가요를부르기도 한다. ²⁵ 찬양 시간에 불러지는 찬양의 80%는 영어로 된 곡이며, 사람들은스크린에 나온 가사를 보며 따라 부른다. 한국어로 된 찬송가나 CCM을 부를 때 한글을아는 외국인 성원들은 따라 부르는 편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냥 스크린을 바라보며노래를 듣는다. 밝고 힘찬 분위기의 곡을 부를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거나 몸을들썩이기도 하며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을 느꼈을 때는 손을 위로 들거나 눈을 감은 채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처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나 하는 게아니기에, 이러한 몸짓들은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며 교회 문화에 의해 강요되는 일은없다.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낀 채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 이러한

²⁴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로 현대 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하면서 기독교적 내용을 담아낸 음악을 의미한다.

²⁵ 일례로, 2014년 4월 6일 주일예배에서 Paul 목사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기상 16장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세우는 방식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이 날 설교 전에는 찬송가 대신 미국 출신 가수 Pink의 "Raise your glass" 뮤직비디오를 보며 따라 불렀다.

행동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첫 번째 찬양이 끝나고 나면 구약성경에서 한 부분, 신약성경에서 한 부분씩을 뽑아서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소리 내 읽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고, 당일 아침에 목사(예배 인도자)가 눈에 띄는 교인들에게 오늘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지 부탁해서 정해지거나 아예 예배 도중에 즉석에서 지원자를 받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혹은 예배 인도자 자신이 읽기도 한다. 보통 스크린에는 성경 본문이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나오고, 외국인 교인 혹은 목사 자신이 영어로 해당 본문을 읽은 뒤 한국인 교인이 같은 내용을 한국어 성경으로 읽는다. 성경읽기가 모두 끝나면 일부 한국인 교인들은 즉흥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한국 개신교회의 관습적 실천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배연주 2013: 47, 51-52). 성경읽기 이후 기도 순서²⁶에서는 많은 개신교 예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대표기도' 방식이 채택된다. 보통 해당 기도문을 쓴 예배 인도자가 스크린을 보고 기도문을 읽으면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형식상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²⁷을 함께 읽는다. 그 외에 아예 짧은 전체 기도(congregational prayer)를 회중이 다 함께 읽는 방식이 때때로 쓰이기도 한다. 기도가 끝난 후 인도자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May the peace -of God- be with you)."라고 말하면 회중은 "당신과도 함께하시기를 빕니다(And also with you)"라고 말한다. 이후 예배 인도자가 "우리 함께 평화를 나눕시다(Let us share the peace)."라고 말하는 것을 신호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포옹하며 "Peace be with you"라고 인사를 나눈다. 가끔 일부 한국인 교인들이 "평안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영어 문구가 많이 사용된다. 많은 무지개교회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체온을 느끼며 서로를 안아주는 느낌이 좋다며 이 시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약 2~3분 간의 평화인사 나누기가 지나면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두 번째 찬양을 부르고, 찬양이 끝나면 예배 인도자가 앞으로 나와 설교를 한다. 주로 담당 목사가 설교를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여성교인이 설교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통역자가 이를 영어로 순차통역하는 방안이 시도된 시기도 약 두세 달 정도 있었다. 목사는 '무대' 중앙에 서기보다는 대체로 약간 옆쪽에 서는 걸

²⁶ 때로 이 기도는 구약 읽기 순서와 신약 읽기 순서 사이에 위치하기도 한다.

²⁷ 이 부분은 대표기도자가 읽는 부분과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선호했고 다른 한 켠에는 통역을 맡은 한국인 교인이 서서 설교자의 말을 순차 통역했다. 설교는 통역을 포함하여 약 3~40분간 진행되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소위 율법주의 28 신학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참여에 대한 강조, 그리고 하나님을 퀴어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험과 직결되는 사례도 매우 자주 등장하여 회중 중 다수가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성적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특징은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문 등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세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29 같이 특별한 날을 맞아 특별 예배를 드릴 때는 더더욱 예배 전반의 주제가 성소수자 인권에 집중된다. 설교 도중에도 설교자는 대체로 엄숙하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언어적 및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물론 설교의 내용 측면에서는 단순하기보다는 철학적인 성찰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연관 지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종교적인 가르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설교 중에도 퀴어 코드를 포함한 농담이 교환되거나 솔직한 느낌을 날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교자가 때때로 비속어를 씀으로써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예배 과정에서 종교적 엄숙함의 정도는 낮아진다. 일례로, 2014년 5월 1일 주일예배 중 Paul 목사의 설교를 한국어로 통역하고 있던 교인이 해당 내용을 들으니 주디 갈랜드(Judy Galland)의 노래 "Over the Rainbow"가 생각난다며 웃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회중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는 "I'm gay! Come on!"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웃으며 환호하고 박수까지 쳤다. 30 스스로가 게이인 Paul 목사 역시 교회에서 퀴어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이었다.

무지개교회의 주일예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교인들이 설교 후에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따로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교 직후 교인들은 5~10명 사이의 규모로 둥글게 소그룹을 이루어 그날 설교 내용과 관련하여

²⁸ 기독교 신학에서 '율법주의'는 성경에 나와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규율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율법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관점을 지칭하는 용어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²⁹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은 매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기념일로,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에 의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가 있다.

³⁰ 참고로 주디 갈랜드는 잘 알려진 게이 아이콘 중 한 사람이다(김도훈 2011: 22-23).

설교자가 제시한 토론 질문을 중심으로 10~1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대부분의 경우한국어 사용자 그룹과 영어 사용자 그룹이 따로 모이게 되는데 각 그룹에서 토론을이끄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연스레 등장하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냥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기도 한다. 영어사용자 그룹에 비해 한국어 사용자 그룹에서는 발언 지분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일부 주요발화자가 더 많이 말하고 일부 구성원은비교적 침묵을 지키는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났다. 한국인 통역자는 한국어 그룹에 껴서주로 사회자 역할을 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전체토론 시간에는 각 소그룹 대표가 자신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발표했으며, 이 내용은 역시 통역자에 의해 순차통역되었다.

한편 소그룹 토론 시간과 전체토론 시간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교인들이 설교 내용, 즉 목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이다. 무지개교회 교인들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반교회와 무지개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점으로 꼽는다. 소그룹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거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곤했는데, 이는 교인들이 토론을 하는 동안 목사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목사는 이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독교 내 신앙 실천 중 가장 정형화된 의례에 속하는 '예배'에 토론이 포함됨으로써 무지개교회 성원들은 더욱 더 적극적인 행위성을 가진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는다.

전체 토론이 끝나면 이제 슬슬 예배를 마무리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교회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난 일주일동안 담당자에게 교인들이 메시지 등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자신의 기도제목을전달하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하여 한글과 영어로 번역한 다음 예배 슬라이드에 포함시킨다음, 이 시간에 회중들과 함께 한꺼번에 나눈 다음 이에 대해 다 같이 2~3분간침묵으로 혹은 조용히 소리 내 기도하는 것이다. 미리 접수된 각 기도 제목은 담당자가한 번은 영어로, 한 번은 한국어로 읽는 방식으로 공유되었다. 내용 측면에서는 자신이나주변 가족 및 친구가 기쁜 일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기도제목이등장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독교인,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기도가 필요합니다"나 "요즘 날씨가 좋아졌는데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와 같은일반적인 기도가 등장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교회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기도가 올라가기도 했고 여기에는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도 요청자의 요구에 따라 이 기도를 누가 요청했는지가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기도제목이 익명 처리된 채 공유되었다. 이러한 중보기도제목 정리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자유롭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중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자발적으로 소리 내 말하는 방식도 가끔 시도되었다. 이때는 각자의 기도가 통역되지 않고 원 기도자의 말만 발화되고 지나갔다.

이렇게 긴 예배를 마무리하는 종교적 표지는 축도(benediction)이다. 축도문 역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스크린에 표시되었는데, 예배 인도자가 축도문을 혼자 읽은 뒤 회중은 마지막에 '아멘'만 함께 붙일 때도 있고 인도자와 회중이 교독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모든 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는 경우도 있었다. 축도를 마지막으로 '종교적' 색채를 띤 요소가 모두 끝나고 교회 활동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하는 광고 시간이 이어진다.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이는 주로 담당 목사와 통역자이나 때때로 각 사안을 담당하는 교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홍보하기도 한다. 전달 내용은 임원 선출이나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합동생일축하, 성경공부, 성가대 모임, 여성그룹 모임, 교회 식구들끼리 함께 하는 비정기적인 친목활동 등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지며,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대외 연대활동에 대한 홍보도 종종 등장한다.

주일예배 외에 또 다른 종교적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 낮에 열렸던 성경공부모임이다. 작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의 사람이 주일예배가 열리는 합창단연습실이나 근처 카페에 모여 두 시간 정도 모임을 했다. 참여자들이 모두 모이면 그 중한 명의 대표기도로 성경공부 시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각 세 절이나 다섯 절씩돌아가면서 한국어나 영어 중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언어로 성경을 읽었다. 연구자가참여관찰을 실시한 기간에는 신약성경 중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매주 한 장씩 차례로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목사가 참여자들에게 다음주에 공부할 성경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질문을 미리 제시하고 그 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공부해온 바를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때로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신학적으로생각이 달라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각자의 생각을 더하며살을 붙여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사가 토론을 이끌고 전문적인 신학 지식과자신의 신앙 경험을 토대로 일종의 강사 역할을 했으며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권위자의위치를 인정받기는 했지만, 개별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목사 개인의 의견에 의해가려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참여자들의 성경 구절 해석이 서로 상충되기보다는 보완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성경공부는 학구열이 느껴지나 엄숙하거나 엄격하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편이었고,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유희적인 태도와 진지한 태도가 번갈아 나타났다. 예컨대 성경을 읽는 시간에 실수를 하거나 농담을 던지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지만 내용에 대한 토론은 기본적으로 매우 진지한 고민들로 채워졌다. 한편 이 모임의 참여자들 대다수가 평일 낮에 근무를 해도 되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한국인이 월등히 더 많았다. 그러나 목사를 비롯하여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수 있었기에 이들은 영어로 말을 하고 이들과 한국어 사용자들 사이에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참여자의 통역이 개입되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인 참여자들이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려 시도해야 했다.

3. 친교활동에서 나타나는 양상

무지개교회 공동체의 일상에서는 예배나 성경공부와 달리 종교적인 색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시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예배가 끝난 후의 친교시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헤어지지 않고 교회 근처식당에서 공동으로 점심식사를 한다. 이 식사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날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나 다른 성소수자 커뮤니티 관련 행사가 같은 시간에 있는지 등의 변수에 따라 유동적인데 적을 때는 15명에서 많을 때는 30 여명에 이른다. 사람이너무 많을 때는 한 식당에 자리를 다 잡을 수가 없어 두세 군데로 나뉘어 점심식사를하기도 한다. 점심식사 후에는 이들의 50% 이상이 근처 카페로 다시 자리를 옮겨친교를 계속한다. 친교시간에 교인들은 자연스레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가까이 앉는 모습을 보인다. 일부 교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이 문제가 교인들이 모두 모인 공론장에서 거론되는 일은 많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있을때 '아쉬운 점' 정도로 언급되곤 한다.

친교를 나누는 상황에서 이들은 식당에서든 카페에서든 눈에 띄는 편이다. 많은 수의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섞여있으며, '눈에 띄게' 퀴어적인 외모 및 행동거지를 보이거나 그런 주제의 대화를 거리낌 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만약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다면 그렇게 거리낌 없이 퀴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퀴어적 성향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 사람들과 함께할 때 사람들은 아웃팅³¹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II-1] 성경공부 이후 친교 참여관찰

성경공부가 끝난 후 참여자 중 5명(모두 동성애자 교인)과 함께 연구자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용히 있던 정시윤씨(20대,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가 언짢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정시윤: 방금 뭔가 불편한 얘기를 들은 거 같아.

사람들: 왜? 뭔데?

정시윤: 저 여자분(카페 직원)이 밖에 다정하게 지나가는 남자 두 명 보고 '어머 저 남자들 좀 봐요'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아저씨(카페 사장)가 '이 동네가 원래 좀 그렇잖아'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

그 자신이 게이인 시윤은 게이를 신기하다는 듯이 타자화시키면서 이야기한 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았다. 그러자 30대 레즈비언으로서 교회 내에 강한 이미지로 통하던 루이스가 즉각 대응을 개시했다. 그녀는 일부러 그 두 사람보고 더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루이스: 어우- 나는 진짜 이성애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예부터 전통에 남녀칠세부동석이랬는데, 어디 문란하게 남자랑 여자랑 사귈 수가 있어? 진짜… 여자들이 남자 사귀는 거 이해가 안돼. 그것들이 뭐가 좋다고? 예쁘기를 해, 냄새가 좋기를 해, 말이 통하기를 해.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엄연히 다른데,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뭣 하러 왜 이성끼리 연애하는 거야? 그냥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렇게 연애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연애인 거지. (풍자적인 말투로) 진짜 다른 건 다른 거라서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난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32

그 자리에 있던 앤디, 시윤, 진주는 모두 약간 민망하다는 듯하면서도 통쾌하다는 듯이

³¹ 아웃팅(outing)이란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을 의미한다.

³² 여기서 그녀는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곧잘 쓰이는 레토릭을 그 대로 패러디하고 있다.

큭큭 웃었다. 특히 루이스보다 열 살 이상 어린 20대 초반의 레즈비언인 한진주씨는 처음에는 민망하다는 듯이 웃다가 조금 지나서는 민망한 웃음을 띄고 있으면서도 나름 적극적으로 나서며 "나는 솔직히 이성애자 여자랑 게이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남자를 좋아하지?"라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친교시간 대화의 주제는 다양하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을 나누고, 최근에 본 영화나 TV 프로그램 혹은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커밍아웃을 포함하여 성소수자로서 사는 것과 관련된 주제 역시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 교인 중누군가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했다면 많은 교인들이 이에관심을 보이고 조언을 주거나 교환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성 정체성 범주에들어가는 사람과 연애를 포함한 인간관계나 섹슈얼리티, 정체성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다른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지개교회에서도 대화를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에 비해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교회와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던 일부 교인들은, 교인 규모가 더욱 작았던 과거에비해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내적 분화가 심화되어 '끼리끼리 노는'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주일예배가 있는 일요일이나 성경공부가 있는 날이 아닐 때에도 일부 교인들은 SNS 그룹이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다른 교인들과 삼삼오오 즉흥적으로 만나거나 미리약속을 하여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예배나 성경공부 모임 때문이 아닌데도비교적 많은 수의 교인이 한꺼번에 만나는 친교 상황에는 대표적으로 교인(들)이 공연을하는 파티나 개인적인 생일파티가 있다. 특히 이 파티의 주최자가 교회 공동체의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수록(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친구관계와 교회공동체 사이의 교집합이 커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이들에게 "교회 사람들"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자신 같이 성소수자인 사람을 가리킬 때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기 위해 자주 쓰는 말인 소위 "이쪽" 친구들과 별도의 그룹으로 취급되지 않는편이다.

III. 퀴어 기독교인 자기 내러티브의 형성

Sedgwick(1994)에 따르면 개인의 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생물학적 성, 자신이 받아들이는 자신의 성별, 여성적/남성적인 성격 및 외모상 특징, 원하는 파트너의 생물학적 성 및 젠더, 동성애자 혹은 이성애자로서의 자기인식, 선호하는 성적 실천(행위) 등 많은 것이 포함된다(Sedgwick 1994: 6-7). 모든 사람은 각자 성정체성 혹은 젠더 및 섹슈얼리티 상의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성소수자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자신의 성 정체성이 비규범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과 배타적 시선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이들은 자아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에 대해 더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환경에 처해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그런 고민의과정을 거쳐왔고 또 여전히 거치고 있었으며 이들의 내러티브에는 그들의 여정이 응축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무지개교회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관념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채택하고 어떤 내러티브를 형성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무지개교회에 오기 전 과거의 시간을 포함하여 이러한 지지공동체 밖의 환경과 생애사적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현재의 종교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흥미로웠던 지점 중 하나는 '말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연구참여 자들이 갖고 있던 적극적인 관심이었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요청하기 전부터 먼저 넌지시 다가와 "인터뷰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에요?" 하고 물으며 관심을 보이거나 "혹시인터뷰나 뭐 그런 거 필요한 거라면 말해. 기꺼이 도와줄 테니!"와 같은 말을 해주는 교인이 상당수 있었고, 인터뷰 신청 후 구체적인 시간을 정할 때 "지금 바로 해도 괜찮다"며 거침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관념을 정리하여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은 곧 그/녀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인식하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침묵 당하는 경험을 오랫동안일상으로 삼고 살아온 하위주체로서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신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는 단순히 연구자와의 인터뷰에 대해서만 유효한 명제가아니다. 예컨대 교인들이 무지개교회 예배의 '토론' 시간이 있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러티브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기대, 입장을 구성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자기내러티브는 기독교와 퀴어성을 대립적인 관계에 두는 지배서사에 도전한다. 그 동안 정

경(orthodox)의 역사에서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역사쓰기의 주체로서 '기독교'와 퀴어성에 대해 (현재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정경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이해를 제시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통합된, 다시 말해 덜 분열적인 자아로서의 자신을 설명할 말을 찾기 위해 공동체와 개인의 차원을 오가며 새로운 문법을 배우거나만들고 용례를 학습하면서 퀴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내러티브를 완성해갔다.

1. 갈등의 일상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그 동안 성소수자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나 주체성 형성에 대해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모순과 갈등은 중요한 테마로 등장한다. O'Brien(2004)은 그녀가 연구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자신이 연구했던 성소수자 기독교인 연구참여자들이 '모순을 살아내는(living the contradiction)'이라는 문구를 들으며 고개를 열렬히 끄덕였다고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구자의 경험은 그 반대에 가까웠다. 무지개교회 교인들은 성정체성 및 실천과 종교가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입장에 더 열렬히 긍정하는 반응을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성소수자이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겪는 갈등이 약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갈등과 긴장은 이들이 소수자적 성정체성과 종교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여정에서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십수 년에 달하는 시간동안 일상으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기독교계 주류 집단이 반성소수자적 입장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냉소와 환멸이 지속되는 한 갈등관계는 이들을 계속해서 둘러쌀 것이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의 자기 내러티브는 조화를 꿈꾸는 미래 및 현재와 갈등 중심의 과거 경험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있었다.

이들의 내러티브에서 성 정체성과 신앙 사이의 갈등이 주로 과거의 상태라면 현재나 미래는 그것과 대비되는 상태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거시적 담론 차원에서 존재하는 외적 갈등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해내고 극복 해내는 개인적 역량은 진보한 것으로 스스로의 초상을 그렸다. 성소수자 기독교인 중 대다수는 자신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 혼란을 느끼는 내적인 갈등과 교회조직 혹은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충돌이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반기독교 정서로 인한 외적인 갈등을 겪어보았다. 이러한 갈등에서 돌파구를 찾기 전까지 연구참여자들은 '양쪽에서 모두 소속감을느낄 수 없는' 일종의 이중고 속에서 살게 된다.

1) 퀴어함과 신앙 사이의 내적 갈등

"언제 처음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느꼈나요?"라거나 "언제 처음 자신이 의심의 여지 없이 여성/남성(태어났을 때 생물학적 분류에 의해 부여 받은 성별)이라고 확신했나요?"라는 질문이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이성애나 특정한 여성성 및 남성성이 무표적(unmarked) 범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통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것의 출현에 타인은 물론이고 성소수자 당사자도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것임을 알기에 쉽게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때 퀴어적인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자각하기 전 이미 기독교 신앙 생활을하고 있던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기존의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이성애 규범이나 성별이분법에 맞추어살지 않는 것이 '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낙인이 종교적인 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것이 '종교적 죄'의 꺼풀을 쓰면서 자신의 젠더 및 섹슈얼리티가 가진 비규범성은 존재론적인 것이 되어 더욱 무거워진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이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감을 발견할 시점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비교적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심한 내적 갈등을 경험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조목조목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적인게 섞이면서 더 힘들었다"며 과거를 회상하는 이들의 말에는 이들의 종교적 배경이 성정체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욱 높였음이 드러난다. 특히 근본주의적 복음주의³³ 경향이 강한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것을 내재화한 이들의 경우 천국/지옥 이분법을 중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사례 III-1] 전영우(20대 후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³³ 원래 복음주의(evangelism)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곤 했으나, 현재 영어권국가 기독교계와 그에 큰 영향을 받아 시작 및 발전한 한국교회에서 복음주의는 보다 협의로 정의되어 자유주의 신학에 반하는 전통적인 혹은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용례가 깔끔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한국에서 '복음주의'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개인의 회심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전영우: 어… 내가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어 막 진짜 지옥불의 뜨거움이 느껴졌던 때는… 아마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교회) 수련회 가서 느꼈던 거였어. […] 컨퍼런스 비슷한 그런 거였어. 근데 거기서 뭘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일본 쇼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어떤 변태적인 성향의 그런… 그니까 버젓이 가족 오락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 프로그램이) 좀 약간 성경을 폄하한 부분도 있었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late bloomer(늦게 깨달은 사람) 였을지도 몰라. 아, 내 성적경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지. 근데 막상 나의 삶과 접목시키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 같애. 그때 그 수련회 가서 하염 없이 참회기도를 드렸어. 내가 제일 늦게 일어났었던 것 같애. 너무 두려워서. 어. 잠자기 무서운 거야, 그냥. 이 순간, 내가 잠이 드는 순간 나의 영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의 유황불 가운데 타고 있을 까봐. 그것도 평생. […] 그때 수련회 이후로 되게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과거에는 그 기도를 목숨을 걸고 했던 거 같아. 어.

연구자: 정확히 기도제목, 내용이 뭐였어요?

전영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꿔달라고. 아니 처음에는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심지어 십일조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다 떼어서 드리고.

1차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과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배치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내적 갈등을 느낀 이들 중 일부는 종교적 가르침을 더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의 일환으로 위의 사례에서처럼 자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거나 금욕주의를 실천하려 노력했다.

[사례 III-2] 홍기광(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에요. '주님. 나 남자랑 자도 상관없어요?' 그거였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 막 그런… 되게 막 확신을 얻고 싶은 거야. 불 안불안하고. 왠지 막…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나는 그래도 게이지만 남자랑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순결성 막 그런 느낌으로 최후의 보루처럼 버티고 싶었는데. 네. 막 그래서 일부러 금욕주의를 실천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막.

"게이지만 남자랑 자지는 않았다"는 것이 구원여부와 관련하여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

었던 것은 보다 최근 들어 교황청을 비롯하여 기독교 내 일부에서 동성애 성향이 타고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꾼 것과 연관이 있다. 동성애 성향이 선 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면서 "동성애 성향은 존재할 수 있으나 동성애 행 위는 죄이며 그것을 억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학적 결론이 등장했다(USCCB 2006).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죄는 신과 인간을 가로막는 장벽 같은 존재이며, 죄 있는 인간(즉, 모든 인간)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신의 세계 즉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기존의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은 핵심적 위치에 있었고 종교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한편으로는 구원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결한" 삶이 구 원의 증거이자 필요조건처럼 간주되는 이중적 상황에서, 홍기광씨를 비롯한 일부 연구참 여자들은 성향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본질적인'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행위를 통제함 으로써 기독교적 세계에 남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러한 결심의 순간은 '서글픔'의 감정을 동반한다. 보수적인 종교적 배경에서 자란 이들은 죄를 멀리하고 구원을 받거나 "나 하 고 싶은 대로 살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선택지를 스스로는 떠올리지 못했다. 동성과 성적인 접촉을 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회개기도를 드리고 13년간 매일 밤 하나님께 자신을 이성애자로 바꿔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한 교인 의 사례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앞에 나온 전영우나 홍기광 같은 사례에 비해 개인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덜 독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과 교회에서 자란 이들의 경우에는 신이 자신을 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III-3] 베인(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일단 제가 중학교 이학년 때 좋아하던 애가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동성애가 죄냐고. 죄냐고 물어봤더니, 죄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아 이게 죄구나. 벌받고 싶진 않은데. 일부러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면은 나한테 관심을 덜 쏟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어요). 무서웠어요, 벌 받을 까봐.

위 사례에 나온 베인 같은 이들은 신앙을 더욱 멀리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 했지 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해소방식을 선택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종교적 믿음에 기반한 인식이었다.

물론 연구참여자 중에는 과거에도 신앙과 성 정체성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분법을 강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의 양립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했거나, 기독교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교리 상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네가 동성애를 하고도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렇게 내적 갈등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 외부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통제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실 자기 자신 안에서의 내적 갈등은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나 동료 기독교인이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것에 의해 촉발되거나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회에서의 부정은 이들이 통합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큰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기에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과거 교회 공동체에서 부정당한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은 이들이 실물적인 기독교인 사회 안에서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필수적이다.

2) 과거 교회 공동체에서의 부정

종교적 신앙은 '교리와 신성에 대한 내적 이해'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될 때 실재화된다. 기독교 신앙 실천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인 교회나 성당은 성소수자 기독교 인들이 종교에 대해 갖게 되는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이들이 기존의 교회 공동체에서 겪은 경험은 현재 그들의 종교적 인식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앞서 설명한 '구원'에서의 추방을 두려워했던 연구참여자들 역시, 실질적인 형태를 갖는 기독교인 공동체에서의 추방 혹은 그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관념적인 개념으로서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추방되는 것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속했던 신앙 공동체에서 성소수자는 '없는 존재'였다고 말한다. 이때 없는 존재로 취급 당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것이다. 담론장 자체에 등장하지 않고 자신이 공감할 수 없는 규범적 이성에 모델만이 장려될 때 사람들은 해당 교회에, 때때로는 더 나아가 기독교적 세계 자체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좌절감을 경험했다.

[사례 III-4] 한진주(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성이분법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아, 나는 여기 있으면 안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냥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나갔어요.

물리적인 장소 및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그 세계의 좋은 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남성성 및 여성성을 수행해야 했으며, 여기에는 "(잠재적 배우자로서의) 이성에 대한 건강한 관심"도 포함되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을 때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 속으로 겉도는 상태를 경험했다.

교회 내 성소수자를 '없는 존재'로 만든 또 다른 차원은 비이성애나 젠더 크로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롯한 부정적인 평가가 교회 내 공적인 장에서 선언되는 일이었다. 예배 중 설교나 기타 종교적 상황에서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보는 담론을 접하면서 이들은 스스로가 교회에서 거부당했다는 느낌과 죄책감, 좌절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소수자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다름'을 밝히는 순간 이 공동체에서 자신이 추방당할 것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하여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게 했다.

[사례 III-5] 데비(20대 후반, 한국인, MTF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인터뷰

근데 거기서는 완전 이제 거부를 당하니까, 부정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지, 성소수자로서. […] (교회에서) '사회적인 부조리' 얘기하면서 꼭 동성애 끼고. […] 집회(예배) 때가면 다 죄라고 하니까. 그쪽엔 아예 관심도 못 뒀지.

목사를 비롯한 교회 내 권위가 퀴어적인 젠더나 섹슈얼리티를 명백히 부정하는 것을 들을 때 '자신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들의 확신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들이 느꼈던 추방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성소수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만으로 촉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교회 내에 '조건에 맞지 않는' 이들은 온당한 천국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에 맞게 개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담론 전반이 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불안감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가 동성애자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부러 '난 그래도 죄인 건 죄라고 생각해'라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연행했던 사례도 있었다. 한편 조금 더 용감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일부 성원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그러나 이들도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소위 "동성애자 회복 운동"이 1970년대 시작되어 담론과 실천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더욱 가시적으로 행해졌던 미국 출신의교인들 중에는 '전환치료(ex-gay therapy)'를 경험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이성애자가 되기 위한 상담 등에 참여했고, 일부는 부모나 목사에 의해 강제로

참여했다.

[사례 III-6] Heather(30대 중반, 미국인, 레즈비언) 인터뷰

그냥 앉아서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고, 그들은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게 하려 했어. 내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거 있잖아. 상담 내내 다 그런 내용이었어. '여자애답게 꾸미고 다녀라', '여자애답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거 말이야. 다 같은 얘기였어. 기본적으로 그들은 내가 어딘가 손상되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라고 설득하려 했어. 그리고… 나를 제단에 데리고 올라간 적도 있어. 오순절교회에 다녔었거든. […] 나를 제단으로 끌고 가서 내 몸에 손을 올리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어. 이모든 것들이… 내 정체성에 대해 더 확신을 줬어. 그 상담 중에 그들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입하려 했는데, 그때 머리 속으로 '의류회사들이 그런 옷을 더 편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게 입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듣고 있는 것들이 뭔가잘못되어있다는 게 오히려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왔어. 그래도 분명히 나한테 타격이 있었지. 여전히 후폭풍이 있었어.

이러한 "전환치료요법"에서 이들이 주로 경험했던 것은 당시 자신의 현재와 과거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었다. 기존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born again), 새로운 주체를 탄생시키려는 작업에서 '과거의 어딘가 잘못 되었던' 부분은 잘려나가 비체 (abject)가 되어야 했다(Butler 1990). 새로운 주체가 되려는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교회는 물론이고 연구 참여자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것이다. 동성에게 끌리는 마음은 여자답지 못해서, 혹은 남자답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로 취급되었는데, 변태(transformation)를 시도하는 과정에 자기 외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었던 Heather의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성애자로 바꿔달라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했던 전영우, 홍기광 같은 한국인 남성 동성애자 교인들의 내러티브에서도 "진짜 남자로 만들어달라"는 식의 기도가 등장했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 혼란을 느끼는 내적인 갈등과 교회 조직 및 다른 기독교인들과 부딪치거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반기독교 정서로 인한 외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연구참여자가 과거에 종교적 신앙과 퀴어적 성정체성을 양자택일의 관계로 보고 둘 중 후자를 버리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13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비규범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바꾸거나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주변에서 성소수자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기독교인 지지자를 만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들은 퀴어로서 기독교적 세계에 자신을 안전하게 위치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가 생각하는 천국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가족이나 교회가 생각하는 천국시민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유지하고 표현하며 사는 삶을 포기하고 자 했던 것이다.

다양한 방식 중 가장 소극적인 형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아니라면, 그렇게 살지 뭐'와 같은 체념이었다. 그리고 '나를 이성애자로 바꿔달라'는 기도는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히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은 이들이 오랫동안 의존했던 방식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포함하여 구조화된 '전환치료(ex-gay therapy)'를 체험한 이들은 이러한 "전환(conversion)" 시도가 보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신의 퀴어성에 대한 부정을 보다 극적으로 경험했다. 이 외에 동성애자 교인의 경우, 스스로의 혼란을 줄여보기 위해일부러 이성과 연애를 시도해본 사례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동성애자의 경우 자신이 정말 동성애자인지 알기 위해서 혹은 이성애자가 되기 위해서 시도했던 이성과의 연애는 우정 외의 성적, 연애적 감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신앙적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와중에도 욕구는 느껴졌고, 자신이 동성에게 끌리지 않게 해달라고 신에게 청했던 기도에 대해 자신이 구하던 응답은 오지 않았다.

[사례 III-7] Jay(30대 후반, A국 출신,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Jay: 그 길에서 난 내 섹슈얼리티가 바뀌기를 여러 번 기도했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뀌어야 했어. 그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지. '그래 난 지옥에 갈 거고 이건 그냥 내 일부일 뿐이야. 이건(동성애는) 날 나쁜 사람이게 만드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후에 나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졌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야.

연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Jay의 기도에 응답해주셨나요?

Jay: (한숨) 그로부터 두 달 정도 후에 나는 하나님과 걷는 길에서 "실족"했어. (동성과 의) 성적 경험을 또 하게 됐거든.

"실족"한 이후에도 Jay는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밤 자신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가 이성애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

지 않았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을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들 중일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성애자 혹은 "진짜 남자"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기도 했다. 보수적 복음주의적신앙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아직 온당한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반증처럼 받아들였다.

이런 갈등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일부는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젠더적 특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종교를 아예 떠나거나 아니면 종교와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연구자가 만난 교인들 중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자 신이 출석하던 교회나 혹은 다른 기독교인에 의해 혐오와 차별의 시선과 언사를 경험한 후 자신의 종교, 특히 교회라는 조직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혐오하는 것에 대해 상처 를 받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중단했다고 고백하는 이가 많았다.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이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동안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해당 교회에서 아예 빠져 나와 본격적인 '퀴어 라이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고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나 새로운 광의의 커뮤 니티에 소속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교회를 포기하고 퀴어 커뮤니티로 준거집단을 완전히 옮긴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교체가 깔끔하게 일어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종교가 이 들이 완전히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Wilcox(2006) 가 말했듯이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조직화된 종교(기관)를 떠나 개인주의적 신앙을 갖 게 된 것이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 자체를 떠 나려고 했거나 더 나아가 반기독교적 정서를 발달시켰던 이들의 경우에도 '기독교적 세 계'에 대한 물음과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힘들었다.

[사례 III-8] Lance(20대 후반, 미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려고도 해봤어. 왜냐하면… 난 되게 보수적인 배경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게이일 수는 없다고 들으면서 자랐어. 부모님은 나를 전환치료(ex-gay therapy)를 받아보라며 보냈는데, 그건 정말 끔찍했어. 그래서 난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그건 너무 큰, 내 일부분이었던 거야. 난 비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어.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위의 사례에 나온 Lance는 신앙을 떠나있는 동안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곤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등을 돌리려 해도 그의 마음속에서 신을 도려낼 수는 없었고 그는 결국 몇 년 후에 다시 신앙 탐색을 시작한다. 이렇게 과거에 가족이나 기독교인 친구를 포함한 광의의 교회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의 일상화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유형의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무형의 교회도 떠나게 했다.

3) 퀴어 커뮤니티 내 반기독교 정서

한편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한 후 새로운 준거집단이 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었다. 종교적인 주제 자체가 민감할 수 있어 대화 중에 꺼낼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경우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특히, 보수적인 교리를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격적인 '퀴어 라이프'로 거의 "전환"에 가까운 변화를 감행한 이들일수록 처음에는 (광의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완전히 속(俗)의 세계로 인식했던 경향이 있었다. 이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의 참여는 과거 자신이 속해있던 조직화된 종교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LGBT는 다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줄 알았다"는 데비책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들이 그 전까지 다른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으며 기존에 교육받은 보수적인 교리외에 갖고 있는 담론적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종교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이나 불신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사실 어느 정도 실제에 기반한다. 특히 조직화된 종교의 교리는 자유를 제제하는 규율처럼 인식되고, 그 규범적 이미지에들어맞는 사람만이 속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집단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 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경향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그 중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무지 개교회처럼 성소수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나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며 연대활동에 참

³⁴ MTF 트랜스젠더인 데비의 가족은 그녀가 고등학생이던 시기까지 세속적 문화나 원리를 부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교리를 가진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 시기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볼 엄두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난 뒤에야 처음으로 게이 모임에 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다가 1년 만에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하는 기독교 공동체 단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가시화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나 상상하는 범위도 좀더 다양해지고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역사적으로 기독교계가 성소수자에게 보여온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내에 반기독교 정서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58명의 86.8%가 개신교, 56.7%가 천주교를 LGBTI에게 비우호적인 영역으로 보았는데, 이는 불교에 대해 40.4%가 그렇게 응답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수치이다. 참고로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9%가 군대를 LGBTI에 비우호적인 영역으로 보았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자유로운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35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개신교를 군대만큼이나 성소수자들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대상으로보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기독교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체계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비규범적 섹슈얼리티와 젠더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기독교는 자신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로 인식되는 경향이강하다.

[사례 III-9] 에릭(20대 중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무교) 인터뷰

에릭: 지금도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지개교회에 간다고 하면은 싸잡아서 자기는 기독교 싫다 이런 사람들 있거든. […] 내 사귀는 애, 당장 만나는 애도, 자기는 교회가 싫대. 그러고서 왜 그렇게 만나서 모이느냐 라고 얘기를 듣는데. […] 일단 교회라는 게 이쪽에 대해서 그, 내가 교회에 대해서 글을 한 번 봤어. 교회 자체가이쪽을 반대한다는 거를 벌로 인식하고 있구나. 무지개교회는 잘 안 알려져 있잖아. 기독교 자체가 우리를 폄하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 같애.

연구자: 저쪽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에릭: 어. 저쪽이 우리의 존재를 '악하다', '찢어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믿는다 그러면 '너 미쳤냐고' (그러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다른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연애 상대를 만나는 데 있어 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정된 커뮤니티에서 가장 흔하게 연애가 시작되는 장이 인터넷 웹

-

³⁵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 6

사이트나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혹은 클럽이나 바(bar)인데 이런 장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례 III-10] 전영우(20대 후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전영우: 그냥 일반적인 웹사이트 가보면, 종교 때문에 "어우, 쟤는 종교 냄새가 나서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구자: 한국으로 치면 뭐 이반시티³⁶ 이런 데 가면?

전영우: 그렇지 그렇지. 그런 데 가면. 어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보면 맞아, 정말. 종교 칸에다가 종교를 얘기하면은 그냥 퇴물로 취급이 돼.'저, 뭐 저런,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이런.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파트너가 자신의 신앙 및 종교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갈등을 겪었다. 연인이나 성소수자 친구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는 태도를 접하는 것은 이들이 통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퀴어들의 반기독교 정서에 대해 무조건 반감을 느끼기보다는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그 반감이 어디서 오는지, 기독교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동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그들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잘 알기 때문이다. 사회적 폭력의 결과로 생긴 심리적 상처와 자괴감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이해를 위한노력이 자신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타인과 공유될 수 없을 때, 이들의 인정 투쟁은 지속되기 어려워진다.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기독교 교리 및 신앙생활 사이에 갈등이상존하는 상황에서 이 부조응성(incommensurability)은 대부분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여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출발점이다. 무지개교회에서 만난 연구참여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보수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퀴어적인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바꾸는 것도 모두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양자택일의 틀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45

³⁶ 이반시티(Ivancity)는 남성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로, 주제별 게시판, 카페, 채팅 서비스, 웹진, 온라인 매칭(데이팅) 시스템, 관련 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갈등의 극복을 위한 시도

종교에 대한 정경적(orthodox)인 해석과 여러 다양한 다른 해석 및 실천 사이의 관계 를 탐구하는 것은 인류학적인 종교 연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기독교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정경적인 해석이 퀴어성을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 독교"와 퀴어성은 서로 조응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관계로 이해된다. Boelstorff(2005)는 이슬람과 남성 동성애 사이의 '부조응'에 대해 언어학적 비유를 이용 하여 설명하는데, 이슬람 세계 내에서 남성 동성애의 존재는 "지구는 네모나다"와 같은 거짓 명제일 뿐만 아니라 "지구 행복 열둘"과 같은 비문으로 취급된다고 말한다 (Boelstorff 2005: 576). 성소수자 기독교인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기독교인이 성소수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은 옳지 않다'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의 문제이다. 성소수자 기독교인의 존재를 문법적으로 틀린 비문처럼 취급하는 주체는 종종 다른 성소수자들이기도 하다. 애인이나 다른 성소수자 친구가 교회에 나간다는 소 리를 들었을 때 "거길 왜 나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기 독교는 옳지 않은 종교이다'는 뜻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적인 상태가 아니고서 야 어떻게 우리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종교를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순수한 불가해와 신기함에서 나온다.

이와 같은 부조응과 모순이라는 현실에서 성소수자 기독교인으로 생존하고 있는, 혹은 '성소수자 지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무지개교회 교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두 축을 조 응하는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문법을 발명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성 정체성 및 실천과 종교 사이의 갈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는가?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1절에서 설명한 갈등과 부조응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문법을 발명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는지 탐구하면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신성의 분리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신성의 권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연구참여 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다니던 교회를 포함한 기존의 종교 기관을 신뢰하기보다는 신과 자신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기존의 종교기관으로부터 이들이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지지를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나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일반적인 차원에서나온 동성애혐오적/차별적 발언이나 자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해진 구체적인 거부로 인해 이들은 기독교적 세계로부터 자신을 어느 정도 분리하게 된다. 여기서 '기독교적 세계'는 서로 얽혀있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외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이자 공동체인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종교적 세계관, 즉 신의 세계이다. 각 차원에서 개인이 어떤 형태와 정도의 분리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생겨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에는 장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 가족을 비롯한 이차적 요소로 인해 교회에는 남아있지만 내적 신앙 차원에서는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물리적 장소로서의 교회에 아직 남아있고 내적 신앙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신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신뢰하지 않게 된 사람, 교회도 떠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도 떠나려 한 사람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했다.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이든 아니면 계속해서 개인적 신앙 자체는 유지해온 경우이든 간에, 퀴어적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독교적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주류 교회 조직이 아닌 다른 권위를 필요로 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신성을 분리하여, 교회 혹은 사람(기독교인)들이 신을 대표할 수 없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대신 이들의 내러티브에서는, '교회'로는 표현되지 않는 신성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통해신앙과 퀴어적 성정체성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사례 III-11] 한진주(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그 설교랑 찬양시간 사이에 있었던 그 거기에서 목사님이 교단에 올라와서 그런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런 정죄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때도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 설교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울었었고. […] 진짜 나는… '내가 나를 바꾸지 않는 이상 나를 안 받아주려나 보다'라는 생각이랑, 엄청, 엄청났었어요. […] 제가 그… 한… 2~3주 뒤 예배 때 되게 그런 되게 강한 또 그런 거를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를 너무나도 깊게 깨달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사람들은 사람들일 뿐이야'라는 생각. 내가 이곳에서 인정받지 않

더라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라는 그런 확신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교회와 그를 이끄는 인물은 기독교적 신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권해석자로 서의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한진주씨의 사례에서처럼, 사람들은 유권해석자의 내러 티브에 대항하는 전략으로서 교회 조직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권위의 주체로 하나님 자체를 내세우는 데 집중한다. 이때 신과 인간 사이의 대비가 강화되고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맺음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갈등을 겪고 있던 과거나 그 이전 상태와 달리 오히려 화자의 영적 소속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궁극적 권위주체로 간주되 는 신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인정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 서의 교회에서 받지 못한 인정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때때로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분리는 더 나아가 조직화된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도 이어지는데, 조직화된 종교는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심판적인 도그마를 실천하는 권력의 주체로 그려진다. 문제는 이 권력이 "부당한" 권력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조직으로서의 "종교"가 행사하는 부당한 권력과 신의 "진짜" 권위 사이의 대비적인 의미구조를 발달시킨다.

[사례 III-12] 주일예배 설교 후 소그룹 토론시간

이 날 토론은 각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를 유지하는 것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평소와 달리 소그룹이 언어별로 나뉘지 않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한 데 섞여서 구성되었는데 앤디(30대 초반, 한국인, 게이)가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밝혔다.

- **앤디:** 나는 교회를 좋아하지만, 꼭 종교적(religious)이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종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to worship God) 온다.
- 연구자: 매우 흥미로운 말인 것 같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종교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 앤디: 대부분의 교회는 종교의 이름으로 항상 규칙(rule)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나 다른 길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는 심판(judgment)을 하고 규율(rule)이 있다. 그런 심판 아래 있고 싶지 않다.

앤디가 말한 '심판'과 '규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는 과거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메시지를 접한 후 불편한 마음이 들어 교회에 그만 나가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종교적 개인주의는 1차적으로 보면 이들의 선택이지만 외부적 여건에 의해 조건지어진 성격도 강함을 알 수 있다. Wilcox(2002; 2006:77)가 미국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에 대해 내놓은 분석과 마찬가지로, 무지개교회 교인들의 종교적 개인주의 경향 역시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기존의 종교기관이나 그곳의 가르침에서 완전한 성원권을 획득하지 못했던 현실이 이들을 종교적 개인주의로 이끄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신성을 분리하면서 운신이 자유로워진 이들은 보다 유연하고 자유롭게 정경적 해석에 대항하는 해석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출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진공 상태에서 개인의 열망만을 토대로 나오지는 않는다. 기존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분리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성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만 의존할 경우 이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이 (광의의)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텍스트로서 권위를 가진 성경과 완전히 결별하여 새로운 신앙관을 정립하기는 쉽지않다. 연구참여자들은 과연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가 기독교 안에 설 자리가 전혀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학적 자원을 찾아 헤맸다.

2) 지적 탐구

신앙과 퀴어성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접근은 지식적 탐구이다. '신이 인간을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창조 교리를 기반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은 근대 이후 기독교 교리에서 '죄악'으로 취급되어왔으며, 아직까지는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다른 신학적 지향을 내세우는 움직임을 만나기 어렵다. 특히 20세기 초 미국의 근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복음주의 교단들의 선교를 통해 씨가 뿌려지고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통해 자리를 잡고 성장한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이 지배적이며, 신학적 쟁점에 있어 '다른' 입장을 보일 경우 쉽게 "이단"이라는 이름표가 붙을 위험도 있다. 성/속, 하나님/사탄, 정결함/더러움, 천국/지옥, 구원/타락 등 이항적 대비구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교회의 역사를 생각해봤을 때 주류 교회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비규범적 젠더 표현 및 섹슈얼리티를 죄악시하는 데 쓰인 1차

적 자원은 성경이었다. 그렇기에 자신의 신앙과 성 정체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자신의 자원으로 곧바로 쓸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소위 '공포의 구절(verses of terror)'로 불리는 특정 성경구절들³⁷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매우 커서, 적어도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만큼은 성경에 기댈 수 없다는 인식이 1차적으로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전통적 기독교 신앙과 교리 안에서 자라온 사람일수록 성경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보였다. 성경에 담긴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던 이들은 보통의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한다.

[사례 III-13] 장민영(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굉장히 불편했죠. 왜냐면 신앙적인 게 이게 섞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야 되지,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는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저는 막 원전들도 보고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이나 원전은 어떻게 이야기 하나. 그런 문화적인 맥락들도 공부를 해보고, 그 당시의 동성애가 어떤 동성애였는지도 문헌적인 조사도 해보고 그랬어요. 다른 신학자들 책도 읽어보고 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아, 성경에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노예제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그런 유치한 얘기 많이 한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만난 어떤 예수님의 본질에 맞춰서 그걸 살아가는 게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³⁷

³⁷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레위기 18장 22절("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과 20장 13절("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디모데전서 1장 9~11절("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등이 있다.

살아왔고. 다만 그 변화에 느렸을 뿐이지. 전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경책 외에 참고할 수 있는 지지적 자원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혼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소수자로서의 자긍심을 지지해주는 신학적 지식을 얻기 어려웠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앙생활 규범 안에서 성경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진 1차적 원전이라면 그것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기독교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주류 기독교계에서 심도 있게 성소수자에 대해 다룬 책은 2011년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2011)이 나오기 전까지 전무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 인권센터(KSCRC)가 성소수자 당사자나 지지자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획하여 출간한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2010)는 일반 기독교 서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외에 퀴어신학적 시각으로 기독교와 동성애를 다룬 외국어 서적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 간된 예로는 『예수가 사랑한 남자』(2011)와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2003)정도가 있으나, 이 역시 관련 정보를 다른 곳에서 접하지 않는 한 이 책들 을 일반적인 기독교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와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을 얻기는 어려웠다. 종교적 개인주의로 이동을 해도 현 상황에서 개 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이 부족했기에 신앙에 대한 개인적 접근만으로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반면 교계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의가 더 일찍 시작되었던 미국 출신의 교인들은 한국인 교인들에 비해 기독교서적이나 DVD를 통해 성소수자에 우호적이거나 성소수자 기독교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여러 갈래의 입장을 접할 수 있었다. 한국인 교인들 중에서도 영어 실력이 출중하거나 학문적 생산물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자본이 있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신앙과 퀴어적인 성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 나온 장민영씨의 경우 어린 시절 한국보다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외국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게이'라는 개념에대해 부정적인 함의 없이 배울 수 있었고, 영어에도 능통하여 외국 자료도 접할 수 있었다. 또 수도권에 살고 있어 동성애자 커뮤니티나 성소수자 기독교인 모임에도 직접 참여하기에 비교적 유리했다. 그와 달리 지방 출신의 교인들은 커뮤니티의 빈곤으로 인해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상대가 현저히 적었고 무지개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성소수자 기독교인 혹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기독교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한 명인 전영우씨(20대 후반, 게이)는 "아무리 성경책을 뒤져봐도 롤모델이 없

었"노라고 과거를 회상한다.

종교와 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은 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통로는 인터넷이었다. 그런데 일반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특히우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고 기독교에 대한 정보는 너무 방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와 '동성애'라는 두 키워드를 한꺼번에 조합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야 한다. 이 조건 하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인터넷 상의 자료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보다정확히 말하면 한국어 기반 웹과 영어 기반 웹)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후자에 비해전자는 정보의 양이 적은 편이다. 물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인터넷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매체였고 성소수자 기독교인 커뮤니티로의 연결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은 정제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사례 III-14] 한진주(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늘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교회와 그런, 하나님과 동성애자,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다 답이, 지식인 답변들도 너무 다 그런 얘기밖에 없고. 너무… 그니까 힘들었어요. 내가, 나는 분명히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데, 나는 진짜 여기에서 절대적인 사랑이란 걸 느꼈는데. 심지어 진짜 교회의 'ㄱ'도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가서 그렇게 갑자기 믿게 됐는데, 난 되게 기적적으로 믿은 사람인데도 왜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다 그러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 기하지? 약간 거기서 오는 혼란이 너무 컸었어요.

요컨대 성경, 서적, 영상 자료, 인터넷 등을 통해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나 기존 신앙 공동체에서 구할 수 없었던 종류의 신학적 지식을 스스로 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기독교적 세계 안에서 찾아보려고 애썼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고 스스로 혼란스러워 하는 시기를 거치며 혼자 조용히 고민해보거나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푸는 것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기인한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이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미 투쟁에 있어 대안적 신학 지식의 획득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예컨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신 (theo-)에 대해 말하는 것(-logy)은 곧 신학(theology)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지식적 탐구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대안적 신학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커뮤니티를 찾아서

기존의 교회나 기독교인 친구 및 가족으로부터 퀴어적 성정체성을 부정 당한 것에 낙심하고 해당 공동체나 기독교인 집단 전체로부터 자신을 내적인 신앙 측면에서 혹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분리한 이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무지개교회에서 만난 교인들의 내러티브는 기존 신앙공동체로부터의 분리 이후 개인적인 탐색의 시간으로만 종결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답을찾으려 했던 시기를 '외로운 시기'로 이름 붙이며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한다.종교적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들이 종교적 커뮤니티를 필요로 하게 한 요인 중 하나는 기독교적 신앙생활에 대한 관념이 대부분 교회 공간에 가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이 "그렇게 신실하지는 못하다"고 말할 때 그 근거로 든 대표적인 이유는 "교회에 그렇게 자주 나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꼽히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넓은 의미의 예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배"라는 말은 집단이 모여서 일정한 형식(예전)에 맞추어 신에 대한 경배를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공동체는 신앙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두 번째로, 실제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직접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제외한 "일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성소수자를 정죄한다는 사실(에 기반한 인식)이 이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 주변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한 채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느꼈다. 교회라는 세팅에서 성소수자에 대한인정을 맞닥뜨렸을 때 이들은 개인적 탐구를 통해 "머리로는 알고 있던 것을 가슴으로더욱 강하게 느꼈다"고 고백한다.

[사례 III-15] 베인(20대 중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연구자: P교회³⁸ 처음 나갔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배인: (목소리가 커지며) 처음 나갔을 때, 정말, 울었어요. 그때 뭔가, 그때 딱 시기가, 그… (자살한) 청소년 성소수자를 추모하는 그런 기간이어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그…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 성공회 그 P교회 기도문 중에 뭐 '별난 이들을 위로하시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말 듣자마자 너무 막 눈물이 나고… 좀 되게 많이 위로 받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연구자: 뭐… 어떤 점을 가장 위로해준 것 같아요?

베인: 성소수자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죄가 아니다. […] 스읍.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었죠.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 그래도 뭐 머리 속으로는 '아 이게 죄가 아니구나'라는 건 있었는데, 정말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북받쳐 오르고 그런 경험은 교회에서 처음이었어요.

특히 이들은 퀴어이면서도 기독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소위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의 의미를 강조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은 성소수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일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퀴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꼽았다. 특히 무지개교회 같이 다수의 성소수자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공동체에 나가본 적이 없이 파편화된 상태로 신앙과성 정체성 사이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이들의 경우 롤 모델의 부재에 대한 갈증을 더욱심하게 느꼈다.

[사례 III-16] 전영우(20대 후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자살 시도 이후에도, '그럼 내 삶이 뭔데. 내 삶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계속 요구를 했어, 하나님한테. 좀 보여달라고. 뭔지를 보여달라고. 그니까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아니면 내 앞에 게이 크리스천 하나만 보여달라고. 내가 그 사람이

³⁸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 없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서울소재 교회로, 베인은 무지개교회에 오기 직전 P교회에서 주최한 특별 예배에 먼저 참석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두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도 성소수자 기독교인 모임이나 인권 운동 활동을 경험한 바 있으나, 신앙적으로 분명히 '다른'느낌을 받았던 것은 교회에 와서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랑, 그 사람이랑 똑같이 살겠다고.

실제적인 사례가 없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완전히 편안한 상태를 얻기는 어려운'이유는 앞선 절에서 설명한 여러 유형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는 인식을 어느 정도 확립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과거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비규범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변화시킨다거나 퀴어 커뮤니티 내 반기독교적 정서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 상황에서 실제적인 지지기반이 없을 때 이들은 '뭐 괜찮겠지'와 같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인적인 안정이나 결심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나 그와 얽힌 내적 갈등(의심)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무지개교회 같은 곳에서 실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의 퀴어 신학은 실재하는 유형의 무언가로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많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했을 때, 먼저 자신의 내적 신앙을 기존의 호모포비아적 교회공동체로부터 분리하고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적 탐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보려고 시도한 다음 다시 새로운 지향의 신앙공동체를 찾는 구조가 드러난다. 이때 이들이 찾는 신앙공동체는 '자신을 이끌어줄 카리스마적인 종교적 권위'이기보다는 '자신에게 확신을 줄 동료들의 집단'이었다.

3. 현재를 긍정할 수 있게 하는 신학

종교적 의미가 오롯이 주관적이고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성되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종교적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신앙 자체의 고정된 (것으로 가정되는) 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협상되는 과정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하홍규 2010). Asad(1983)는 일찍이 종교적 상징이나 문화 등의 개념을 사회적 실재와 분리되어 그 위를 떠도는 선험적인 의미의 총체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이 구성되는 담론적 과정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종교적 언어'는 실천 속에서 생명을 얻고 재/생산되며, 실천은 Rubin(1984)이 말한 성적 위계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권력관계의 배열 안에서 일어난다. 그렇기에 유표적 존재로서 외부 사회와 교회 내에서 차별을 받은 성소수자들에게 소수자적 성 정체성은 신앙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개인적인 탐구와 공동체에서의 지지를 통해 이들이 잠정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신앙관에는 기독교인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는 특수한 이해가 공존한다.

Asad(1983)가 종교에 대한 Geertz(1966)의 정의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말했던 대로 범문화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를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항목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의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 정의 중 하나는 바로 종교가 불가해한 것을 이해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설명(세계관)을 제공한다는 것(기어츠 1998[1966])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 '세계관'은 특히 인간이 가진 기대를 재현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단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내용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자신에게가해진 부정과 억압적 훈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사회적(종교적)인정, 즉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안적인 신학을 발명하고 발견하며 또 발굴하려고 했다. 자신을 이야기(내러티브)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코드 레퍼토리, 장르, 어휘, 문법을 끌어 쓴다(Ochs&Capps 1996:28). 본 연구에 참여한 무지개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기독교와 퀴어 커뮤니티 양쪽에서 몇몇 템플릿을 끌어오고 엮으면서 퀴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현재를 긍정할 수 있게 하는 신학을 만들어간다.

1) 행위성의 의탁

소수인종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외모적인 측면에서 곧바로 눈에 띔과 동시에 유표적 존재가 된다. 이와 달리 성소수자의 경우 자신이 퀴어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소수자로서 정체화하고 드러낼지의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다른 소수자들과 달리 '왜'에 대한 질문과 많이 맞닥뜨리는 편이다. 이들은 이성애중심주의와 이항적 성별에 대한 '자연' 중심의 수사학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회에서 "왜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 끌리는가?", "왜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로 살지 않고 굳이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가?", "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별이라고 말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부터도 받게 된다. 이때 이들은 위 질문에 어떤 답들을 제시하는가? 현재의 내러티브에는 화자의 기대가 반영되며 성소수자들이 표현해온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 '있는 그대로

의 자신을 인정받기'라는 점에서, 그들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곧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자 하며 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표적 존재들이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 받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는 "원래 이렇다(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무지개교회 교인들도 절대다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이 타고난 것이며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설명은 비단 기독교인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소수자들에게서 나타난다(Stein 2011). 이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구성주의적설명이 종종 호모포비아 담론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오용되어 '이성애나 전통적인 젠더 정체성으로 바뀔 수 있다(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본질주의의 전략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본질주의적 수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이 '타고난 것'의 행위주체로 신이라는 절대자가 등장하는 경향이다. 무지개교회의 공식적인 담론에서 자주 나오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나 "하나님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를 창조하셨다"와 같은 레토릭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중 상당수는여기에 더해, 기독교 특유의 원인론(etiology)적 접근을 보이며 신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자신들이 역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기반이 된다. 이 모든 수사적 전략은 기본적으로 '신이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계획해서 만드셨다'는 기독교적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다. 종교적인 믿음에행위성을 부여하는 여러 문법 중에서도 '계획'이라는 특정한 형태가 기독교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의 신성 인식이 의인관(anthropomorphism)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간화된 모습의 신이 발휘하는 행위성에는 대체로 의도성이 수반되는 것으로가정되며 이 의도성(즉,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신자들이 신의 행위성을 더욱 믿고 의존하게 해준다.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소수자적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퀴어인 이유를 신의 행위성(agency)으로 돌리는 것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안정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례 III-17] 홍기광(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처음에는 (제가 게이인 게) 되게 싫었어요. 막 그래서 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기도하면서 '왜 날 이렇게 지었어요. 주님, 차라리 제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좀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드는 생각이, 오히려 내가 G(게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뭐 '너를 게이로 지은 것도 주님이 계획을 하신 거다'그런 말을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가 장애를 가진 것도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야'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하아,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저를 괴롭힐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인정하니까 참 마음이 편한. 뭐누구 사귀어보는 경험도 하고. 하니까 참 좋네요. 차이긴 했지만. (그는 장난스런 표정을 지었다.)

사실 행위성의 의탁은 사실 기독교적 내러티브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한데, Keane(1997)에 따르면 행위성(agency)의 소재를 신이나 초월적 존재에 두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언어 전반에서 드러난다. 무지개교회 교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나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행위성의 의탁이라는 코드를 자신의 내러티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 독교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이 분명하고 기존 교회에서 배운 신학을 체화하고 있는 정도 가 강한 사람일수록 '행위성의 의탁' 코드를 더욱 자주 사용했으며 해당 내러티브 내에서 논리 정합성도 더 높았다. 이러한 '종교 엘리트'를 비롯한 많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LGBT로 태어난 것 외에도 자신의 퀴어성이나 종교적 여정과 관 련된 여러 내러티브 조각에서 행위성의 의탁이 특징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때 신의 행위 성은 과거 경험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자신의 현재나 미래를 긍정하는 혹은 여러 생애 사적 경험들 사이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설명으로 기능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믿음은 화자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 혹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한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신의 행위성은 고통의 경험이나 소수자로서 겪어야 했던 사회적 부조리, 충돌하는 규범들 사이에서 이들이 겪 은 내적 갈등을 자기 긍정의 내러티브 안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비교적 가장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갈등과 고난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커밍아웃을 비롯하여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기까지의 여정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해결되

었는지에 대한 내러티브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크게 보면 모두 신의 계획 하에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한국인 교인들을 중심으로 종종 드러났다.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이들의 내러티브는 대체로 '극복'으로 종결되고, 이때 내러티브 전체를 요약하는 말로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다"나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다"가 등장한다. 이런 말들은 화자로 하여금 과거에 자신이 상처받았던 경험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게(만들게)하며, 고통의 경험을 자신의 생애사에 포섭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험적 사례는 내러티브가 화자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경험 사이의 괴리와 불일치를 없애는 기능을 한다는 Ochs와 Capps(1996)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신의 행위성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도 하나의 내러티브 안에 포섭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이 다 쥐지 않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유를 얻는다.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자기 내러티브 중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화자가 신의 행위성에 의지하는 양상이 자주 드러난다. 때로 이들은 '기도'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자신이 의식적인 행위성을 버리고 신의 행위성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해달라고 기원한다.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교회 차원의 바람이나 성소수자 시민권 투쟁을 위한 사회운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정체화하는 교회 멤버 중에는 자신이 무지개교회에 오게 된 것을 신의 인도에 의해서였다고 보거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의미화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일부는 자신이 무지개교회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연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성을 낮추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의 소개가 아니라 스스로 무지개교회에 대해 알게 되어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거나, 그 전에는 동성애자에게 열려있는 교회를 인터넷에서 찾아도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떴다는(popped up) 식의 내러티브를 제시했다. 혹은 자신을 이 교회로 이끌어준 파트너와의 첫만남이 하마터면 성사되지 못하고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나칠 뻔한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여러 우연적 요소가 일치하면서 현재 자신이 무지개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례 III-18] 루이스(30대 중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신기한 거는, 지금 다시 찿으라 해도 못 찿겠어요.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하다가 우연

히 우연히 우연히 무지개교회 홈페이지를 본 거에요. 그래서, 근데 느낌에 분명히 내가 여기서 닫으면 다시 못 찾는단 생각 때문에 사진을 찍은 거에요. 전화번호랑.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주말에 문득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에요. X동네 어디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쯤 맞춰서 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덥석 온 거에요. 근데 다시 찿으라면 또 못 찿겠더라고요. 그니까 진짜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는 이 내러티브에서 신의 행위성이 작동한 1차적 대상은 루이스 본인으로 그려지지만, 한편으로는 무지개교회도 포함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님'은 루이스로 하여금 우연히 무지개교회 홈페이지를 보게 했지만 이 이야기를 뒤집어 표현하면 무지개교회가 루이스 눈 앞에서 나타나게끔 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신이 무지개교회를 알게 된 여정에서 우연성이나 불가지성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특징은 이들을 무지개교회로이끈 신의 행위성을 암시하며 무지개교회의 종교적 정당성을 강화해주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한편, 종교엘리트들과 달리 교회 내에서도 평소 신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밝히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및 신앙과 관련된 갈등을 겪더라도 그것을 섣불리 종교적으로, 다시 말해 신을 전적인 행위주체로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나 힘겨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에서 친교 시간 등을 통해 나눌 경우 함께 앉은 다른 교인들(특히 종교엘리트들)이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며 조언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이며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역시 이 조언자들의 관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무지개교회 초기 멤버 중 한 사람인 앤디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교회에 나온 후 처음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는 종교나 신앙에 대한 생각을 그리 많이하지 않는 편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겪은 바와 들은 바가 축적되면서 또 자신에 비해 최근에 무지개교회에 나오게 된 루이스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뭔가 알겠다'고 느꼈다고 한다. 실제로 루이스가 평신도로서 설교를 맡았던 예배일 이후부터 앤디는 교회에서 부쩍 종교적인 색채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시작했으며 교회 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신의 행위성을 강조하고신뢰하는 내용의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와 1:1로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성정체성 때문에 방황했던 것, 교회에 나오기 이전인 수년 전 "이반바(게이바)"에서 우연히 루이스를 만나서 알게 되었던 것, 첫 애인이 외국인이라 의사

소통을 위해 영어를 공부했던 것 등 다양한 경험을 모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지개교회에 나와 이 사람들과 만나고 신앙이 두터워질 수 있었다"는 대주제 하의 연속된 내러티브로 묶으려고 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의 내러티브가 아주 촘촘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그가 루이스 때문에 무지개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아니고 이전에게이바에서 루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최근에 그녀와 다시 교회에서 재회하고 또 그녀의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험을 모두 "이렇게다 무지개교회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주신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앤디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인터뷰에서 청자의 역할을 맡았던 연구자에게 자신이 현재 이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를 연결하고 원인론적 관계를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원인론적이고 신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문법의 상당부분은 평소 루이스가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닮아있었다.

2) 심판 및 정죄에 대한 경계와 성경에 대한 태도

신의 행위성을 강조할 때 인간에게 부여되는 행위성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인간의 행위성을 특히 잘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다름 아니라 '정죄' 혹은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먼저,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학적인 토론을 함에 있어 '죄'라는 개념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이는 역사적으로 '죄'라는 개념이 기독교 내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억압적으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4년 6월 서울 신촌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에 찾아온 반대시위자 기독교인이들고 있던 피켓에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끊어져야 할 죄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이들이 무지개교회에 오기 전까지 다니던 대부분의 교회나 그를 둘러싼 기독교적 세계는 이들을 (특별히 더 큰) '죄인'으로 호명했고 그럴 때 이들은 마음에 위화감과 상처를 담고 그곳을 떠나거나 아니면 죄인이 되지 않고자 자신의 젠더 및 섹슈얼리티 상의 성향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어느 쪽의 해결방안이든 이들에게 그 경험들은 일종의 자기 부정을 가져다 주었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들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무지개교회의 교인들에게서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죄'라고 절대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태도와 함께, 인간에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 두드러졌다. 그보다는 '죄'란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도 있으며 어떤 특정한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의 내러티브 안에서 '죄'와 대비되는 대응항은 '죄짓지 않음(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정결함이나 순결함)'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는 일반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율법'과 '은혜 '가 대조적 이항관계로 많이 재현되는 것과도 공명한다.

특정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죄'로 규정할 수 없다는 태도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다수의 교인이 비이성애 자체는 물론이고 1:1의 배타적인 연애관계가 아닌 방식의 관계나 원나잇스탠드 같이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린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사람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스스로가 이러한 성적 관계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가진 입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묘사는 "내가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의 성적 선택에 대해 내가 정죄할 수는 없다"가 될 것이다.

[사례 III-19] 루이스(30대 중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프리섹스를 지지해요. 원나잇도 지지해요. 매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전 말씀 드렸지만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못하는 거고, 내가 안하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권장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지한다'는 말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에요. 근데… 어…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 프리섹스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건아니지만. (질렸다는 듯 혹은 지겹다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정죄하지마~ 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할 몫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매춘을 하건 프리섹스 주의자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특정한 성적 실천(예를 들어 SM³⁹플레이, 그룹 섹스, 원나잇스탠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개인적인 취향에 맞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고 그 것을 종교적인 가치판단과 연결 짓기를 저어했다.

대신 사람들은 '죄'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하면서도, 다른 이를 정죄하는 태도가 오히려 진짜 죄에 가깝다는 확신을 드러냈다.

[사례 III-20] 베인(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

³⁹ Sadomasochism(가학피학성애)

제가 '죄'에 대한, 죄라는 단어, 죄 자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고백하자, 우리는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말 되게 불편하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를… 원죄 그게 대체 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생각하면서 죄에 되게 민감한데, 요즘에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게 오히려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혐오를 하기 위해서 성서를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도구로. 분명 그 사람들도 그 정도 기독교적인 생활을 했으면 다른데서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텐데 그걸 싹 무시하고 아니다 쟤네가 이상한 거고 쟤넨 무조건 이단이고 그런 식으로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말만 맞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경향은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해석의다양성을 중시하는 관점을 보인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이들은 한국 교회에서 비교적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보수적 복음주의교회에서 주장하는 성경무오설⁴⁰이나 문자주의적해석을 부정하며 성경에 대한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해석을 강조한다. 특히 지적 탐구를통해 대안적 신학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앙 사이의 갈등을 풀었던이들일수록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편이다. 예전에는 퀴어신학과관련된 지식이 많이 없었던 사람도 무지개교회를 다니며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 이러한지식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게 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종교엘리트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담당 목사였다.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며 성경무오설을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적 입장을 가진 그는, 성경공부 시간에 성경이 여러 사람에 의해쓰였고 각 부분이 쓰인 시기와 저자에 따라 예수를 재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텍스트비평적 관점을 종종 드러냈다. 또 성경 내 일부 내러티브가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유적 이야기라고 보기도 했다.

특히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을 발견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해석들은 주일예배 설교나 성경공부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교회공동체 내에서 활발히 유통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성경에서 죄악시하는 대상으로 등 장한 동성간 관계가 현대에 통용되는 의미의 '동성애'와는 차원이 다른 대상이었다는 해석이 있다. 단순히 동성 간 관계가 아니라 일방이 현저히 권력적인 우위에 있는 착취적 관계(e.g., 성노예, 성매매)나 다신(多神)을 섬기는 컬트(cult)의 일종으로서 행해지던 신

⁴⁰ 성경에는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신학적 관점

전 내 성매매를 문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삭제하고 성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여 퀴어를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한다고 이들은 비판한다.

성경 내 동성애에 대해 다른 부분에 대한 무지개교회 교인들의 담론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대안적인 성격을 띠지만, 그 담론을 구성하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나 이들이 성경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서도 해석의 다양성이 강조된다. 주일예배 중 설교 후 토론 시간에는서로 일치하지 않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인 장에서 나누어지는 것 자체에 가치가 부여되고, 성경공부 시간에는 평신도 참가자들이 해당 구절에 대해 자신이 조사 및고찰해온 바를 자유롭게 나누고 성경공부를 주관하는 목사는 성경 해석에 있어 하나의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함을 자주 강조하고 상기시킨다.

텍스트비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의 의미는 그것이 쓰인 역사적 배경이나 저자뿐만 아니라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무지개교회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퀴어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데, 1차적으로 이는 앞에서 예시로 든 것과 같이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을 새로이 해석한다거나 주류 기독교에서는 '깊은 우정'으로보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보는 등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차원으로이 해되지만보다 넓은 의미의 퀴어적 독해가 일반적으로 깔려있다. 다시 말해 퀴어가 단순히 젠더와 섹슈얼리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복성 자체를 퀴어의 의미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퀴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예수가 당시 유대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집으려고한 것과 가장 낮은 자가 기독교적세계 안에서 가장 높은 자(예수)와함께하는 것 등 전복의 서사를 발굴하는데 집중하며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교인은 성경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소위 "공포의 구절(verses of terror)"에 의해 자신 같은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을 겪어야 했던 경험으로 인해 반감이 생긴 것이다. 일부는 성경에 대한 천착을 혐오의 근원 중 하나로 꼽으며 성경만을 중심으로 신앙이 구성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이들은 "읽다가 또 무슨 벌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잘 못 펴보겠다"라 거나 성경이 자신의 신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례 III-21] Ray(20대 중반, 한국계 미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Ray: sinning? 음… 남을 미워하는 거? 응. 바이블(Bible)의 말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따르려고. 나는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특이해요. 나는 바이블 읽어

본 적도 없고 그냥 워십 받을 때만 잠깐씩 읽고, 특별히 관심 없어요. 왜냐면… 물론 나중에 바이블 읽으면 정말 재미있어 하겠지만, 어… 그걸로 인해 너무 hate 이 많이 나왔고, 서로 미워하고 judge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고.

연구자: 꼭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Ray: 응. 다 hate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부터 시작해서… 게이면 다… 이게 너무 많이 거기서 나와서… 음… 그것도 좋지만 우선은 남을 미워하는 거. 특히 바이블 통해서 미워하는 그런 것도 정말 나쁜 거고. 그냥 남 미워하는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실로, 무지개 교회 공동체 차원이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의 신앙관에서 성경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텍스트이며 '신앙생활'이라는 실천 자체에서 성경 읽기자체가 갖는 당위적 의미도 크다. 개인 수준의 실천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신실한신자로 인정받는 담론이 지배적이며 교회 예배라는 의례 상황에서는 각 참여자가 (종이로 된) 성경책을 앞에 두고 참여하는 것이 해당 예배의 형식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의례형식 차원에서 '정통'과 '보수'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교인 개인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문화적 규범으로 자리잡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무지개교회에서는 성경이 갖는 위치나 역할이 일반 교회와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 대 성경을 많이 읽어야 신실한 것이라고 보는 담론이 통용되지 않으며, 주일예배 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다. 성경공부에서도 종이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의 형식적 상징성은 거의 없는 편이다. 성경공부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성경책, 줄글형태로 편집된 성경책,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단말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다.

3) 절대적 사랑으로서의 신성에 대한 인식

기독교는 신성에 대한 유일신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 종교로, 신(神;theo)에 대한 이해/ 담론(學;-logy)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어떤 기독교인이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곧 그 사람이 기독교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무지개교회 교인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퀴어신학에서는 진 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들의 주장을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해하는 신성의 모습은 자신이 이미 겪은 종교적 경험과 함께 앞으로 경험하길 기대하는 바를 응 축적으로 드러낸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둘러싼 의미투쟁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관을 정립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려 노력했다.

[사례 III-22] 루이스(30대 중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무지개교회에 오기 전 한국의 복음주의 개신교회들을 주로 거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30대 레즈비언 루이스는 연구자에게 자신의 꿈에 하나님이 나와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나는 사랑인데 사람들이 나를…(오해한다)" 정죄하고, 동성애자들 싫어하고, 십일조 헌금 내야 되고, 막 "너 이혼했어? 안 봐! 너 결혼했는데 바람 폈어? 영원히 안봐! 넌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면서 나의 사랑을 곡해해서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간질 당한다'는 거에요.

루이스가 꾼 꿈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된다. 그녀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의 대비항에는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 있었다. 반면 이들의 신성 인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미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랑의 하나님(Loving God)'이다. 이들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그것이핵심이 아님을 강조한다. 특히 기독교 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신'으로 의미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 스스로 당시 권력층의 박해를 받으며상처 입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이런 맥락에서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차별반던 사람'이라는 동일시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수에 대한 이와 같은 담론은 '스스로가 사람들의 오해로 상처 입어서 죽기까지 하신,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실 것이 분명한 분'이라는 예수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 절대적인 사랑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전부를 이해해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절대적인 긍정을 의미한다.

[사례 III-23] 조기진(30대 중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원나잇을 몇 번을 하든 뭘 하든 돌아갈 곳이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좋지. 니가 만약에 사람한테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을 "세상이 모두 나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나를 알아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단한 존재"로 보는 것과 같은 이해에서 드러나는 것은 곧 신(의 사랑)에 대한 신뢰이다. 이들은 그러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과 솔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주로 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뒷받침되었다. 특히 그 감정이 희망과 같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분노나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일 때 이들의 솔직함은 더욱 특별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신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성스럽지 못한 행위로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마치 아주 가까운 가족(특히 부모)에게 하듯이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평한다.

[사례 III-24] Ray(20대 중반, 한국계 미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지금은 또 (하나님이랑) 되게 많이 친해져서… 지금은 정말… 아빠지만 너무 친한, 우리 아빠보다 더 친한 아빠 같은 생각? 그래서 막, 짜증 나는 거 있으면 짜증난다고 얘기해요. […] 욕도 해요. 욕도 되게 많이 해요. […] "씨발, 존나 짜증나요" 막 이래요. […]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미안한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요새 되게 unhealthy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제 내 말 안 들어주냐…' 투정도 부리고.

이로서 신성은 인간과 보다 가까워지고, '성스러운 세계'에 속하기 위한 문턱은 조금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신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이들의 내러티브에서 성스러운 세계에 속하기 위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또 다른 코드는 신의 편재성에 대한 강조이다. 즉, 하나님은 종교적인 거룩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곳 혹은 모든 것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의 편재성은 성소수자가 아닌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날 수있지만,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교회 차원에서 '교회'라는 공간 자체의 신성성을 강조하거나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무지개교회에서는 예배의 형식을 갖춘 것뿐 것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담론이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성에 큰 방점이 찍히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지개교회 교인들 모두가 예배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종교적 성격(신앙)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교회 내에서 장려되고,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만을 '성소(성스러운 곳)'으로 위치 짓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 편재성에 대한 강조는 더 나아가 성과 속의 물리적 구분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례 III-25] 전영우(20대 후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내가 심지어 화장실에 있거나 내가 심지어 무대 뒤에 뭘 준비하고 있거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그니까 일명,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상황에서도 주님께선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내가 학점을 딸라고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미친 듯이 그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그 도서관에서도 이태원에 있는 어느 클럽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그게되게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신이 있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신이 내가 있는 곳에 있는가'라는 문제는 인간화된 신을 상상할 때 혹은 성화된 인간을 상상할 때 방향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까지기독교에서 신은 인간의 인지 영역을 초월한 존재로 그려지면서도 동시에 매우 인간화된모습으로 이해되어왔다. 주류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성자,성령이 공존하는 한 몸으로서의 신을 말하지만 신의 세 형태 모두 의인화되어 재현되는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부모'에 비유하거나, '주인'으로 부르는 것 모두 이를 뒷받침해준다. 신이 성스러운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로 치환되어 설명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다. 기독교적 세계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선후관계를 고려하자면 인간이신을 닮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을 봄으로써 신의 모습을 유추할 수도 있는가?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좀 더 급진적인 퀴어신학으로 나아가, 신을 성소수자의 경험을 토대로 묘사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하나님도 우리 같은 존재-퀴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서 우리는, 화자가 자신이 인지할수 있는 인간적 형태를 참조로 하여 신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성소수자 자신의 경험을 일탈적(deviant)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용어로서) 인간'의 경험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을 '퀴어'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최근의 퀴어신학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Queer God" 모델과도 닿아있다. 다만, 학문으로서의 퀴어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퀴어한 하나님" 개념과 일부 무지개교회 교인들의 "하나님도 퀴어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등장하는 '퀴어' 개념은 그 사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 기독교적 신은 삶과 죽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강한 자와 약한 자, 신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 등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퀴어한' 존재로 호명된다(Cheng 2011). 이때 '퀴어'란 퀴어이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전복성과 비고정성 자체에 대한 명명이다. 반면 후자에서는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기능이 중심이 된다.

[사례 III-26] 주일예배 전체토론 시간

전은경⁴¹: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본떠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 분이 책임지셔야 돼. (사람들 웃음)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 분이 책임지는 거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Paul 목사: 좋다.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도전할수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반증이다.

전은경: 그러면… 하나님도 양성애자인가?⁴²

위 사례에서 은경이 신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은 일반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과 대비된다. 보통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을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있어야 한다(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으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 무지개교회에서는 신의 형상과 자신들(인간) 사이의 유사성은 이미 주어진 전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신성에 의해 그를 본떠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특정한 신앙표현을 함으로써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기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갈래의 퀴어신학적 인식도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앞의 사례에서처럼 퀴어성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상을 만드는 것과 달리 성적인 부분을 아예 종교적인 고려에서 삭제함으로서 초월을 꾀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앞의 사례에 나온 대화가 일어난 직후, 다른 교인 Thomas⁴³은 "사실 요즘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의 문제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고 이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었다. 다시 말해 어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의 세계에서 그리 유의미한 구별 표지가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접근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탈이성애중심주의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퀴어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과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

^{41 30}대 초반, 한국인, MTF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⁴² 그녀가 트랜스젠더 이성애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그녀가 양성애자(bisexual)를 의미한 것인지 트랜스젠더를 의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이 창조되었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맥락 상 성별정체성 상의 퀴어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다.

⁴³ 참고로 Thomas는 미국 출신의 40대 게이로,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보수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 소속이었다.

를 평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요컨대 대부분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퀴어성과 종교의 만남을 그린 이야 기는 비규범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로 인해 기독교적 세계에서 추방되거나 혹은 추방될수 있다는 두려움을 학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결과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성 정체성 및 실천과 종교를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보게 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둘을 다 끌어안고 퀴어로서도 기독교적 세계에 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기존에 자신이몸담고 있던 주류 혹은 보수적 기독교계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분리함으로써 천국시민권을 다시 찾는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천국시민권, 다시 말해 기독교적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것은 교회 '조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성이었으며 무지개교회 같은 커뮤니티나 다른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존재는 이들의 기독교적 시민권 인식을 유형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지지기반이 된다.

포용적 사랑의 이상은 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천국과 지옥은 '구원'의 내러티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지만, 무지개교회에서는 그리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그곳을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그보다는 결국에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무지개교회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념 속에서 기독교계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은 결코 까다롭지 않았으며, 이로써 그들은 천국 시민권의 면적을 확장하고 있었다.

IV.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 무지개교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실천

무지개교회 공동체는 앞에서 말한 퀴어기독교인 내러티브가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구현되는 곳이자 동시에 이러한 내러티브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서, 여기에 속한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퀴어 기독교인 시민권을 상상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3장에서 주로 개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퀴어신학적 내러티브에 대해 분석했다면 본 장에서는 그 내러티브와 상호구성적 관계를 이루는 장(field)으로서의 무지개교회가 보여주는 공동체적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무지개교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말할때 교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쓴 표현 중 하나는 바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 혹은 "나일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일 수 있는 곳(where I can be myself)"이라고 받아들이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것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이상 및 사회참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1. 다양성의 공동체

2장에서 설명했듯이 무지개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여러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 젠더, 섹슈얼리티,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등의 차원에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은 모두가 시스젠더이자 이성애자로 가정되는 교회나 한국인만 다니는 교회 등에서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 높은 다양성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긴장을 야기하는 요인일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준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성적 다양성의 반영

단적으로 말했을 때, 이들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느끼게 해주는 가장 큰 요인은 교인 중 다수가 소위 "이쪽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평소에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정현희 2013). 컵을 들 때 손동작이 너무 게이 같지는 않았는

지 스스로 곱씹거나, 친구들과 연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사귀어온 애인의 성별을 동성에서 이성으로 바꿔 말하거나, 교회 청년부 모임 중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부정으로 인한 괴로움을 감내하면서도 '난 그건 죄라고 생각해'라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트랜스젠 더'와 같은 단어를 말할 때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춘다. 교인 각자가 살아가는 평일의 생활세계에서 이들이 자신의 동성파트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무지개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이나 비규범적 젠더 표현이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며, 눈에 띄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만한 대상이 아니다. 교인들에게 무지개교회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로,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와 달리여기서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점은 많은 교인들에게 '편안하다' 혹은 '집 같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며 그들로 하여금 무지개교회를 자신이 과거에 출석했거나지금도 병행하여 출석하고 있는 기성교회와 분명히 대비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사례 IV-1] 앤디(3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나한테) 무지개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야. 그니까 내게 복이 좀 큰 곳. 복이 많은 곳. […] 이제 우리가 서로 같다는 걸 알잖아. 우리가 그 성적소수자고 그렇기 때문에 아우리 서로가 인제 똑같은 처진데 되게 같이 함께한다는 게 참 되게 편하고 좋고 행복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동성파트너의 존재를 밝히고 친교시간에 지칭대상의 성별을 바꾸지 않고 연애상담을 하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은어를 포함한 농담을 활발히 주고받는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교인들은 소수자적 성정체성이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하위문화가 비정상화되는 '일반 사회'의 규범과 다른 틀을 무지개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낸다. 이곳에서 퀴어성(queerness)은 설교 및 토론의 주제나 농담이라는 형식으로 예배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교적 세팅에서도 적극적으로 통합된다. 권력적 소수자로서 LGBT가 처한 인권상황 등에 대한 주제가 공식적인 설교나 토론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이 교회에서 가장 흥미롭게 나타나는 성에 대한 담론 형식은 바로 성적 농담이다. 무지개교회에서 모든 교인이 항상 성적 농담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구성원 중 일부가 성적 농담을 재치 있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다른 이들이 청자혹은 동조자로 농담 상황에 참여한다.

[사례 IV-2] 주일예배 공동기도 시간

그날의 예배 인도자였던 교인 Jay가 스크린에 나온 기도문을 함께 읽을 것을 회중에게 제안했다.

Jay: I'll read the top part and please respond by reading the bottom part. (제가 윗부분을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는 아랫부분을 읽음으로써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Paul 목사: So you are top and we are bottom? (그러니까 Jay가 탑이고 우리가 바텀이 라는 말이죠?)⁴⁴

Jay와 **회중:** (웃음)

[후략]

위 사례에 나온 상황에서 농담을 제대로 이해하고 웃음을 터뜨리려면 먼저 게이 섹슈 얼리티 코드나 퀴어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해 거부감 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성적 농담을 통해 성공적인 소통 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농담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 는 사람들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농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 은 이들은 대부분 놀란 듯한 웃음을 터뜨리고 '하하 이런 교회가 다 있다니!' 하며 놀라 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의 교인들은 적응하고 "어우- 더러워!" 라고 장난스레 말하거나 웃음을 터뜨림으로써 화자가 내뱉은 말을 확실히 '농담'으로 위 치 짓는 데 참여한다. 물론 농담이 성공적으로 '먹히는' 것의 이면에는 억양이나 표정의 변화 등을 통해 지금 나오는 말을 농담으로 위치 짓는 맥락화 단서(contextualization cue; Gumperz 1982)와 메타화용론적 프레임(metapragmatic frame; Silverstein 1976)의 기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Paul 목사는 "top"과 "bottom"이라는 말이 가진 중의성을 이용하여 언어유희를 시도했다는 기본적 요소에 더해 일부러 말을 늘임으로써 해당 발화를 둘러싼 맥락을 그전까지 존재하던 진지한 기도 상황에서 농담상황으로 바꾸 었다. 또 종교적 성격이 강한 '기도'라는 말 상황에서는 엄숙하고 진지한 메시지가 유통 되어야 하며 예배 인도자가 기도의 진행을 관장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메타화용론적 프레 임이 일반적으로 공유되다. 그런 맥락이 존재하는 가운데 Paul 목사는 수동적인 청자의

⁴⁴ 여기서 "탑(Top)"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의 애널섹스에서 삽입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바텀(Bottom)"은 삽입을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리에서 불쑥 뛰어나와 진지한 종교적 발화의 프레임에서 유희/연행의 프레임을 시작한 것이다.

'성'이라는 소재가 무지개교회에서 주로 유희와 연행의 프레임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면서 통제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방식으로 '성'을 교회 공동체의 담론장 안에 통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성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위의 농담들이 나와도 그것을 진지하게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농담을 따먹으며 웃어넘기는 것은 보통의 교회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또는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되는 종교적 엄숙성에 대한 패러디이기도 하다. 이는 '무엇이 '종교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기존에 자신들이 익숙하게 여기던 기독교 예배의 전형적인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전적인 요소를 자신들의 종교적 의례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지개교회는 '종교적'인 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 것 수를 늘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유된 전제와 상호 구성, 그리고 유희 /연행의 프레임이 전제되었을 때 농담이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교인들은 성적 농담의 수위가 너무 높아졌을 때나 특정인 혹은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 사 람들을 대상화하는 것 같은 농담에 대해서는 내심 반감을 가진다. Basso(1979)는 모욕적 이거나 공격적인 표현 및 행위의 "일상적인(ordinary)" 해석을 '1차 텍스트'로 부르고 같 은 언행을 농담으로 해석하는 것을 '2차 텍스트'라고 부르는데(Black 2012:89에서 재인용) 한 언행을 2차텍스트적으로 해석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맥락화 단서. 메타화용론적 프레 임의 역학, 퀴어문화에 대한 전제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 예컨대 무지개교회 주일예배 후 친교시간에 한 레즈비언 교인이 "어우- 이래서 바텀(bottom)들은 안 된다니까-?"라는 말을 농담으로 내뱉었을 때, 그녀 자신을 포함하여 이 발화가 '농담 프레임' 안에 들어있 다고 느꼈던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한 번 시원하게 깔깔 웃고 넘길 농담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게이 구성원 중 일부는 이것을 농 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고 그녀의 말을 2차 텍스트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한 게이 교인은 어느 날 예배 후 친교시간에 그런 "농담"에 불편함을 느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뒤 연구자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넌지시 연구자에게 자신이 해당 농담 의 발화자가 만드는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요컨대, 화자와 청자, 관중을 포함하여 농담 사건이 벌어지는 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유희 및 연행의 프레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는 충돌이 발생한다. 서로 간에 공유되 는 문화적 전제가 많을수록 유희 및 연행 프레임이 공유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에 앞의 사례에서 밝혔듯이 해당 농담에서 희화화되거나 대상화되는 정체성 범주에 자신이 속해있고 이러한 농담을 발화하는 이가 다른 정체성 범주에 속해있는 상황일수록 '농담'을 발화자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잠재적으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에서도 만약 같은 게이 바텀이 농담을 했거나 그 스스로가 자신을 소재로 농담을 한 것이라면 아마도 그 교인이 같은 방식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농담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예컨대 레즈비언)이 했을 때 그것은 '타자화'로 느껴지는 것이다.

물론 교회에서 나오는 성적 농담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말로 '성적인(sexual)' 것은 아니고 사람들은 보통 이를 '그냥 나오는 말'로 넘긴다. 농담이 참여자들 사이에 성적인 긴장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농담의 효과는 무엇인가? 먼저, 농담의 성공적인 유통은 특정한 성적 지향이나 표현(실천)에 대해 이들이 배경지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 농담 참여자들이 그것을 '이곳이니까 할 수 있는 말'로 여기는 것은 이들이 무지개교회를 자신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IV-3] 주일예배 소그룹 토론 시간

사람들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혐오 현상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데비: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무지개교회니까 무지개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싸우기는 싸우되 우리 방식대로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루이스: 뭐, 그럼 하나씩 잡고 박 탈까?⁴⁵

데비: 어우. 더럽다, 진짜.

사람들: (웃음)

[중략]

데비: (유혹하는 듯한 눈빛을 과장되게 지어 보이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트랜스에 미쳐가지고 트랜스 아니면 안되게끔!⁴⁶

⁴⁵ 박을 타다: '성관계를 맺다'는 뜻의 은어/속어

⁴⁶ 데비는 가끔 이런 말을 쓰곤 했는데, 여기에 1차적으로 숨은 뜻은 '그들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그들이 다른 여성은 찾지 못하게 될 정도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적) 매력에 빠지게 하겠다'는

사람들: (웃음)

위 사례에서 루이스와 데비가 한 말은 사실 퀴어를 과잉성애화된(hypersexualized) 존재로 그리는 많은 호모포비아 세력의 수사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로 동원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가끔 일부 남성 동성애자 교인들이 다른 남성 동성애자 구성원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행동도, 게이를 단순히 여성화하여 이해하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주류사회에서 일반화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차용하여 그 언어를 재점유할 때 이들이 자신(퀴어)을 소재로 삼아 내뱉는 농담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같은 말이 당사자가 아닌 이에 의해서, 다른 상황에서 발화되었다면 사회적 낙인을 재생산하는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낙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재점유하고 언어적 유희의 대상으로 변화시킬 때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적 낙인의무게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남아프리카의 HIV/AIDS 감염인 합창단에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죽음'이 내부인들 사이의 농담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연구한 Black(2012)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장애인들이 장애인 친구들끼리모인 자리에서 '병신'이라는 말을 쓰며 서로를 놀리기도 하는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어나 문장 자체가 '농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적 전제가 공유되기 때문이며, 조금만 다른 세팅에서 재생산될 경우 사회적 낙인을 더강화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 다수가 성소수자이고 또 성소수자들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자신들이 '오해'받거나 '나쁘게 생각'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무지개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퀴어와 관련된 농담은 "우리니까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우리니까 쓸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문화적 소속감을 느끼게한다. 또 퀴어 코드가 들어간 성적 농담은 평소에는 할 수 없기에 억제하고 있다가 "이쪽" 친구들을 만날 때 '분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종교적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친교 공동체로서의 성격도 다분한 무지개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성소수자가 교인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수적인 요인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담일 뿐 실제로 그런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었다.

[사례 IV-4] 베인(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베인: 왠지 거기(B교회⁴⁷)는 나가지 않아도 저랑은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보수적이거나 한 건 아닌데, 딱히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 같아요.

연구자: 어떤 점이 안 맞을 거 같아요?

베인: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연구자: 그냥 느낌이?

베인: 맞아요. 굳이 꼽는다면, 제가 거기에 가서 그 다른 구성원들이랑 친해질 수 없을 거 같아요.

연구자: 그렇게 예상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베인: 거기는… P교회나 무지개교회보다 뭔가 좀 더 기성교회 같은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교인들도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대부분 이성애자이시고, […] 그럼 저는 거기 나가도… 어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퀴어가 많은 곳이 더 편하고, 퀴어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더 쉽고 더 거리낌이 없고.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B교회는 그것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거 같아요.

연구자: 이성애자인 기독교인들하고 친해지는 데 좀 약간 장벽으로 작용하는 게 어떤 점이에요?

베인: 그런 건 없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 이성애자가 대다수인 그 공동체의 분위기랑 그냥 뭐. 적당히 반반 있거나 뭐 이성애자가 몇 명 있을 때 그 사람들이랑 잘 친해지는 거랑 이성애자가 다수인 곳에서 그들과 친해지는 거랑은 다른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성애자들이랑 굳이 막 장벽이 있어서 못 친해지거나 친해지는 게 어렵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베인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아무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 자체가 성소수자에게 열려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같은 "이쪽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에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시스젠더 이성애자)에게 커밍아웃하기를 훨씬 어렵게 느낀다. 자신의 소수자적 성정체성이 그들로부터 어떤 가치판단을 받을 것인지 긴장하게 되기 때

⁴⁷ B교회는 서울에 위치한 또 다른 성소수자 지지 교회로, 진보적이고 사회참여적인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인이 개인 및 가족 단위로 출석하고 있다.

문이다.

한편, 성소수자 당사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자면 무지개교회가 아니라 서울에 위치한 또 다른 성소수자 신앙공동체인 D교회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D교회는 1997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교회이다. 하지만 D교회의 경우실질적으로 현재는 남성동성애자들만으로 회중이 구성되어 있어 게이가 아닌 다른 정체성의 성소수자들은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와 달리 무지개교회에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모두 모여있다. 일부 교인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 범주 외의 성소수자를 만나봤다고 고백하는데, 교회 내에서는 자연스레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상호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장에서 이들이 '우리' 혹은 '이쪽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속한 성정체성 집단(예를 들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만을 가리키기 위해서이기보다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퀴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을 통해 '교회' 차원에서 공유되는 것은 '동성을 좋아한다' 와 같은 특정한 섹슈얼리티나 젠더라기보다는, 주변화된 집단으로서의 감각과 그를 기반으로 한 연대감이다. 사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성소수자로서 분류되는 기준이 1차적으로 '성'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성적'이기만 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젠더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생물학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이성간 혼내 성(sexuality)을 가장 상위에 두며그 조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성적 위계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규범적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실천하는 것은 보다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둘러싼 투쟁이 될 수 있다.

2) 지지집단으로서의 기능

"이쪽 사람들" 혹은 우산개념으로서의 "퀴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소속감을 공유하는 교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일종의 지지집단이 된다. 특히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가족 같은 존재' 혹은 '집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편으로 이는 이들이 자신의 실제 집(가족)과 그리 이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원가족이 퀴어로서의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많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족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가까운 가족처럼 느낄 수 있었다.

무지개교회 공동체에서 교환되는 여러 형태의 지원 중 가장 중요한 종류의 지원은 바로 정서적인 지지로, 거의 모든 교인이 공통적으로 경험한다. 특히 자신이 퀴어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다른 교인들의 지지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아래 제시되는 사례는 MTF 트랜스젠더인 데비의 이야기로,데비는 무지개교회 출석과 거의 동시에 트랜스젠더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교회 설립 초기부터 무지개교회에 출석했던 오래된 교인들은 지금도 데비의 예전 모습을기억하는데, 그들은 그녀가 지금 모습과 달리 항상 수줍어하고 자신을 자신 있게 '여성'이라고 소개하지 못했다고 회상한다.데비는 남들이 5년이나 10년 걸려서 이룰 변화를자신은 무지개교회 덕분에 1년만에 해냈다고 고백한다.무지개교회 멤버들이 구체적으로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데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례 IV-5] 데비(20대 후반, 한국인, MTF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인터뷰

그니까, 첫 번째는,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웃음) '여성스럽다' 해주니까.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겉치레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또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찿아주고 환영해주고. 이러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내가 못생기지 않았다는 느낌? ⁴⁸ 그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느낌들. 여러 가지.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참 힘들고. 그런 점들? 알아가는 거지. 솔직히 뭐, 그분들이 나한테 돈을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근데,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줬으니까. 내가 속해있을 소속감도 줬으니까. 빽이 생긴 거지. 빽이. 빽.

여기에 더해 무지개교회에서는 예배 중 토론시간이나 전후 친교시간에 신앙적인 고민이나 퀴어적 성정체성 및 실천으로 인해 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예컨대커밍아웃,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 연애 문제 등)들이 자주 다루어진다. 특히 신앙과성적 지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현실에서 누군가가 성소수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과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부딪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통합된 퀴어 기독교

_

⁴⁸ MTF 트랜스젠더들에게 외모는 자신의 여성성을 보여주는(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며, 특히 대중매체에서 "예쁜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재현되면서 '트랜스젠더들은 예쁘다'라는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되고 널리 유통되었다. 트랜스젠더여성 커뮤니티 내에서도 외모를 기준으로 한 경쟁이 심한 편이다.

인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지기반으로 작용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보수적 인"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아직까지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라는 1차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의 공유로 인해 일종의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꼈다. 이들에게 매주 한 번씩 정해진 때에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신 같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밖에서는 할 수 없었던 종류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표적인예로 교회 구성원 중 누군가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을 때 사람들은모두 관심을 보이며 조언이나 응원의 말을 교환한다. 또 실연의 아픔을 겪은 교인에게는 "그 년이 나쁜 년이네"와 같이 다분히 세속적인 언어로 함께 전 애인 욕을 해주거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끊어주신 거야"와 같이 신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언술로동료 교인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재의미화하기도 한다.

한편, 다른 공간에 비해 이곳에서 퀴어적 성정체성 및 실천과 관련된 정서적 지지가 많이 교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항상 배타적으로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만 관련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동료 교인과 함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많고, 심각한 고용차별을 겪는 트랜스젠더 교인에게 지인의 네트워크를통해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신앙, 직장, 학교, 인간관계 전반, 건강 등 일상적인 삶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항상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호이해가 함께 엮여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통합된 퀴어 기독교인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통합된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지원을 실질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의 무언가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례 IV-6] 최호빈(3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나는 서울 출신이 아니잖아요. 서울 아니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있는데, 하…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친구가 뭐 직장동료고 이렇게 있지만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게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 소수자들이기도 하고, 또 교회 이런 걸 믿으니까 좋아요. 저도 하느님 일단 믿는 데다가, 다른 교회들은 (작은 목소리로) 게이 프렌들리(gay-friendly)가 아니에요. 게이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데, 여기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전에 교회를 갔다면 교회는 교회적으로 믿는데,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게이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고 나쁜 말을 해요. 그러면 마음 속에 혼돈이 와요. 그래서 괴롭고 내가 잘못된 걸 하고 있나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마저도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이렇게 얘기하면서 게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융합해서 잘 말을 하니까 내가 잘못

된 건가 하는 혼돈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편해지는 거죠. 왜냐면 모두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한 번씩, 거의 집에서 있는 것보다 한번씩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허깅(hugging), 안아주면서 이렇게 사람들 알게 모르게 한 주 동안 각자 상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픈 사람도 있고 고민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 그 안아주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그 시간이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따뜻한 온기, 정 같은 게, 얼지 않게 전류같이 이렇게 통해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게. 괜찮다고이렇게 위로해주는. 세상 사는 게 힘든데 너 괜찮은 거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 같이. 손길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하고. 얼굴 보는 거. 한번씩 반가운 사람들 보는 거. 그런 게 좋아서, 교회 좋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는, 그니까, 길티 (guilty)함 같은 걸 안 느끼게 되니까. 어. 편해지니까.

서울에 다른 연고가 많지 않은 것은 호빈 같은 지방 출신의 교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교인들에게 무지개교회 공동체는 친퀴어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pat(triate)"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중 가장 주요한 곳이 바(bar)인데,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영적인 가치와는다른 종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교회는 영성과 교회에 관심이 있고 좀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expat"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퀴어들에게 자신의 삶과 밀접한 커뮤니티로서 기능한다.

3) 다양성의 양면

무지개교회는 성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구성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지지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내의 친밀한 관계에 곧바로 끼어들지 못할 경우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를 비롯하여 조력자가 없는 한) 문화적 진입장벽에 부딪혀서 무지개교회 공동체에 쉽게 끼기 어렵다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 예컨대 시스젠더 이성애자 교인의 경우에는 설교 내용이나 그를 뒤따르는 토론, 교회 공동체 활동 등에 성소수자의 삶에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당사자들보다 배경지식이나 공감도의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굳이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구분이 아니더라도 성소수자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내에서도성 정체성 및 실천이나 그에 대한 스스로의 태도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지개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다양성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성 정체성 범주가 게이 남성인데, 대부분의 여성 성소수자들이 그를 문제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때에 따라 여성 교인이 많지 않은 날에는⁴⁹ 그를 아쉬워하고 또 일부는 게이들끼리 농담을 나누며 놀 때 아주 부드럽게 끼어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예배 후 친교시간에는 자연스레 교인들 같은 성별끼리 모여 앉는 현상도 종종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부러' 그렇게 앉은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자주 그렇게 앉게 되더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서로 관심사나 성향이 맞을수록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 퀴어 커뮤니티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이 같은 클럽에서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게이 클럽/바와 레즈비언 클럽/바가 따로 존재하며 사회운동적 성격을 띤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별이 분리되어 커뮤니티 장이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바에서 있었던 일이나 연애 이야기를할 경우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공감을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 교인은 교회 규모가 아주 작던 초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각자 잘 어울리는 그룹들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은 언어 차원(출신 국가 배경)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많은 교인들이 한국인과 외국인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반투명한 벽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단연 가장 가시적인 장벽은 언어이다. 이중언어 환경은 무지개교회의 풍경을만들어내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일부 교인들이 이미 문제적인 상황으로 인지하고있듯이 이 교회에는 언어장벽에 따른 어느 정도의 단절이 존재한다. 먼저, 목사의 설교및 예배 진행과 영어사용자 교인들의 토론 내용이 한국어로 순차통역되고 한국인 교인들의 말은 영어로 순차통역되는 진행 방식은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데 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상황에 완전히 몰입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목사의 설교나 PPT화면 등 공식적인 내용이 영어로 먼저 나오고 심지어 때로는 영어로만 나온다는 점에서 무지개교회의 1순위 공식언어는 영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교인들 중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어에 능통한 다른 한국인 교인이 통번역을 해주기 전

⁴⁹ 참고로 무지개교회의 교인 구성은 다른 교회에 비해 변화가 큰 편이다. 지방 거주나 직장을 비롯해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매주 나오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교인의 비중도 높고,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러 몇 번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며, 외국인 교인들 중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불편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 교인들은 교회 밖의 일상적 세팅에 비해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무지개교회의 언어 환경에서 평소보다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영어로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가졌다.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장벽의 수준이나 효과와는 별개로, 한국인 교인들에게 '이곳에서는 영어를 써야 한다' 또는 '영어를 쓰면 편하다'는 메타화용론적 담론은 항상 가시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성경공부나 설교 후 토론 시간에 종교에 대한 심충적인 토론을 하다 보면 생각이나 말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 말의 진행이 느려지기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통역해줄 사람 있으니까 한국말로 해도 돼~"라며 농담을 던진다. 또 예배나 친교 중 이루어지는 진지한 대화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농담도 동시간적으로 공유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아무리 해당 말 상황 자체의 무게가 무겁지 않다 하더라도 언어장벽이 오히려 더 도드라질 수 있는데, 농담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완벽히 번역되기가 더 어렵고 웃음에 시간차가 있을 경우 분위기가 좀 더 어색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어 문제로 인해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참 여자들은 이러한 불만을 공론장에서 쉽게 꺼내지 않았다. 50 어쩌다 언어장벽에 대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체로 비공식적 대화상황에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눌때였다. 한국인 교인들은 외국인 교인들보다 언어장벽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인해 그들이 더 구조적인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 내 언어 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 혹은 '교회에 통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업무량이분산되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결론을 내놓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체 한국사회 차원에서 '영어'가 가진 우월적 지위와 그를 향한 열망(Shim&Park 2008)이 만들어낸 효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기독교적 문화규범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⁵⁰ 연구자가 현지연구를 시작하기 전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한 번 제기되어 잠깐 동안은 설교도 한 문장 단위로 직역하고 또 모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영어와 한글로 모두 작성해보았지만 예 배 진행이 수월하지 않아 덩어리 단위로 순차통역이 제공되고 슬라이드의 경우 필요할 때와 번역 담당자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한글 번역이 함께 제공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무지개교회의에서 또 다른 긴장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종교적 다양성이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무지개교회에는 기독교인에서 불교신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오순절교회처럼 성령체험을 중시하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 미국 남침례교나 한국의 일반적인복음주의 개신교회처럼 성경에 대한 태도나 교리 차원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 후기성도그리스도교회(몰몬교회)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등 교리나행동 강령 측면에서 보수적이고 엄격하나 주류 교회로부터는 '이단'으로 취급되는 교파의신도였던 사람, 자유주의 신학적 색채를 띤 사람 등 스펙트럼이 넓었다. 이런 상황에서누군가에게는 '신실한 신앙의 표현'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유별나 보이고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위성에 맡기는 내러티브를 무지개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설파할 때 누군가는 그/녀가 표현하는 종교성혹은 신실한 정동(affect)⁵¹이 과도하다고 느끼며 부담스러워 한다. 반대로 누군가는 무지개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느슨하고 경건하지 못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거나 키우는 데 방해가 된다고 느끼기도 한다. 보수 복음주의적 신앙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중 일부는 '영적전쟁'이나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꼬였다'와 같은 수사를 쓰고 싶어도 이 교회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코드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기에 아쉬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예배 중 '토론' 시간에만 공식적으로 나타날 뿐토론의 경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외적 갈등으로 확장되어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교인의 신앙관이나 표현방식에 불편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속으로만 담아두는 사례가 더 많았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나 언어 및 출신 국가, 종교적 성향 차원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차원에서도 다양성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같은 특정한 생애사적 경험이나 연령주의 같은 문화적 요소에 대한 태도 차이에 따라 수면 위로 올라와 터지지는 않지만 분명한 긴장관계가 생길 때도 있다. 일례로, 교회 내에서 군 미필자에 대한 농담이 나올 때 군 미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재밌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무지개교회 외 다른 성소수자

^{51 &}quot;Affect"는 주관적인 정서 경험인 동시에 밖으로 표현되어 타인에 의해 관찰되는 감정을 의미한다. 내적 감정에 차원에 머무는 정서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흐르는 성격이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정동(情動)'이라고 번역되는 용례를 본 연구에서도 따랐다.

커뮤니티나 사회단체에서 인권운동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은 나이에 따라 위계가 존재하는 연령주의 문화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교인이 큰 문제의식 없이 "한국적인" 연령주의 의식을 드러낼 때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역시 수면 위로 바로 올라오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거나 비공식적인 장에서 조심스레 다뤄지곤 했다.

이와 같이 다양성이 때로는 교회 운영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벽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교인 구성을 유지했던 것은 '교회가 오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상에 대한 추구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의 가치 에 대한 인정에 힘입은 것이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문화적 규범인 무지개교회에서 게이나 레즈비언 같이 특정한 젠더 및 성적 지향 범주나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 구분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규범이 잘 통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극도의 다양성이 있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 국적, 언어, 종교 등 여러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 께하는 공동체다 보니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다'는 암묵적인 코드가 공유되는 것이다. 일 부 교인들의 우스개대로, 사람들은 무지개교회를 "내가 머리에 빤쓰를 쓰고 와도 뭐라고 하지 않을 교회" 혹은 "다 미쳤으니까 내가 미친 게 튀지 않는" 곳으로 인식한다. 52

[사례 IV-7] 2014년 5월 18일 장민영(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사실 무지개교회는 너무 다양한 멤버들이 많아서. 이제, 신앙적으로 엄청 거듭나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비종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진짜 다양해. 그게 재밌는 거 같아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래서 참 마음 편하게 해요. 나 같은 사람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안심을 주고. 그런 안정감을 주고요. […] 멤버들이 전 너무 좋아요. 정-말 밝고. 정말 인텔렉츄얼(intellectual)한 어프로치를 가진 분들도 있으시고 로스(Ross)처럼 한없이 자유로운 영혼도 있고 데비처럼 유쾌하면서도 진지할 때는 진지한 또 그런 성숙한 면을보이는, 삶의 노하우가 있는 언니도 있고 진주처럼 정말 신앙적으로, 거의 성모, 투사마리아잖아 정말. 레즈비언 마리아잖아 걔는. 그런 애들도 있고. 어… 그렇죠.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다는 것. 그런, 그것도 게이 커

⁵² 물론 이는 자신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넘어서 교회 내 관계(예컨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는 파트너)에도 영향을 끼칠 경 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거지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좀 더 신경 쓰는 경향을 보 였다.

뮤니티에 참 시사하는 점이 되게 많아요. 비단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저만 하더라도 사실 제 친구랑 겪고 있는 갈등들도 사실 다름에서 비롯되거든요. […]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극복될 수 없는, 저는, 이해의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되게 부딪치거든요. 우리도(무지개교회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큰…….

사실 교회 내 인간관계에서 성격 차이로 인해 충돌하거나, 무지개교회의 스타일이 자신의 종교적 선호와 맞지 않거나, 혹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내에서 흔들리지 않는 보루는 이곳이 '누구나(즉,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이상에 대한 합의였다.

2. 무지개교회에서 구현되는 기독교적 이상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것을 규범적인 가치로 공유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무지개교회 공동체가 많은 성소수자 교인들에게 단순히 종교적 공동체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며 LGBTQ 커뮤니티로서의 측면도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로서의 성격은 분명히 이 공동체의 지향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구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신다'와 같은 신성에 대한 인식은 이들에게 성소수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긍정을 요청하며 교회의 성원이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문턱을 현저히 낮춘다. 이는 다른 성소수자 커뮤니티 공간과의 차별점이 되어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사람들을 무지개교회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신에게서 인정 받은 천국에서의시민권은 이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내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확장케 한다.

1) "차별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의 왕국에는 호모포비아도 없고, 주변화(marginalization)도 없습니다." -Paul 목사, 2013년 12월 15일 주일예배 보통 기독교에서 가장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기독교적 담론에서는 선/악과 성/속의 구분이 확실하게 등장하며 자주 강조된다. 이는 천국/지옥, 정결함/더러움, 믿음/불신, 그리스도/적그리스도, 하나님/우상, 절제/방탕, 사랑/증오, 빛/어둠등의 하위 이항구도로 확장되기도 한다. 기독교에서 신의 세계를 가리키는 표지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교회, 거룩함등이 그것이다. 한편 성(聖)의 영역이 하나의 단어로만 표현되지 않듯이 속(俗)의 영역도하나의 단어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 및 실천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대비되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들로는 '(악한) 세상'이나 '(유한한) 인간', '(은혜가 없고 고통만이 가득한) 지옥'등이 있다. 이론적으로 말할 때 기독교적 이분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속의 영역에 대한 부정을 통해 성의 영역을 규정하고, 성의 영역과 다른 곳으로서 속의 영역을 규정하게 된다. 한국 개신교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성화된 공간이나 사람으로서의 성격, 다른 영역으로부터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구별된' 성격을 강조한다.

다른 여러 교회의 규범적 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지개교회의 공식 설교에서도 "세상적인(worldly)"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종종 드러난다. 그러나 일반 교회와 무지개교회 사이의 차이는 그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다. 한국 개신교의 주류 교회에서는 교회 밖 사회 자체를 '세상적인 것'으로 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지개교회 내에서는 이 '세상적인 것'이 보통 "일반 사회"라는 말로 표현되며 여기서 "일반 사회"가 반드시 '교회 밖 모든 곳'과 등치 되지는 않는다. "일반 사회"에서 하나님의 원래 뜻과다르게 나타나는 악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하고 힘없는 이, 병든 이, 소수자에대한 차별과 배제, 폭력이다. 이 '보수적인 사회'와 달리 하나님(혹은 기독교적 공동체)은 빛과 위로를 제공해준다. 비록 '천국'이라는 말은 자주 쓰이지 않지만, '천국'이나 '하나님나라'처럼 마치 특정한 시공간을 상정하는 것 같은 단어를 쓸 때 교인들은 앞에서 말한 '일반 사회'에서 누리기 어려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소망하는 것들의 집합체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주요하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묘사는 '차별이 없는 공간'이다. 요컨대 무지개교회 교인들의 인식에서 가장 주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라는 원칙을 강하게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서 물리적 공간이라는 응축적인 형식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차별이 없는 곳이기를 기대받는다. 실천 차원에서는 문화적 • 언어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생기는 실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는 공식적인 종교 의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기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무지개교회의 성찬식 진행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영성체를 받을 수 있고 개신교회에서는 등록된 세례교인만이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무지개교회에서는 의식적으로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모두'라 함은 무지개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성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독교적 세계의 성원권을 나타내는 표지인 세례 여부에도 관계없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모든 사람을의미한다. 무지개교회에서는 창립기념예배나 성탄기념예배 같은 특별예배를 비롯하여 비정기적으로 성찬식이 행해지는데, 여기에는 세례교인과 세례 받지 않은 기독교인, 그리고무교나 타 종교인을 포함한 비기독교인도 (원할 경우) 자유롭게 참여한다.

[사례 IV-8] 교회창립 2주년 기념 주일예배 성찬식 중 통역자의 발언

어 오늘 성찬식,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세례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이렇게 성찬식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함께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절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성찬식을 가졌던 저 의미 있는 사진처럼 우리 모두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며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성찬 식뿐만 아니라 설교나 토론에서도 상기된다. 특히 무지개교회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적 담론에서는 더욱더 차별금지 원칙이 강조된다.

[사례 IV-9] 주일예배 설교 중 Paul 목사의 발언

We will exclude those who exclude people living with HIV/AIDS, women, prostitutes, LGBTQ people-all the Q-, our straight allies. In other words, anyone who are in favor of exclusion of excluded. Not because we hate them but because we are about the kingdom of God. (우리 교회는 HIV/AIDS 감염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 LGBTQ-모든 퀴어들-, 이성애자 지지자들을 소외시키는 이들, 다시 말해 소외된 이들이 소외 다하는 것을 찬성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교회의 담론 장에서 차별과 배제는 매우 거룩하지 못한(ungodly) 것으로 취급되며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는 외부 사회가 성소수자들에게 가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내적 비판이기도 하다. 또, 포괄적인 차별금지 원칙이 전면에 나오면서 성적 다양성은 성적 다양성 자체의 특수성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그보다 범위가 더 큰 다양성 안에 '여러 종류의 다양성 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된다. 이는 '권력에 의한 배제'를 '성소수자'라는 범주가 갖는 성격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사회문화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단에 대한 연대감을 교육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규범에 대한 논의가 자동적으로 유토피아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무지개교회에서도 분명히 갈등은 존재하고 이 갈등은 1차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차이에 대한 가치판단에 권력관계가 개입되고 사회 일반에 존재하는 구조적 위계와 연결될 때이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히 한국인 중에) 나이가 더 많은 교인이 자신보다 어린 교인들에게 연장자 노릇을 하려 들 때 '동생'의 위치에 처해지는 사람 중 일부는 이를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나이가 평균보다 너무 많아도 소외감을느끼는 경우가 존재했는데, 이때는 특히 커뮤니티 내 연애시장에서 연령에 얽힌 권력관계와 연관되어있다는 점에서 이를 차별적인 문제로 느낄 여지가 있었다. (비교적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젊고 잘생긴 사람에 대한 욕망과 인정이 교회에서도 존재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실망감을 느꼈다. 53 이는 교회에서만큼은 돈이나 외모등 세속적인 기준에서 개인이 가진 '자본'에 따라 차등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도덕적 잣대를 들어 말투나 직업 등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특성 및 조건에 대해 판단하려 든다고 느껴질 경우 해당 개인은 그것이 '부조리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인 사례(고민)들은 모두 공론장에서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개인의 몫으로 돌려지거나 비공식적 자리에서 다루어진다. 이때 사람들간의 갈등은

⁵³ 물론 이러한 상태가 영속적인 것은 아니며, 몇몇 연구참여자들이 지적했듯이 "일부 어린 게이들"이 외적 매력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 같은 태도가 교회에서 만연한 것은 아니다.

교회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충돌로 그려지고, 이에 대한 정보 역시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장 자체에서는 이러한 갈등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만 소용돌이 치는 편이다. 또 이런 개별적인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회 내 공식적 담론(설교, 기도문, 전체 토론)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제되고 관리되는 경향이 있다. 반차별이라는 당위적 규범이주기적으로 상기되면서, 방심할 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개개인의 차별적 태도나 언행이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는 것이다.

2) 다른 성소수자 커뮤니티 공간과 다른 점

사실 무지개교회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표현에 대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공간은 아니다. LGBT인권단체나 바, 클럽 같은 다른 성소수자 커뮤니티 공간에 서도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무지개교회에서 나타나는 관계 역학은 인권단체나 클럽 씬(scene)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먼저 성소수자 인권 증진 활동을 주 목표로 하는 단체에서는 참여자가 교육된 활동가적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감정을 느끼기 쉽다. 또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 차원에 서 합치된 의견을 만들어야 하며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때 '활동'은 그것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일'이 된다. LGBT인권활동을 하는 단위에서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가 정립되고 난 후부터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연행해야 할 이미지 를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 설사 결과적으로는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한다 하더 라도 최소한 어떤 역할을 해내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공유되는 것은 변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자아는 사회적 경험의 바깥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적 경험과의 반 추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미드의 자아이론(미드 2005[1934])을 이 상황에 적용 했을 때, 여기서 일반화된 타자의 태도를 조직화한 결과물인 객체로서의 자아(Me)는 '책 임을 수행하고 고민하는 주체'이다. 이 자아(Me)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에 해당하는 주체 로서의 자아(I)가 LGBT 인권운동이라는 사회적 경험의 장이 부과하는 자아상(Me)에 어 떻게 반응할지는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분명 하다.

반면 교회라는 공간의 관계역학에서는 자신과 타인 외에 '주님'이라는 제3자가 개입된다. '주님'은 이들의 인식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이며,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위와 같은 신성관은 역할 기대에 대한 긴장을 줄여준다. 또 각

자 종교적,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곳을 찾는다는 점은 무지개교회공동체가 하나의 사회운동 단위로서 외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을 줄여준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자신이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무지개교회를 '쉬러 오는 공간' 혹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려 한다.

[사례 IV-10] 정시윤(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정시윤: 솔직히 말하면, 수평적 관계라고 느껴져요.

연구자: 교회가?

정시윤: 응. 교회에서.

연구자: 다른 커뮤니티는?

정시윤: 수직적이에요, 아무래도. 그나마 S단체⁵⁴가 낫다지만 거기서도 수직적이거든요. 체계화된 곳에서는 늘 권력이 생기기 마련이고 거기서는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 기본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기 오는 자체에서는 솔직해지는 거 같아요, 나도 모르게.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할 필요 없겠구나 싶어요.

연구자: 그럼 교회 외의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거짓말들을 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정시윤: 어… 거짓말.

연구자: 굳이 거짓말 아니더라도 솔직하지 않을 때. 어떨 때 솔직하지 않아요?

정시윤: 잠시만요. (17초 정적) 응, 오케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결국에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게 되는 거 같아요. 자신이 사실 다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자기가 나가고 자기가 만드는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가만 보면. 자기가 만들어내고 거기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는이미지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래요. 제가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미지가 되게 발이 넓고 인기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런 이미지,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던 이미지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온전히 나로서 이 교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굳이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에요. 나는 주님과 만나러 온 거에요.

⁵⁴ S단체는 1990년대 후반에 생긴 대표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로, 정시윤씨는 오랫동안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해왔다.

물론 시윤의 사례에서조차도 그가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인정을 받는 데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권단체에 있을 때에 비해 교회에서 그는 의무감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한편 사회운동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 개의 소규모 모임이 돌아가거나 캠페인을 기획하는 인권단체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이쪽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인게이/레즈비언 바나 클럽 씬(scene) 역시 상당히 강한 압력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도 비교적 쉬운, 비가시적인 소수자(invisible minority)로서의 성격이 있다. 55 대다수의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제외한 일상에서 밝히지못하고 숨기며 살아가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연애상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비교적 아우팅 위험이 없고 통제된 안전한 공간으로 한정된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자 커뮤니티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게이/레즈비언 바나 클럽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1:1 메시지나 게시판 활동을 통해 직접 1:1 만남이나 친목 "번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만남과 바 및 클럽 씬(scene)은 대체로 연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클럽에서 유통되는 연애적 가능성은 종종 과잉성애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 연애 시장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얻는 것은 대체로 외적인 매력을 통해서인데, 외모중심주의는 특히 게이 커뮤니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클럽과 달리 교회는 누구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을 기대 받는다. 로맨스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상정되는 공간이 아니라, 1차적으로 종교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성원들은 노골적인 연애적 긴장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무교를 포함한 비기독교인 중에서 클럽이 아닌 다른 공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이는 강한 유인이기도 하다.

[사례 IV-11] Partick(30대 초반, 미국인, 시스젠더 게이, 불교) 인터뷰

I really wanted to be in touch with some healthy groups of, you know, gay

⁵⁵ 트랜스젠더나 젠더퀴어는 시스젠더 비이성애자들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타인의 상상 속에 '퀴어' 카테고리가 들어있지 않는 한 여성 혹은 남성 둘 중의 하나로 '결정되곤' 하며 많은 트랜스젠더는 스스로도 "진짜 여자/남자" 혹은 "그냥 여자/남자"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people who are spiritual and who want to have a healthy one. Not just people pretending to be gorgeous, pretending to be cute and bitchy, going to the clubs and trying to have sex all the time. I'm tired of that. I wanted something healthy, you know.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 영적인 게이들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 멋있는 척, 매력적인 척, 잘나가는 척하면서 맨날 클럽 다니고 섹스만 찾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거에 지쳤어. 뭔가 건강한 게 필요했어.)

Patrick을 비롯한 비기독교인 성소수자 교인들에게 '무지개교회'는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영성 일반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건강한" 혹은 "착한" 사람들을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요컨대외모나 재력 등 외적인 조건이나 연애 상대로서의 매력에 따라 커뮤니티 내에 경쟁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좌절감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커뮤니티"에서사랑 받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했던 경험과 무지개교회의 관계역학은 대비를 이룬다. 교회는 바나 클럽과 비교했을 때, 외모나 재력 같은 외적인 조건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비교적 평등하게 친교를 할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 '잘나가는 척'을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이곳에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수 있었다.

3) 사회적인 것에 대한 경험

교인들 중 일부는 이전까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로 차별적 사회구조를 혼자 감내하거나 경쟁적인 연애 시장에서 잠재적 연애 상대를 찾으며 스스로를 외적으로 더 꾸미는 데에만 신경을 썼던(써야 했던) 과거의 시공간과 현재의 교회 생활을 대비시키며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찾아가기도 한다. 특히 무지개교회 공동체를 알기 전까지 인터넷 친목(사교) 커뮤니티나 클럽 외에 존재하는 LGBT 인권운동 담론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나 실제로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무지개교회는 '사회적인 것' 혹은 성적시민권에 대한 탐구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 자체에 집중한 반면, 이를 기존의 젠더 및 섹슈얼리티 규범에 의해 사회적 차별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연결시키고 사회에서 권력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연대적 욕망의 발현은 시민권, 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발전될 수 있게 된다.

이 '사회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 외에도 있기는 하지만 근래로 오면서 커뮤니티 씬이 점점 더 개인주의 쪽으로 움직였고 그로 인해 이곳에서 퀴어라는 주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주체성으로 연결시켜 나가기가 어려워졌다. 90년대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생겨났을 때는 성소수자의 가시화와 커뮤니티만들기의 목표가 동시에 추구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발전하고 나름의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커뮤니티"와 "운동판"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다. 연애를 비롯한 친목과 정보 교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연애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놀이공간인 클럽에서는 반드시 성소수자로서의 정치적 주체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클럽 씬에서 나타나는 관계 맺음의 양상이 더욱 개인화되고 경쟁적이 되면서, 클럽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다.

[사례 IV-12] 루이스(30대 중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옛날에는 잘살거나 못살거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정말 이렇게 바에 가면 다 하나의 패밀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안에서 새롭게 계급화되더라고요. 어, 있는 애들 없는 애들.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밖에서 못 받는 대우를 안에서 받으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같아요. 그니까 사실상 제일 좋은 건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면은 자족하는, 밖에서 받은 상처를 우리가 안에서 같이 핥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밖에서 억울했던 걸 이 안에서만큼은 동일하게 대접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오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안에서는 저징(judging)당하지 않아'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어느 순간 밖에서 못 받은 대우를 안에서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진짜 다같이 놀았어요. 지금처럼 클럽이 재미없지 않았어요. 지금은 클럽 가면 재밌게 노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여자애들은 하나같이 다 너무 의식하고 추고 부치(butch) ⁵⁶들은 하나같이 "허어"(멋있는 척하는 듯한 동작을 하며) 이러고. 근데 우리 때는 그냥 미친 년이 미친 년이야. 그냥 미치게 놀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LGBT 인권운동 진영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성소수자 모델은 "커뮤니티" 씬의 중심에 오기 어렵다. 일례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⁵⁶ 부치(butch)란 레즈비언 커플에서 보다 남성적인 특질을 띠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에 대비되는 항이 팸(femme)인데, 모든 레즈비언이 부치/팸 구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2014)에 따르면 LGBTT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802명의 응답자가 꼽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나 기대'는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 간의 친교 (79.3%), 연인을 찾고 안전하게 사귈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39.1%),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유통(35.0%),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려고(15.2%), 삶의 롤모델을 찾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자원 공유(8.3%), 기타 (2.1%) 순으로 드러났다. 57 집단적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자동적으로 보다 큰 차원의 정치적 주체성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만나서 친목을 다지고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사회정치적 주체의 탄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지개교회는 1차적으로 종교적 공동체의 성격을 띠기에 담론 장에서 인간과 세계(사회)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여기에 더해 설교나 토론 시간에 성소수자 차별 철폐와 관련된 내용이 종종 다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위를 매개로 하여, 퀴어로서 '사회적인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억압과 폭력의 경험에 대한 공감과 위로, 애도는 '사회적인 것'을 향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추동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때 무지개교회에 출석했었던 교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인들이 심리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생전의 고인을 실제로 만나보거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교회공동체가 식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 후 교회에서 진행된 고인의 추모예배에서 사람들이 고인에 대해 회고하며 남긴 말에는 대체로 '미안함-평안한 사후에 대한 기원-고인 덕분에 배울 수 있었던 점'의 내러티브 구조가 공통적으로드러났다.

[사례 IV-13] 고(故) 박재정 형제 추모예배 설교 후 기억을 나누는 시간

Heather: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지금 아마도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었던 일이나 말이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다. 몇 달 전, 나와 애슐리(Ashley)는 재정이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때 개한테 고민 있거나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교환했

⁵⁷ 참고로 해당 문항은 2개 이하 복수 선택이 가능한 문항이었다.

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인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귀찮았거나, 아니면 그 순간 그 아이가 꽤 괜찮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사님 말이 맞았다. 재정이는 괜찮지 않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을 위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재정이를 통해 그것을 배웠다.

대비: 재정아.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봐주고 불러 줬어. 지금보다 더 남자 같았던 때였는데도 너는 나를 처음부터 누나라고 불러줬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어. 너를 귀찮게 여기고 잘 못해줘서 미안해. 네가 말을 쳐 안 들으니까… 미안해. 너로 인해서 더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 아무도 이해를 못해주는 사람도 나라도, 나만큼은 이해하는 사람이 될게. 꼭 그렇게 살게.

고인에 대한 추모사들의 종결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앞으로 화자 자신과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짐이다. 이러한 다짐은 위에 제시된 추모예배 사례외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특별 예배 때나 세계에이즈의 날 특별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로 풍부하게 논의되었다. 앞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의 형성은 '사회적인 것'에 해당하는 지지망에대한 필요성 자각으로 이어지는데, 교회에서 이 '사회적인 것'을 수호하는 일을 종종 종교적인 소명이라는 틀로 해석된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종교적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전도, 다시 말해 복음 전파인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교회 바깥의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지개교회에서 전도는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편이다. 대신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대외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비정기적으로 피자 파티나 오픈하우스 행사를 함으로써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지역 사회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무지개교회를 알리려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성격의 행사에서 교회의 종교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고, 무지개교회 내 기독교인 구성원들은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교회로서의 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단순히 교회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사회운동적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외활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성소수자들의 성적 시민 권 획득과 관련된 활동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참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성소수자 및 지지자 기독교인들과의 연대활동 등이 있다. 또 간헐적으로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보수 기독교 진영과 논쟁

이 있을 때 교회 대표로서 목사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교인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호명되며 퀴어한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실천에 참여하게 된다. 이 실천은 많은 이들에게 정치적 실천인 동시에 종교적 실천이다. 무지개교회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성적 위계 체제의 주변인으로 경험했던 억압받는 주체로서의 감각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교회 공동체라는 종교적 자원의 도움을 받아 저항의 동력으로 승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퀴어성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인식과 기독교에 대한 개방적신앙 인식은 상호형성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연구에 참여한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하는지는, 성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과 관련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담론을 다룬 5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V. "교회다운" 투쟁방식: 성적 시민권의 획득을 위한 전술들

지금까지 연구자는 무지개교회의 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관념 세계 안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위치시키기 위해 어떤 내러티브로 자신을 서술하는지, 그리고 무지개교회라는 공동체 내 상호작용이 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여 퀴어 기독교인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적 · 공동체적 실천의 연장선상에서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적 시민권은 어떻게 개념화되며 사람들은 어떤 전술을 사용하여 이를 획득하려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전술은 실제로 보다 포괄적인 성적시민권 모델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본 장에서는 무지개교회의 성소수자 교인들이 교계는 물론이고 전체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 및 쟁취하기 위한투쟁에서 어떠한 전술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1. 타자에 대한 정의

이곳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무지개교회가 "일반 사회"와 다르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여기서 "일반 사회"는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가 만연하여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인 구조가 해게모니를 쥐고 있는 공간이다. 이들이 기독교적 세계는 물론이고 전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할 때 그들을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담론은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저항은 결코 권력의 외부에 놓여있지 않다는 푸코(2010[1976]: 104)의 말처럼, "보수기독교 호모포비아"들의 레토릭과 활동은 퀴어 기독교인 주체성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conditioning) 요소로 작동한다. 무지개교회에서 "보수 기독교"와 "우리(무지개교회)"는 이항구도를 형성하며 대비적으로 정의된다. 이는 성소수자 교인뿐만 아니라 비성소수자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요컨대이들은 무지개교회와 대비되는 타자를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부정으로서 자신들의 공동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성적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아구분은 정치적 주체성의 형성을 촉진한다. 그 동안사회와 교회에서 타자화되었던 이들은 '사랑'과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의) 이해'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을 기독교와 사회의 '더 나은' 시민으로 새로이 위치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박해자인 사람들을 타자(Other)의 위치로 옮겨놓는다.

1) 혐오와 사랑의 대비

Love is the only weapon we have. (사랑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 Elly,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예배 전체토론 중 발언

무지개교회 공동체에서 "보수 기독교"란 대체로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 시민권의 확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이끄는 집단이며 도그마(를 둘러싼 특정한 해석)에 대한 맹신을 토대로 혐오와 차별을 자행하는 주체로 개념화된다. 이들의 담론에서 '혐오'는 '사랑'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나 "저들은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한다"와 같은 수사를 통해 이들은 자신들을 포용적인 사랑의 실천주체로 위치 짓는데, 이는 기독교인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기독교인인 성원들에게 이것의 원천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종교적참조점이 추가된다. 이런 점에서 사랑과 혐오를 대비시키고 이를 자기 집단과 적대적 집단의 성격에 대입하는 수사 체계는 이들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한다.

혐오와 함께 사랑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또 다른 정동(affect)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반성소수자 입장을 가지고 있는 보수기독교인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다⁵⁸. 반성소수자 진영에게 두려움이 '이 사회가 퀴어한 사람들에 의해 오염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외향적 감정이라면 성소수자 당사자들이느낄 수 있는 두려움은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는 데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보다 내향적인 감정이다. '퀴어한' 존재에 대한 구조적 및 직접적 폭력에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사회의 정당한 시민의 위치를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을 느낄 때,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이 된다.

다시 말해, '사랑'은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내재화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동시에 인간인 자신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때는 "포비아(혐오) 세력"의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재의미화된다. 이러한 두 차원에서 '사랑'은 퀴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담론적 투쟁에서 규범적으로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에토스이다.

[사례 V-1] 주일예배 중 한진주(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의 기도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지 않은 사

⁵⁸ 후자 그룹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원희(2013) 참고.

람들 또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퀴어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는 차별 받고 있지만 우리의 행복을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울기 시작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어제 그렇게 반대시위를 하던 그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정말…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계속해서 안아주시옵소서. 모두의 하나님인 당신께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옵소서. 당신의 넓은 품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그 넓은 품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사랑'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 싸워야 하는 상대를 지목했을 때, 이들은 스스로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놓는다. 위에 제시된 한진주의 기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성 기독교 헤게모니에 의거한 자아(Self)—타자(Other) 관계에서 타자의 위치에 처해있던 이들이 자신의 종교적 시민권과 사회정치적 시민권을 되찾고 자기 서사를 새로 쓰려고 한다면, 그 전까지 '중심'에위치해 있던 이들의 역사도 새로 쓰일 것이 요구된다. 이는 교회 내에서 기존의 종교적시민권이 구성되던 방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종교적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무엇이 '신실한' 것이며 무엇이 신실하지 않은 것인가?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으로 꼽고 사랑 외의 모든 규칙과 조건을 당위의 영역에서 삭제할 때, '사랑'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신실하지 않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는 일면 이분적인 문법을 가져와서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행태로 보이는데, 이 것은 기독교적 인식론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보면 이들이 여전히 자아-타자 구도를 관습적으로 패러디하며 양자의 위치만을 바꾸려 시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무지개교회의 교인들은 성적인 순결이나 이성애규범의 준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인정하는 "급진적으로 포괄적인 사랑"을 유일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류 기독교계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담론에서 말하는 "정결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 모델을 규범적위치에서 끌어내린다는 점에서 무지개교회 교인들의 레토릭에서 나타나는 자아-타자 구도에서는 전복적인 패러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2) 무지와 이해의 대비

사랑에 반대되는 내부적 감정인 두려움과 외부로부터의 정동(affect)인 혐오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무지'이다. 비규범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결부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인들은 "그땐 내가 아는 게 없었으니까"라는 이유를 자주 제시했다. 이 무지는 3장에서 이미 설명한바 있는 지적 탐구나 다른 성소수자와의 만남을 통해 해소되고,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앎"으로써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때 진정한 신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 퀴어성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조화를이끌어 낸 것이 보다 발전된 '이해'의 상태라면,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호모포비아기독교인"들은 '무지한 사람들'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무지개교회의 교인들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유를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 '무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부 교인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3장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무지개교회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이에 반해 "호모포비아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신으로 그려진다. 신성에 대한 "진정한"이해를 둘러싼 의미투쟁에서 무지개교회 교인들은 "보수기독교인"들이 신을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오해 및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례 V-2] 2014년 6월 8일 주일예배

이날은 평소와 달리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후 3시에 주일예배가 있었는데,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둘러싼 갈등에서 반성소수자적 입장을 보이며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은혜교회(가명)에 항의의 뜻을 보이기 위해 일부 교인들이 그 교회의 주일예배에 함께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무지개교회로 돌아온 이들은 해당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자신의 소감을 나누었다.

앤디: 어… 그니까 그들이 주님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주님에 대한 그 본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진주: 굿뉴스(Good News⁵⁹), 굿뉴스.

Paul 목사: 맞아요. 굿뉴스를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위 사례에서 퀴어퍼레이드 반대 캠페인을 벌였던 기독교인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앤디의 말은 어떻게 보면 반성소수자 기독교 진영이 자신들을 향해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혐오를 멈추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비판하는 것에 대응하여 내건, "우리는 여러분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것이다"라는 수사를 떠올리게 한다. 양측 모두 서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보며 그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무지개교회 교인들이 보는 자신들과 타자 사이의 벽은 반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소수자와 자신들 사이의 벽보다 얇은 편이다. 무지개교회에서 "보수기독교인"들은 신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절대악으로 그려지지는 않으며,연구참여자들이 설정한 기독교적 '자아(Self)'와 '타자(Other)' 사이에 해소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재현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옳다는 주장에 어떻게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 모델을 반박하기 위해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참조하는 주요한 근거는 자신의 경험이다. 무지개교회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었다.

[사례 V-3] 양지선(20대 중반, 한국인, 시스젠더 여성 양성애자) 인터뷰

연구자: 아까 친구들 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게 된 친구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선씨는 그런 적 없어요? 포비아적 설교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포함해서 약간 퀴 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퀴어를 미워하신다거나' 하는 생각이나 말을 들으면

양지선: 실제, 신기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날 만들었는데 날 미워할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해서 내 정체성,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정체성이라고 할 게 없고 사람이 좋다 그랬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든 규칙인데,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를 결정하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59 &#}x27;복음'을 뜻하는 영어 표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어떤 모습일 때나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묘사되며, 훈육적인 사랑의 모습이 제시되는 적은 거의 없다. 이들의 신앙 내러티브에서 '사랑'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종적인 설명 기제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무지'의 두 번째 차원은 보수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커밍아웃한) 비이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보지 못한 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호모포비아나 트랜스포비아를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우리에 대해잘 모르기 때문에" 보수 기독교인들은 낯선 존재와 사회적 변화를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은 차별과 폭력을 야기 및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안다면 분명히 생각이 바뀌고 차별과 혐오를 멈추거나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V-4] 유지윤(10대 후반, 한국인, 시스젠더 여성 양성애자) 인터뷰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물론 제가 바꾼 건 아니지만, 저랑 계속 부딪히면서 생각이 바뀐 친구들이 하나, 몇 명 있거든요. 한 아이가 "솔직히 좀 별로였 는데, 너 보니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좀 꺼림직하고 그런 건 있는데 제 가 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여자 얘기 많 이 해서 좀 짜증난다고는 하는데 하하. 그래서,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이런 거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대화가 필요한 거죠.

한편, 간접적으로 접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상대와 달리 자신들은 "일반"들보다 더 성숙한 자기 이해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의미화된다. 오래 전부터 자신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여러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해왔으며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에게 "호모포비아 기독교인"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억압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해서 저러는', 안타까움의 대상이기도 하다.60

⁶⁰ 그렇지만 이들이 상대를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성 애중심적이고 이분법적 성별 규범이 확고한 사회의 권력적 소수자로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실질적인 효과를 남긴다. 특히 고용차별 같은 제도상의 실질적인 폭력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무지개교회 내 대부분의 성소수자 교인이 자신의 직장에서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 기독교계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그러한 원칙을 더욱 확고히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기에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원인은 무지함 때문이므로, 그에 대한 대응 방식 역시 토론 및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와 그리스도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들은 외부 사회가 자신들에 갖는 두려움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스스로를 더 많이 알리고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방법은 '교회다운' 방식이어야 한다.

[사례 V-5] 주일예배 전체토론 시간 데비(20대 후반, 한국인, MTF 트랜스젠더 이성애자)의 발언

싸우는 것 다 좋은데. […] 중요한 건 우리 본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데. […]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너희들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고통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무지개교회니까 무지개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싸우기는 싸우되 우리의 방식대로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크리스천"다운 방식인가? 무지개교회 교인들은 이 방식이 무엇인지 합의하는 데 어떻게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하는가?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무지개)교회다운" 전술을 선택하게 되는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2. "교회다운" 투쟁의 방식

앞선 절에서 밝혔듯이, 연구참여자들은 "보수 기독교"와 자신을 분리하고 대비시키며 친(親)퀴어적인 교회 성원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해나간다. 그런데 이들이 인식하는 '차이'는 보수 기독교인과 성소수자 및 지지자 기독교인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소수자들 중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도 존재한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고 성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 중 기독교인 성소수자와 비기독교인 성소수자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종교적 차이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구별짓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교회'

가지고 있었다.

로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달랐다. 교인들은 이 사회에서 교회이기에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사회 차원에서 이들이 채택하는 전술은 교회 공동체 내의 생리와도 공명하고 있었다.

1) 갈등회피적 성격

퀴어의 성적 시민권 획득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무지개교회 교인들이 지지하고 실천하는 대응방식에는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싸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과 갈등을 야기하는 투쟁 방식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사랑'은 자신들의 성적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참여하는 담론적 투쟁에서 퀴어 기독교인들이 규범적으로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에토스이며, 적을 비난하거나 사납게 공격함으로써 싸우는 방식은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사랑과 조응하지 않는 저항의 방식으로 의미화된다. 가장 단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싸우다"는 말을 쓰기를 꺼려했다.

[사례 V-6] 베인(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인터뷰

연구자: 레즈비언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자신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고.

베인: 음… 아, 있어요. 일단 저는, 호모포빅(homophobic)한 이성애자 기독교인들하고 … 싸우고 싶어요.

연구자: 싸움? 어떤 방식으로?

베인: 정말 막 싸운다기보다는 토론을 하고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싶고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대신 "교회다운" 투쟁방식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완성된다. 물론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며 '사랑'의 강령은 때로 이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례 V-7] 유지윤(10대 후반, 한국인, 시스젠더 여성 양성애자) 인터뷰

저번에 설교시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 루이스 언니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것만 하고 그 안에서 내적인 사랑이 없이 이걸 말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했다.) 제가 그 말 듣고 탁 와 닿았던 게,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정의를 위해 싸우면서 그 안에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그랬는데, 그 말이랑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화를 하되 신랄하게 까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힘들죠. 하하. 힘들죠, 사람인지라. (3초 정적) 제가 기독교인이란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질때 가장 힘든 점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힘들어요.

'사랑'은 외부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강령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공동체 내부의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내부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곧 외부("일반 사회")와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는 그 동안 한국 사회 내 성소수자 이슈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 때마다 무지개교회 공동체에서 진행된 대화에서 일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6월 7일에 열린 제15회 서울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싸고 약 일주일간 벌어진 일련의 논쟁에서였다.

2014년 퀴어퍼레이드가 신촌에서 열리기로 결정되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 기독교 인들과 교회, 단체들이 서대문구청에 일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의 강한 강도로 항의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 결과 서대문구청은 결국 2014년 5월 27일에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측에 장소사용 승인 취소 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이에 진보 진영 시민단체와 성소수자 단체 및 소수의 지지 교회들은 반발했고 무지개교회 공동체 역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Paul 목사는 격분하여 강한 대응방법을 제시했는데, 연좌 시위(sit-in protest)가 그것이었다. 그는 퀴어퍼레이드 반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했던 서울의 은혜교회(가명) 주일예배에 가서 침묵시위를 하자고 제안했다. 퀴어 정체성을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고 입에는 검은색 전기테이프를 붙여서 침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으로써 항의를 표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은혜교회 관계자들이 침묵시위를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바닥에 앉아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버티겠다는 것이 그가 처음에 제시한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대해 상당수의 교인들은 의도는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우려 혹은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웃팅 위험 때문에 직접 참여할 엄두 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에 더해 외국인 교인들은 비자 문제가 걸려있어 한국인 교인들보다 더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어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1 무지개교회 내에서는 반성소수자 보수 교회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교인들이 크게 세 가지 의견 그룹으로 나뉘었다. 당시 활발하게 예배에 출석하던 교인 중 가장 다수에 해당하는 이들은 상대 교회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비해 소수의 교인만이 Paul의 시위 계획을 지지했다. Paul 목사가 SNS 계정에 올린 시위 계획에 댓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혔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개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었다. 나머지 다수 교인은 참여할지 안 할지 망설이거나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면충돌이 비효과적이며 대립으로 그들 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앞으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저항 방식이 '사랑'의 원칙과 조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했다.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보수 기독교인 역시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그들을 단일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무조건 '적'으로 취급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일면 앞에서 설명한 '분명한 피아구분 인식'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타자를 규정하고 그것의 부정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고 해서 그 것이 반드시 갈등적 관계의 추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무지개교회 교인들에 게 "보수 기독교인"들은 폭력의 주체이자 짜증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동시 에 교육해야 할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 이다. 이에 반해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소수의 교인은 첫 번째 그룹에 비해 보수교회 를 명확한 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 만 이들의 경우에도 모두가 Paul 목사가 처음에 제시한 '시위'의 형태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시위의 방식 자체보다는 성소수자 기독교인을 없는 존재 취 급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항의행위로 여겨졌다.

사실 이 일련의 논쟁 과정에서 무지개교회 교인 중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장 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보

⁶¹ 외국인 교인들은 한국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그것이 불법시위로 간주되는 경우 비자 갱신을 받지 못해 추방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수 교회에 대응하기 위한 Paul 목사의 제안에 관심이 없거나 아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쉽사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관망하거나 비공식적인 세팅에서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배 중 토론이나 광고 시간 등 교회의 공식적 장 자체에서는 이 시위 계획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배 후 친교시간을 비롯하여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삼삼오오 이야기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넌지시 이 주제를 꺼내곤 했다. 처음 제시된 시위 방식에 대해 우려를 느낀 교인들 중 일부 소수는 Paul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지문에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다. 그런데 시위와 관련된 공지와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게시판에 한국인 교인 앤디가 반대의견을 올렸을때 상당수의 교인이 해당 교인의 게시물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댓글을 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평소에도 교회 내 공론장에서는 내부의 잠재적 갈등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인데,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에서도 다수 교인들의 말에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컨대 Paul 목사가 처음에 제안한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의견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이해가 된다"거나 "I'm not trying to say against it, but...(내가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지만…)"과 같은 표지를 꼭 붙이곤 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견은 조정되었고 Paul 목사의 제안은 '시위'가 아닌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갈등회피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교회다운" 싸움의 방식에 대해 '~이 아니다'라는 부정적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직접적인 충돌과 갈등을 회피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보수 기독교인"이나 "일반 사회"를 설득하고 성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시킬 수 있는가?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이 무지(즉, 편견과 오해)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지의 해결 즉 교육으로 귀결된다. 이 교육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인 동시에 진리(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육이라는 두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종류의 교육 모두 그것이 수행되는(수행되어야 할) 주된 방식은 같은데, 이는 '삶으로써 보여주기'라는 말로 수렴된다.

2) "삶으로써 보여주기"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려는 대신에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퀴어퍼

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에서 반성소수자 입장을 가지고 퀴어퍼레이드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교회에 대해 무지개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참고해볼 수 있다. 두 번의 시위 준비회의 끝에 결국에는 Paul 목사의 침묵시위 계획이 변경되었고, 더 이상 그것은 '시위'라는 이름을 달지 않게 되었다.

[사례 V-8] 2014년 6월 6일 무지개교회 온라인 그룹에 올라온, 퀴어퍼레이드 반대 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은혜 교회(가명)에 대한 대응 행동 최종 공지⁶²

중요 공지(꼼꼼히 읽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번 주 일요일(6월 8일) 11시 행사에 대해 제3의 안을 선택했습니다. 시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참가자들로서 은혜교회 11시 예배에 나가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입에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피켓을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퀴어이며 그걸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결정을 바꾼 이유는 LGBTQ를 위한 정의 문제에 관해 은혜교회 지도자 두 명, 교인 세 명과 대화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화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를 하는 것은 이 대화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반면에, 퀴어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강한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며 이곳에 속한다는 것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일에 참여하실 모든 분들께 다음의 지침을 따라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 가이드라인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메시지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성격을 띠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 은혜교회 교인들과 접촉할 시, 완전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목소리 크기, 말하는 내용, 신체적인 제스처나 표정 등 모든 면에서요. 절대 욕설을 써서는 안되며, 우리에 대한 말을 듣게 될 경우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사 그 말 들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호모포비아를 담은 말이라 하더라도요. 모든 접촉과 교류 에서 우리는 평화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할 것입니다.

⁶² Paul 목사가 쓴 본 공지문은 원래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이 모두 게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한국어 번역문만 인용했다.

- 2. 욕설이 적혀있는 옷은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 3.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퀴어 혹은 지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눈에 확 띌수록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을 덮는 기능을 하는 옷이어야 하며, 성적으로 노골적이지 않은 옷이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 4. 만약 예배 자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 5. 예배당 안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본인 이름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 6. 행여나 은혜교회 교인 중 누군가가 폭력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위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해도, 그교회나 개별 교인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략이 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의도와 우리의 모든 인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공지를 읽고 동의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또 친구들도 초대해주세요! 내일 퀴어퍼레이드에서,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 자리에서 만나요.:)

항의 방문의 성격이 위와 같이 바뀐 것에 대해 많은 교인들이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물론 여전히 여러 위험 요소들로 인해 실제로 6월 8일 아침에 은혜교회에 함께 간 사람 은 그리 많지 않았다. 무지개교회 교인 중에는 Paul 목사를 포함하여 총 5명이 퀴어 정 체성을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고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 은 딱 하나로, "퀴어이면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 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날 은혜교회에 가서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기만 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오후 무지개교회로 돌아와 Paul 목사는 자신들이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으로) 성공했 다"고 말했다.

요컨대 상대 세력의 무지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접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살아있는 실체 자체로서의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혹은 성소수자-이자 기독교인-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라는 인식은 무지개교회 교인 대부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논쟁이아니라 그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미지와 다른 예를 직접 봤을 때라는 것이다. 운동방식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현실적인 제약에 의한 면도 있다. 먼저, 시위 같은 직접적인 충돌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웃팅 위험과 직접적인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른 개인적 부담이 크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동안의 경험과 추측을 기반으로, 직접 면 대 면으로 부딪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자가 전제 및 입장 차이가 너무 크 기 때문에 논리로 반대 진영을 설득하려는 것은 소모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고 생각할 때 이들이 반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을 구조적 언어(즉, 신학적 논리)로서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거나 '그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단 신학이다'와 같은 말 한마디면 대화가 금방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부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정한 어떤 삶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논리적으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기독교인과 반성소수자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성에 대한 이해 중 공통적인 명제들이 있는데, '옳으신 하나님'이나 '창조주 하나님'등 등이 그것이다. "신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제에 맞서기 위해 무지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퀴어인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삶의 정당성을 삶 자체로 증명해야 하는 맥락에서 이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선언은 곧 정치적 주장의 궁극적 핵심이자 도착점이 된다.

[사례 V-9] 해달(20대 초반, 한국인, 시스젠더 게이) 인터뷰

나는, 그 신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퍼레이드에서 다들 막 이렇게 '와 아' 했잖아요. 그 광경 자체가… 진짜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게다가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옆줄에 있는 (호모/트랜스)포비아들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 네,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우리는 옆에서 열심히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용이 없다고 느꼈을 거에요. 그리고 약간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우리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는 이렇게 너무 강한 열정을 뿜어내고 있고 이렇게 생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아무리 너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갔잖아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말이 좋아요. 그래서 그 스티커 좋았어요. '여기 레즈비언 있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싸우기는… 너무 싫어요. 그냥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정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눈

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관철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거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금융처럼 말고 실물자산이 되는 거에요. (웃음) 진짜로 있으니까, 주변에.

해달의 내러티브에서 그들이 "실물자산"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反)성소수자 진영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등장한다. 이것은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가 이 사회의 정당한 일원이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전략과는 다르며, 많은 언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이나 "동성애는 치료될수 있습니다"와 같은 말에 의학이나 심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면으로 반박하며 '동성애자도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다. 퀴어는 "그냥 존재할" 뿐이며, 신은 그러한 퀴어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들의모든 설명은 완료된다. 이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로 연결된다.

[사례 V-10] 성경공부 토론시간

한진주: 내 생각에는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렸다. 나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우리의 존재는 이 세계의 경계(범위)와 지평(관점)을 넓힌다. 왜냐면 우리는 '예외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웃사이더다. 우리는 우주를 더 넓게 만들고 있다.

Paul 목사: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

진주의 발언 내용에서 "우주를 더 넓게 만드는 것"은 퀴어의 존재함 그 자체이며, 퀴어의 사회적 인정은 주류로의 편입보다는 우주 자체가 넓어짐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는 '삶으로 보여주기'를 강조하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낼(재현할) 지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무지개교회의 성소수자 기독교인들 중 상당수는 성소수자들이 "일반 대중" 사이에서 과잉성애화된 이미지로만 그려지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면모를 보지못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모습"이란 무엇인가? 어떤 이들에게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는 것을, 어떤 이들에게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회 공동체 밖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각자

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성소수자 기독교인 모델"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규범성(normativity)이 제시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무지개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포용적 사랑'의 에토스 외에 특정한 라이프스타일 이 규범적 당위로 등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시 말해. 무지개교회에서도 설교나 기 도문, 토론 등을 통해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거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같은 행동강령 이 전달 및 교육되기는 한다. 그러나 규제적인 성격을 띠고 미시적인 차원에서까지 교인 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의 개입은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 예를 들어 클럽 에 가거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기도를 자주 하거나 매일 성경을 읽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 '신실함의 척도'로 여겨지는 기준들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인정하는) 것이 이곳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 졌다. 모든 교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분절화된 자아가 아니라 통합된 자아로서의 자기설명 및 재현을 향한 욕망이다. 항상 게이바에서 잠재적인 섹스 파트너 를 찾는 이들로 그려지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외부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레즈비언이 라는 점에만 집중되어 비춰지거나. 얼마나 "진짜 여자" 같은 지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⁶, 살아있는 실체로서 드러나는 것을 꿈꾼다.⁶ 학생들을 가르치고, 때때로 부모님과 싸우고, 진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전공 수 업 과제에 허덕이는, 금요일 밤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클럽에도 가보고, 누군가를 사랑하 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고, 초과근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출이자 독촉 문자에 가슴을 졸이고, 카페에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으로서 말이다.65

63 참고로 MTF 트랜스젠더에 비해 FTM 트랜스젠더나 젠더퀴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너무나도 미미하여 '왜곡'이라고 할만한 현상조차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⁶⁴ 이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지, 찬송가를 부를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아닌지 등등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독실한지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때로는 의심까지도)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솔직한 환경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나타났다.

⁶⁵ 일례로 한 연구참여자는 인터뷰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연구자를 초대했는데, 교회 사람 중 자신의 일터에 와본 사람은 연구자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 같은 사람이 단순히 레즈비언

3. 현실적 한계와 지속되는 가치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서 사는 모습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드러내고 지지를 받는 것과 그것이 교회 담장을 넘어선 가시화와 성적 시민권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공개적으로 LGBTQ로 커밍아웃을 하고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교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무지개교회 사람들은 학교나 일터에서, 종종 가족들 사 이에서도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간다. 2013년 11월 초 어느 일 요일에 국내와 해외의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및 지지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 견에 무지개교회가 참여했을 때도, 행사 준비를 돕고 그들을 무지개교회에 초대하여 주 일예배도 함께 드렸던 교인들 중 상당수가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하고 먼발치서 그 기 자회견 대열에 직접 참여한 Paul 목사와 2~3명의 동료 교인을 지켜보며 마음 속으로 응 원을 하고 있었다. 퀴어퍼레이드라는 축제의 시공간에서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자산"처 럼 실재하는 사람들로 거리에 나왔던 이들이지만, 그러한 축제의 시공간이나 무지개교회 담장 바깥에서는 어느 연구참여자의 표현대로 "뻔한 무지개교회, 뻔한 P교회 빼고는 우 리를 지지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느끼는 게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 장의 제도적 차별을 없애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포용적인 기독 교적 시민권의 이상과 전체 사회 차원에서 실재화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성적 시민권 사이에는 상당한 단절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는 원 인론(etiology)적 내러티브를 통해 이 단절을 메우려고 하거나 혹은 둘 사이의 괴리를 종 교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고 별개의 독립적인 이슈로 생각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 렇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적 관념 세계와 무지개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를 안전하 게 위치시키고 문턱을 낮춘 기독교적 시민권 인식을 확립했던 것이 전체 사회 차원의 성 적 시민권 투쟁에서는 실현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무지개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교회다운" 투쟁방식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어쩌면 무지개교회 자체의 정치적 운동성은 그리 강하지 않다고 말할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권의 확장 같은 사회변화는 말 그대로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측면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인터뷰 장소를 자신의 사무실로 정한 이유를 밝힌 바였다.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무지개교회가 동시대의 풍경을 순식 간에 바꿔놓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의 정치적 운동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 로 무지개교회 교인들이 지지하고 실천하는 "자기 자신으로서 잘 사는 것"을 통해 '존재 로써 증명하기'라는 전술이 교계와 사회에서의 성적 시민권을 재편하는 데 과연 어떤 방 식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관념 세계와 (넓은 의미의) 교회, 그리고 전체 사회에서 자신들의 시민권을 상상하고 실제로 확보하며 결과적으로 성적 시민권의 경계를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역량을 쌓는 데 있어 무지개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기독교적 내러티브 문법 중 하나인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이나 '행위성의 의탁' 같은 템플릿을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할 때 무지개교회 공동체는 실제적인 사례들과 지지집단을 제공함으로써 퀴어 기독교인 주체성 형성을 뒷받침한다. 이때 다른 갈래에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쓰였던 기독교 신학은 역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는 문화적 우주관으로 기능하며 저항의 행위들을 성장시킨다(Ortner 2005). 급진적인 포용을 목표로 한 저항적시민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 '믿음'의 영역에 속해있는 종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유신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퀴어의 성적 시민권을 주장하기 위한 제일의 방식으로 무지개교회에서 추구되는 "자기 자신으로서 잘 살기"라는 전술은 이 정치적 운동의 진입장벽을 현저히 낮춘다. 무지개교회에서는 성스러운 세계에 속하기 위해 성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속(俗)의 정치에서 성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모두가 얼굴을 공개하고 시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담론도 이 공동체에서 규범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그보다 개개인의 자율적 결정과 참여가 더 강조된다. 목사를 포함한 극소수의 구성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인은 교회에서 특별히 맡은 책임이 없으며, 문화적 진입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내부인과 외부인 사이의 경계도 옅은 편이라 조직화된 구조를 가진 단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모두를 받아들인다'는 대전제를제외하면 체계적인 운영 원칙이나 의견의 합치가 부족했던 무지개교회의 성격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다 쉽게 포괄적인 성적 시민권을 향한 정치적・종교적 프로젝트에 초대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동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한다. 각자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이상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름다운 그림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체계나 운영 원칙 없이 흘러갈 때의 문제 역시 분명히 존재했다. 먼저, 교회는 성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실무분담 구조는 자리잡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비롯한 무지개교회의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목사와 통역자를 비롯한 소수 교인의 희생이 필요했다. 이 교회의경우에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한국어 사용자와 영어 사용자 사이에 언어장벽이 존재하는 제약적인 환경이었고 워낙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더욱 품이 많이 들어야 했고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했다. 문제는 오랜 부담과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들이 소진되거나그 외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때, 성소수자 기독교인 시민권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지지의 로커스(locus)였던 교회공동체 자체의존속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실무 체계가 공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운동 성격을 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했기에 품이 많이 들었지만, 교회에 와서 책임(의무)을 수행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많은 교인들에게 무지개교회는 1차적으로 '가면을 쓰지 않은 나일 수 있는 곳'이었지 '여기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하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학 내적논리 차원에서든 조직적으로든 관리 체계가 거의 없거나 매우 유연한 무지개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서의 규모를 키워가거나 대외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해진 템플릿이 없이 더 많은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무지개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기 쉬운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인간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지개교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때로는 다양성과 차이에 기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각자 이 집단 안에서 '의미 있는'역할을 수행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려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다른 사람과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교인 개인 사이의 갈등이 '편가르기'처럼 그려지기도 하며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러한 갈등이 수면 위로 나와 논의되기보다는 조심스레 수면 아래에서 논의된다. 예컨대 교인들 사이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의 종교성을 띠어야 하는지에 대해 넓은 스펙트럼의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견해 차이나 그로 인한 갈등이 공론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보다

는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서운해하고 넘어가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정도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교회 차원에서의 통로는 많지 않다. 그나마 온라인 SNS 그룹이 이러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이 공간은 주요 공지 외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어, 영어 사용자들이 더 활발하게 이용하는 편이었고 한국인 교인들 중 다수는 내용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한 뒤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간단한 댓글로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였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갈등의 음성화(陰性化)는 한국인 교인들에게 더 주요하게 나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지속되는 가치 혹은 가장 중요한 운동의 원칙을 꼽으라면 그것은 여전히 다양성의 인정 및 추구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양성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질문해볼 수 있다. 사실 실천 차원에서는이 '다양한' 사람들 모두가 교회에서 유통되는 담론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며, 심지어 때로는다양성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교회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다양성이 유지되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고집한다. 다양한 교인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에게 더 잘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나기도 하면서도, 무지개교회 공동체의 다양성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는 사회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 받는데 있어 다양성의 인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으로 존재의 적법성을 의심 받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다운 모습으로서의 생존" 혹은 현 상태를 인정받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무조건적인 포용과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포용성을 기반으로 모든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오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도 이 사회에 속할 권리가 있음을 존재함 자체로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무지개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퀴어 개인이 개인으로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는 것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고 초점이 맞춰진다. '가치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퀴어로서 혹은 퀴어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생존하는 것 자체를 축하하고 인정함으로써 무지개교회 공동체는 종교적/성적

시민권의 경계를 더 넓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정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중심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사랑의 세계에 속할 수 있다는, 급진적 포용성의 기독교적 시민권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포용적 사랑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신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보수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대비시키며 보다 포괄적인 천국 시민권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서로의 생존해있음(queer survival)을 축하하는 동료 교인들의 존재는 이 포용적인 시민권 인식을 유지 및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이들이 선택한,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삶으로써 보여주고 증명하겠다는, "교회다운" 투쟁의 방식은 그리 체계적이지 못하다. 대신 '사랑으로 해야 한다'나 '다양한 사람이모두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다소 모호한 원칙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 이러한 모호함이야말로 사람들이 무지개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세계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며, 퀴어 기독교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치적주체성을 계발하여 성적 시민권의 확장을 위한 투쟁에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기제가 된다. 그리고 이 모호한 '사랑'과 '다양성'의 원칙이 위반되었을 때, 사람들은 무지개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단위의 생존도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VI. 결론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설명하며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주된 연구참여자들이라고 소개할 때 종종 "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라는 반응이 나오곤 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기독교인이 '있을 법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비규범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 VS. 기독교"라는 대중적인 대립 구도를 넘어서, 실재하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퀴어성과 종교적 신앙을 어떻게 조용시키고 또 기독교적 세계와 사회에서 인정을 획득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조화롭게 공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퀴어적 성 정체성 및 실천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화해는 새로운 문법을 만듦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문법은 이미 익숙한 기존의 문법들도 참조하여 만들어진다.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퀴어성과 기독교 신앙 실천은 단순한 '공존'의 수준을 넘어서 공진화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퀴어적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역으로 기독교 신앙 이들이 자신의 퀴어성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때 퀴어성과 기독교 신앙 실천은 각자 독립된채로 존재해온 요소가 아니라 동시적 사건이며 통합적 자아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로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성소수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기독교적 관념 세계 안에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무지개교회에서 만난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사회와 기존 교회에서 시민권을 부정 당하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겪어왔다. 사회에서 법제도적 •문화적 시민권을 완전히 획득하지 못하고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는 가운데, '교회'는 이들에 대한 억압을 행하는 주요한 행위주체로 등장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완전한 교회의 성원권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생애사적 경험을 겪어오면서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비규범적 성 정체성을 종교적 신앙과 긴밀히 연결시키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게 된다.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조직 혹은 제도로서의 교회와 신성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개인적인 교류를 중시하며 신이 베푸는 절대적 사랑과 행위성 안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물론 이러한 내러티브는 혼자만의 힘으로 형성되기는 쉽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 혹은 '롤모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문법의 용례가 쌓이고 이들은 확신을 얻게 된다.

연구자는 퀴어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회 공동체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조금씩 가시성을 얻고 있는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동체에서 어떤 종교적 실천이 드러나며 교회 내 상호작용이 퀴어 기독교인 행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무지개교회는 구성 차원에서의 다양성과 '하나님의 왕국에는 차별도 주변화도 없다'와 같이 그를 반영하는 종교 의례 내 담론을 통해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이 기독교적 세계와 사회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하게끔, 혹은 획득하기를 꿈꾸게끔 한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이고, 레즈비언이 게이를 놀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게이에게 '너 호르몬⁶⁶ 언제 시작할 거야?'라며 농을 치는, 그리고 불교철학을 추구하는 멤버와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란 멤버가 각자가 영성과 신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즐기라고 교육받으며 '이대로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는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과 '교회는 그곳에 찾아오는 이들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독교적 담론자원과 결부되어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제공하는 식탁에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이 사회에서 주변적 위치에 처해있거나 기존의 교회조직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모이게했다.

물론 다양성을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이 모두에게 항상 쉬운 작업은 결코 아니며, 높은 다양성은 무지개교회 커뮤니티 운영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교회 내에서 '다양성'이 가진 당위적 규범으로서의 위치만큼은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별난 존재로 취급 받으며 유표적 존재가 되거나, 차별과 부정적인 낙인의 대상이 될 것을 알기에 자신의 퀴어함을 숨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퀴어함이 난무하는 새로운 공간에 놓였을 때, 이들은 '그래도(혹은 그렇다면) 괜찮다'는 안도감을 공유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모두 괴상한 존재(퀴어)가 아니다'라는 잠정적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합법적인" 성적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간 부분과 같이 비체 (abject)가 된 성소수자이지만(Butler 1990) 이곳에서 사람들은 잘려나가기를 거부한다. 이는 무지개교회 공동체가 특정한 '모범적 퀴어 기독교인'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과도 맥이 닿아있다. 교회 내 누군가가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동 모델을 모범적인 이상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 들 경우, 그는 이 무지개교회라는 공간에서 어

⁶⁶ 성 호르몬 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MTF 트랜스젠더가 성 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 치를 취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여겨진다.

딘가 어색한 느낌을 만들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무지개교회에서 형성되는 퀴어 기독교인 주체화 과정에서는 주체(subject)-비체(abject) 구도 자체를 없애려는 기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당한(합법적인) 모습의 삶 같은 것은 없으며 그냥 자신이 살고 있는 이모습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점이다.

이는 연구자가 5장에서 다룬, 보다 포괄적인 성적 시민권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전술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배타적으로 구성된 기존의시민권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고 타자화되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적 시민권과 성적 시민권을 교차시키며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사례는 '배제당함'이라는 위치가 오히려 보다열린 대안적 시민권을 상상하게 한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무지개교회 교인들은 "일반 사회"나 "보수 기독교인"과 자신들 사이에 대립적인 의미구조를 확립한 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주된 에토스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물론 이들이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과 갈등보다는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가 성소수자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겠다는 전술을 택하게 된 것은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에토스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잘 보이지 않아서 때문이기도 하다.

'특별한 조건 없는 인정'에 대한 강조는 이들이 어떤 삶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하는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용적 사랑' 외에는 무지개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합의한 당위적 규범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는 다양성 속의 인정이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짐을 보여준다. 기존의 기독교 역사에서 주체가 될 수 없었고 버려져야 했던 성소수자 교인들은 기독교적 사랑의 원리를 역으로 자신의 삶에서 끌어안고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듦으로써 그 어떤 것도 잘려나가지 않을 수 있게 만든다. 자신이 이상한 혹은 불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행위성을 의탁한 존재인) 신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담론을 중심으로, 무지개교회 공동체는 천국 시민권과 사회에서의 성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안전지대(comfort zone)로 기능한다.

이들의 정치적 주체성과 운동성이 반드시 확장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지금 당장 성적 시민권이 가시적으로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에 오는 것은 '(이 모습 그대로의) 생존'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사는 것'과 '삶으로써 보여준다'는, 생존 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운동은 지금 당장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며 시간이 걸린다. 퀴어의 생존(queer survival) 자체가 가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의미를 찾고(Sedgwick 1994:2-3) 그를 토대로 사회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경우 선결조건은 일단 살아남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참여자들과 하나의 전체로

서의 무지개교회가 보여준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인 형태, 다시 말해 '문턱 없는 천국 시민권' 인식과 실천은 이와 같은 생존에 종교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무지개교회 교인들에게 종교적 신앙 실천과 퀴어적 성정체성 및 실천은 서로 얽혀가며 상호형성적 관계를 맺게 된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지지 교회에 다니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기독교적 시민 권과 성적 시민권이 교차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불법화"된 존재들의 인정투쟁에서 종교와 정치 사이의 유사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들이 얻고자 하는 '인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토대로 한 조건적 인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영역에 있는 무조건적 인정이었다. 이는 특정한 '성 정체성' 특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입장을 확립해가는 정체성 정치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무지개교회가 보여준 '모두의 성찬'을 향한 이상의 핵심은 구체적인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라 기보다는 이곳에는 누구든지 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다시 말해 사회적 지위의 인정(Fraser 2001:23-25; 박건 2011: 90-91)이다.

무지개교회 교인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신학과 교회에서의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주변화를 극복하고 '모두가 괜찮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정치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종교적 프로젝트이다. 한 사람(혹은 사회적 집단)이 사회의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으로 거의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인정모델은 일면 매우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된 시민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신앙이 대중적 인식에서처럼 퀴어적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본질적으로 부조응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진적인 성적 시민권을 상상하는 데 자원을 공급해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것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탐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무지개교회 내에서도 언어장벽을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화될 때 '모두의 성찬'이라는 이상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실현될 수 없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에 대한 적절한 인지와 탐구가 없다면 진정으로 주변화를 극복하는 일도 요원할 것이다. 종교와 성의 교차를 통한 급진적인 시민권 인식의 발달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다시 말해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종교 외에도 경제적 계급, 문화자본, 사회자본 등 다양한 축들이 어떻게 교차하며 그것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맥락이 이들이 보이는 기독교적 및 성적 시민권 모델의 출현

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총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것을 특히 퀴어신학 및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전지구화라는 맥락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결 지어 탐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학술문헌

- 강윤희. 2012.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미국 내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비교문화연구』 18(2): 5-51.
- 김도훈. 2011. "서바이버들의 게이 송가에 환호하라: 대중음악에 나타난 게이코드".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게이컬처홀릭〉편집위원회 지음. 『Gay Culture Holic: 친절한 게이문화 안내서』(서울: 씨네21북스). 16-29쪽.
- 나영정. 2012.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황: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동주최 심포지엄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현주소』(2012-10-27) 발표문 (미간행).
- 노영상 외 지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엮음. 2011.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건. 2011. "낸시 프레이저- 재분배, 인정, 그리고 대표의 3차원 정의와 페미니즘 운동". 『여/성이론』 24: 81-101.
- 박근진. 2003. "한국개신교신앙공동체에서 동성애정체성 연구-'로뎀나무그늘'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이은실. 2011. "급진적 섹슈얼리티 연구 재/구축을 제안하며". 『여/성이론』 25: 65-106.
- 배연주. 2013.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국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 유형 및 가치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은정. 2004. "기독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신앙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진. 2005. "인권,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 한국의 성적 소수자 운동과 정치학". 『경제와 사회』 67:66-87.
- 이병구. 2002. "동성애의 이해와 목회적 돌봄".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재. 2007. 『여성의 정체성: 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서울: 책세상.
- 정원희. 2013.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 감정 동학과 종교적 의례를

-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2013. "동성애자의 정체성 드러내기와 정보 관리 행동 연구: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이분법을 넘어".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최성복, 2001.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재방향성 고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홍규. 2010. "실천으로서의 종교: 의미의 문제를 넘어서". 『종교문화연구』 15: 1-44.
- 한채윤. 2010. "기획자 노트: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슘 프로젝트 엮음.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파주: 도서출판 한울). 4-13쪽.
- 기어츠, 클리포드. 1998[1966]. "문화체계로서의 종교".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서울: 까치글방). 111-156쪽.
- 미드, 조지 H. 2005[1934]. 나은영 옮김. 『정신·자아·사회』. 파주: 한길사.
- 제닝스, 테오도르 W. 2011. 박성훈 옮김.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서울: 동연.
- 푸코, 미셸. 2010[1976].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파주: 나남.
- 헬미니악, 다니엘 A. 2003. 김강일 옮김.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서울: 도서출판 해울.
- 호네트, 악셀. 2011[1992].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고양: 사월의책.
- Asad, Talal. 1983. Anthropological conceptions of religion: reflections on Geertz. *Man*, 18(2): 237-259.
- Bell, David and Jon Binnie. 2000. *The Sexual Citizen: Queer Politics and Beyond*. Cambridge: Polity Press.
- Black, Steven P. 2012. Laughing to death: joking as support amid stigma for Zuluspeaking South Africans living with HIV.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22(1): 87-108.
- Boelstorff, Tom. 2005. Between religion and desire: being Muslim and gay in Indonesia. *American Anthropologist*, 107(4): 575-585.
- Bozard, R. Lewis and Cody J. Sanders. 2011. Helping Christian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recover religion as a source of strength: developing a model for assessment

- and integration of religious identity in counseling.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5(1): 47-74.
- Butler, Judith. 1990. Gender Trouble. NY: Routledge.
- Cheng, Patrick S. 2011. Radical Love: An Introduction to Queer Theology. NY: Seabury Books.
- Fraser, Nancy. 2001. Recognition without ethics? Theory, Culture & Society, 18(2-3): 21-42.
- Glassgold, Judith M. 2008. Bridging the divide: integrating lesbian identity and Orthodox Judaism. *Women and Therapy*, 31(1): 59-73.
- Gumperz, John 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ane, Webb. 1997. Religious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9: 243-285.
- Kubicek, Katrina et al. 2009. "God made me gay for a reason": young men who have sex with men's resiliency in resolving internalized homophobia from religious sourc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4(5): 601-633.
- O'Brien, Jodi. 2004. Wrestling the angel of contradiction: queer Christian identities. Culture and Relig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5(2): 179-202.
- Ochs, Elinor and Lisa Capps. 1996. Narrating the self.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5: 19-43.
- O'Neill, Kevin L. 2009. *City of God: Christian citizenship in postwar Guatemal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ng, Aihwa. 1996.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Current Anthropology*, 37(5): 737-762.
- Ortner, Sherry B. 2006. Ch.2: Resistance and the problem of ethnographic refusal. <u>In</u>

 Anthropology and social theory: culture, power, and the acting subject.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42-62.
- Robbins, J. 2003. What is a Christian? Notes toward an anthropology of Christianity. *Religion*, 33: 191-199.
- Rodriguez, Eric M. and Suzanne C. Ouellette. 2000. Gay and lesbian Christians: homosexual and religious identity integration in the members and participants of a gay-positive church.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9(3): 333-347.
- Rosaldo, Renato. 1994. Cultural citizenship and educational democracy. *Cultural Anthropology*, 9(3): 402-411.
- Roseborough, David J. 2006. Coming out stories framed as faith narratives, or stories of spiritual growth. *Pastoral Psychology*, 55: 47-59

- Rubin, Gayle S. 1999[1984].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u>In</u> Richard Guy Parker and Peter Aggleton eds., *Culture, society and sexuality: a reader.* London: Psychology Press. pp.143-178.
- Schnoor, Randal F. 2006. Being gay and Jewish: negotiating intersecting identities. *Sociology* of Religion, 67(1): 43-60.
- Sedgwick, Eve K. 1994. Queer and now. <u>In</u> *Tendencies*. London: Routledge, pp.1-19.
- Shim, Doobo and Joseph Sung-Yul Park. 2008. The language politics of "English fever"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48(2): 136-159.
- Silverstein, Michael. 1976. Shifters, linguistic categories, and cultural description. <u>In</u> Keith H. Basso and Henry A. Selby eds., *Meaning in Anthropology*.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pp.11-56.
- Stein, Edward. 2011. Sexual Orientations, rights, and the body: immutability, essentialism, and nativism. *Social Research*, 78(2): 633-658.
- Tan, Chris K. K. 2009. "But they are like you and me": gay civil servants and citizenship in a cosmopolitanizing Singapore. *City and Society*, 21(1): 133-154.
- White, Daryl and Kendall O. White, Jr. 2004. Queer Christian confessions: spiritual autobiographies of gay Christians. *Culture and Relig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5(2): 203-217.
- Wilcox, Melissa M. 2002. When Sheila's a lesbian: religious individualism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hristians. *Sociology of religion*, 63(4): 497-513.
- _____. 2003. Coming out in Christianity: religion, identity, and communit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______. 2006. Outlaws or in-laws?: queer theory, LGBT studies, and religious studies. *Journal of Homosexuality*, 52(1-2): 73-100
- Yip, Andrew K. T. 1997. Dare to differ: gay and lesbian Catholics' assessment of official Catholic positions on sexuality. *Sociology of Religion* 58(2): 165-180.
- ______. 2005. Queering religious texts: an exploration of British non-heterosexual Christians' and Muslims' strategy of constructing sexuality-affirming hermeneutics. *Sociology*, 39(1): 47-65.

신문기사

김아람, "성소수자•기독교단체, '성소수자 차별 멈춰야'", 『연합뉴스』, 2013-11-

04[2014-10-01 접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03/0200000000AKR201311030512 00004.HTML?from=search

- 김태우,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 시민위 '선포·이행을'", 한겨레, 2014-12-01[2014-12-09 접속],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66816.html
- 신유리, "'차별금지법' 좌초 위기… 보수종교단체 강경 반대: 민주당 철회 '이성적 토론 어려운 상황'", 여성신문, 2013-04-22[2014-12-09 접속],

http://www.womennews.co.kr/news/57417#.VIbc aTGsVS0

유기림,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서 오물 투척 사건 발생: 기독교 신자 이모씨 '성경에 동성애는 금지돼 있다.'", 뉴스1, 2013-09-07[2014-10-01 접속],

http://news1.kr/articles/?1312914

- BBC News. 2013-12-20[2014-11-18 접속]. Ugandan MPs pass life in jail anti-homosexual law. http://www.bbc.com/news/world-africa-25463942
- BBC News. 2014-02-24[2014-11-18 접속]. Ugandan President Yoweri Museveni signs antigay bill. http://www.bbc.com/news/world-africa-26320102
- BBC News. 2014-08-01[2014-11-18 접속]. Uganda court annuls anti-homosexuality law. http://www.bbc.com/news/world-africa-28605400

강연

한채윤. 2013-10-11. "한국 퀴어 커뮤니티의 역사".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HK트 랜스내셔널 인문학 사업단 공동주최 심포지엄, 『영화, 역사를 그리다: 트랜스내셔널 한국의 퀴어 영화와 그 맥락』.

기타 자료

대한성서공회. 2011. 『새번역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USCCB), 2006-11-14, Ministry to persons with a homosexual inclination: guidelines for pastoral care.

ABSTRACT

Communion for All: Queer Christian Citizenship in an LGBTQ-Affirming Church

Yookyeong Im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ethnographic study of an LGBTQ-affirming church in Seoul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LGBTQ Christians reconcile their queerness and religious faith and construct an integrative model of queer Christian citizenship. Popular discussions on non-normative gender and sexuality have mostly understood the relationship of LGBTQ people and Christianity as one of conflict so far. Those who want to embrace both identities cannot be free from this context. The quotidian experience of LGBTQ Christians usually involve being marginalized both by society and by mainstream churches. Ironically, however, these people construct narratives that closely intertwine their non-normative sexual identities and religious faith. Queer Christians develop more positive understanding of their queerness as they position themselves within God's absolute love and agency. Behind this is a circular mechanism between Christian faith and queer experience or identity they have as a marginalized group in the sexual hierarchy. That is, 'unconditional and absolute love' which is an important discursive resource derived from Christianity, helps them understand queerness positively and their queer positionality helps them understand Christianity with a focus on radically inclusive love.

These kinds of narratives are re/produced as LGBTQ Christians meet likeminded people, i.e., other fellow LGBTQ Christians. Rainbow Church, the church where I conducted my fieldwork for more than eight months, is a small LGBTQ-affirming church that actively embraces queer theology. Collective practices within the church community have a big impact on how its LGBTQ Christian members make queerness and faith intersect. It lowers barriers to be a good citizen in the Christian world and society by emphasizing nondiscrimination and diversity within its congregation. The church organization does not suggest a particular image of 'model queer Christian' and the congregation itself is diverse in term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language, and religious orientation. So the members are assured that "it is okay to be who you are whatever it may be like." As a matter of course, diversity is not always recognized smoothly and it sometimes complicates management of the church. Nevertheless, the congregants show an almost absolute affirmation of the diversity within their church. This is because their ultimate aim and value centers on unconditional recognition, but not fitting oneself to a model of 'legitimate life.' This differentiates their perspective from a typical identity politics which focuses on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exual identities' and establishes particular standpoints based on those identities.

Their emphasis on the recognition of existence extends to discursive tactics they adopt in order to realize more inclusive sexual citizenship in society. Paradoxically, their experience of being excluded leads them to imagine more open and alternative citizenship. They have been marginalized in the exclusively constructed citizenship model but try to secure their place by intertwining Christian citizenship and sexual citizenship. The members of Rainbow Church emphasize 'unconditional love and recognition' as their ethos as they suggest meaning structures that highlight contrast between "the general public" or "conservative Christians" and themselves. This tendency leads them to avoid direct clash or conflict and select tactics to "prove with one's life." It stems from not only their Christian character but also practical constraints and risks caused by physical and/or logical conflicts.

The development of this unique form of political subjectivity and activism may not look like an expansion. Many congregants put priority on surviving as who they are now although they also find it important to have a visible expansion of sexual citizenship. The activism revolving around survival itself may not provide an explosive short-term momentum. However, it is still significant that it serves as a prerequisite for a long-term movement regarding sexual citizenship. Christian faith practiced by Rainbow Church focusing on barrier-free citizenship of heaven function as a meaningful religious resource in aforementioned concept of 'survival.' To LGBTQ Christians, attaining legitimate membership in heaven or the kingdom of God is not confined to gaining citizenship within the religious sector, but is extended to pushing the margins of sexual citizenship in broader society. Their pursuit of 'a safe space for everyone' in the church community as well as their individual faith narratives is not only a religious project but also a political one. Christian discursive resources help them develop a political model of recognition based on 'unconditional love.' This ethnography confirms that Christian faith can aid in imagining a radical notion of sexual citizenship rather than be essentially incommensurable with queer gender and sexuality like in popular perception.

Keywords: non-normative gender and sexuality, queer, Christianity, church community, queer theology, cultural citizenship, sexual citizenship, recognition, diversity

Student Number: 2012-22936